

로마서 강해

ROMANS

로마에서 가장 해

Romans

김 영 균 지음



KJ

도서
출판

킹제임스
King James Publications

로마서 강해

Romans

©2016 by KingJames Publications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Seoul, Korea

발 행 처 | 도서출판 킹제임스

등록번호 | 1999.6.18. 제17-292호

초판발행 | 2016. 5. 15

지 은 이 | 김영균

디자인·편집 | 김화영

표지사진 | 안성식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5동 544-1 엘림빌딩 7층

전 화 | 0505-856-1997

홈페이지 | www.ilovekjb.com

■ ISBN 978-89-89741-83-1

■ 정가 13,000원

■ 파본은 바꾸어 드립니다.

서문을 대신하여	11
로마서의 구성	12
로마서 1장	34
로마서 2장	73
로마서 3장	94
로마서 4장	128
로마서 5장	152
로마서 6장	184
로마서 7장	209
로마서 8장	237
로마서 9장	281
로마서 10장	295
로마서 11장	303
로마서 12장	327
로마서 13장	334
로마서 14장	343
로마서 15장	347

For we can do nothing against the truth,
but for the truth.
(2Corinthians 13:8)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노라.
(고린도후서 13:8)

이 책에 사용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안에”가
출간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전서” 입니다.

The Scripture quotations found herein are from
the text of the Korean King James Bible
published by InChristJesus Publications.

서문을 대신하여

신학원에서 강해한 ‘로마서’를 녹취하여 정리한 것이다 보니 두서없이 가끔 주제에서 벗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또한 시간 제약으로 인해 실천부분인 12-16장은 지극히 간략하게 다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란시스 웨퍼, 조성기 목사님 등은 8장까지만 강해한 책을 내시기도 했으나 저로서는 9-11장을 다루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12-16장의 실천 부분 역시 간략하게나마 다루고 싶었습니다. 좋은 로마서 주석 및 강해가 수없이 많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침례교회 부설 킹제임스 성경 신학원에서 2014년에 강의된 것으로 C.D.나 인터넷을 듣는 분들의 요청으로 책으로 펴내게 되었습니다. 이 책자가 독자 여러분께서 주님을 조금이라고 더 알아가고 사랑하고 섬기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안에서 형제 된 김영균 올림

로마서의 구성

“로마서는 성경의 진주이다”, “로마서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책이다”라는 여러 가지 코멘트와 칭송과 중요성에 대한 언급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마틴 루터는 롬 1:17에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이 위대한 말씀을 통해 자신이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종교개혁이라는 역사를 반전시키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으며, 감리교의 창시자로 알려진 요한 웨슬리는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다가 회심하는 놀라운 체험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어거스틴도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했으며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66권의 성경 중 어떤 책을 좋아하느냐고 물어보면, 복음에 핵심에 대한 충분한 이해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의 모두 로마서를 꼽습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서술하여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책입니다.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은 그와 같은 논리적인 방식의 서술 체계가 없습니다. 로마서를 제외한 서신서들은 각 지역교회들이 제각기 처해 있는 여러 문제점들과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 하나님께서 답변을 한 내용인데, 이는 특정 문제에 관한 언급이기 때문에 내용이 포괄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쓰인 시기와 순서가 다른 서신서들과는 다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복음서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 된 교회가 형성이 되어서 그 교회가 확장되고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서인 사도행전이 마무리된 후에, 비로소 신약 교회로서 가장 기초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 교리를 선언하는 책이 바로 로마서이기 때문에 로마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주제로 하여 명확한 체계와 논리를 갖추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당연히 로마서가 최고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취향과 성향에 따라 옅기거나 잠언을 꼽는 사람도 있지만 로마서가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책임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서를 통해 구원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복음을 더 잘 이해하고 배울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로마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쓴 책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기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치밀하고 핵심적인 모든 교리들이 집약되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로마서에 모두 압축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당시의 세계 중심지였던 로마제국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로마서에 담아서 신약 교회를 세우시고 사탄에게 선전포고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국의 중심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보냈다는 것은 굉장히 시사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로마서는 특별한 책입니다. 1981년 1월 1일에 구원을 받고, 12일이 지난 후 로마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피상적으로 알았겠지만 아주 심취하고 몰입해서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 지금까지 약 30년 넘도록 배우고 가르치기를 무려 10번 가까이 했습니다. 그 래도 여전히 더 배울 것이 많은 책입니다.

(롬1:1-2)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 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기록 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기독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은 아주 핵심적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으로 그분의 인격과 사역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죠. 쉽게 설명 드리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세히 소개한 책이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는 책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과 그분과의 관계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설명해주는 해설서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복음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기록한 사도행전은 역사서에 해당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을 나타내며 어떤 목적을 갖고 있으며 어떻게 구원을 얻는 것인지 보여주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따라서 가장 기본적인 책이 로마서이며, 하나님의 복 음이 그 주제가 됩니다.

(롬1:9)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기도할 때에 언제나 너희에 관하여 끊임없이 말하며

하나님의 복음은 그분의 아들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나중에 이를 ‘나의 복음’이라는 표현으로 부릅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나의 복음,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며 다른 복음은 없다고 했습니다. 롬1:1-15까지는 도입부로 편지를 쓰는 이유, 편지의 주제를 밝히는 부분입니다.

본론은 롬1:18부터 시작됩니다. 복음은 죄와 진노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면 안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가 왜 나타나는지,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에서 시작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롬1:16은 이것이 모든 인간들에게 해당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롬1:17은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 의가 어떻게 내 것이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의를 쟁취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지 보여줍니다.

사복음서가 구원자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면 로마서는 구원에 대해 말씀합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 433절 9,447단어로 되어 있는 로마서에는 죄와 구속에 대한 교리들이 그 어느 책에서보다 잘 제시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 다음과 같이 다섯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1. 구원에 대한 인간의 필요(롬1:1~3:20)

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는가?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 오지 않기 때문

입니다. 자신이 구원을 받지 않으면 얼마나 비참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게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구원받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모르고 살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서야 구원의 필요성을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귀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인생, 삶, 인간의 근본적인 것들에 대해 생각할 수 없게 합니다.

현 세상은 예능 만능시대입니다. 예능은 영단어로 amusement, ‘즐거다, 재미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muse’는 본래 생각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a-’가 붙으면 반의어가 되어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재미있게 즐긴다는 의미가 되지요. 인간은 왜 사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등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인간이 생각을 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세상을 꾸며 놓고 있습니다.

사람의 뇌는 용량이 다 차면 더 이상 생각하거나 다른 정보를 넣을 수 없습니다. 머릿속에 든 것을 비우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 세상은 온갖 정보를 끊임없이 인간의 머릿속에 넣어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로마서는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왜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개하여 알게 해 줍니다. 누구든 조금만 생각을 해 본다면 이 놀라운 말씀 속에 들어 있는 엄청난 능력에 의해 마음 속 깊은 곳에 찔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2.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롬3:21~5:21)

인간의 능력으로는 구원을 알 수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십니다.

3. 구원의 결과(롬6:1~8:39)

구원을 받은 후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4. 신약의 구원이 구약의 언약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롬 9:1~11:36)

1~3번까지의 논리대로라면 4번에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삶과 실천에 대한 부분은 마지막 5번째에서 다루어집니다. 왜 이 부분이 먼저 다루어지는가 하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지뢰밭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대로만 공부하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읽을 수 있는 핵심적인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역사를 진행해오다가 바로 이 교회시대에 복음이 전파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자원을 하나님의 경영방침에 입각하여 분배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헬라어 Oikonomia 영어로는 dispensation)이며, 세상에서는 '경제', economy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5. 구원이 가져다 주는 실제적인 삶(롬12:1~16:27)

각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첫째 부분

로마서의 첫째 부분은 (롬1:1~3:20) 인간이 왜 버림받은 존재이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제1장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제공해 주신 양심을 어겨 유죄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도둑질은 나쁜 행동임을 알고 있습니다. 살인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압니다. 사회적으로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들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롬1:18-21).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내재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문제는 교육을 통해 진화론과 과학을 배우면서 점점 하나님은 없다는 사상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은 마음이 어두워지고 이성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처음 출발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양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감동하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교만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곳으로 나아갔고(롬1:21-23) 그 반역은 우상숭배에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반역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셨습니다. 이것이 인간들에게는 비극입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떠나서 사는 삶이 어떤지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버림받은 상태로 전락하게 된 것은 점진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첫째로, 인간의 몸이 부도덕에 내어준 바 되었으며(롬1:24), 인간이 관능적인 쾌락을 추구해서 몸을 더럽혔습니다.

둘째로, 인간의 혼이 동성애에 내어준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남자는 여자에게 마음이 이끌리고 여자는 남자에게 이끌리도록 만드셨는데 이것이 잘못되어 버렸습니다.

셋째로, 인간의 영도 무신론에 내어주게 됩니다(롬1:28). 참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소크라테스와 예수님, 공자와 부처를 사대성인으로 꼽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남겨진 자료에 따르면 그가 죽기 직전에 수탉을 뱀신에게 바치고 약을 먹고 자살한 사람이며 동성연애자였다고 합니다.

이로써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 사실은 가장 사악한 죄인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믿음도 없음을 잘 설명해 줍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면서 ‘지옥에 가게 되면 가면 되지’ 이렇게 말하며, 죽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마지막 모습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좋은 날씨가 북쪽에서 나오나니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욥37:22)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

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께 밝히 드러났고 또 너희 양심에도 밝히 드러난 줄로 나는 확신하노라.”(고후5:11)

제2장은 양심에 대한 장으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임을 보여 줍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옳고 그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옳지 않은 일을 선택하기 때문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장을 잘 공부하면 ‘한 번도 복음을 들어 본 적이 없는 이교도’에 관한 오랜 의문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처럼 훌륭한 분들이 왜 지옥에 갑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옥에 가는지 안 가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었는데 거부했으면 당연히 지옥을 갑니다. 또한 그들이 들었는지 듣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1세기부터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가야 시대에도 복음이 들어와 있던 흔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시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해서 복음이 전파되지 못했을 뿐, 하나님은 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1세기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전 세계의 모든 창조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나라에도 흔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유지되지 못했을 뿐입니다.

한 번도 복음을 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양

심과 창조하신 창조세계 즉 자연을 통해 그분을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정당한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1.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자신이 받은 ‘빛’에 근거해서 자신의 삶에 대해 회계보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그 복음이 “빛”입니다. 반면 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더러는 양심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신 후에는 보편적인 방식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선택뿐입니다.

2. 유대인은 그들에게 주어진 빛(롬9:4)에 근거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롬2:9).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롬9:4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 이방인들은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빛에 근거해서(롬2:15, 요1:5) 심판을 받게 됩니다.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빛을 마음에 주셨습니다. 그 마음의 빛은 양심입니다.

제3장. 롬3:1~20은 모든 인간은 교육 수준, 사회적 지위, 종교적 배경, 인종 혹은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가 다 버림받은 자요, 길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복음성가인 Amazing Grace에 보면 ‘나는 한 때 길 잃어버린 자였는데 하나님께 발견되었다(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는 가사가 있습니다.

실존주의자들이 사용하는 유명한 말 중에 길을 잃어버린 우주의 미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이 마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우주를 떠돌아다니는 길 잃어버린 어린아이 같다 하여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맞는 말일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 실재하시고, 그분께서 “내가 곧 길이요(요14:6)”라고 하셨으니 그분을 따르면 길 잃을 염려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의 길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가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사53:6) 이것은 현대판 마이웨이입니다. 동창회나 송년회를 하면 마지막에 전부 ‘My way’를 부릅니다. 사실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구원의 길은 따로 있는데 말입니다. 동양의 ‘도 사상’ 역시 마찬가지로 멸망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로마서 앞부분은 우리가 죄인임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기록된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롬3:10)”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첫째 부분은 버림받은 죄인에게 그들의 현실을 보여줄 뿐 아니라 믿은 사람에게도 인간의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죄 문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며 결국 유익을 가져오기보다는 해를 가져올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죄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것부터 시작하면 안 됩니다.

〈2〉 둘째 부분

로마서의 둘째 부분은 3:21-5:21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부분에 계시된 진리를 잘 이해한다면 교회가 큰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곳에는 신약 구원의 성경적 교리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구원에 관한 참된 교리들이 오늘날 전혀 다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시대로 돌아가자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역사서이고, 지금은 교리를 설교하고 가르쳐야 할 때입니다.

로마서의 교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역자들이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강단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거듭나는 것은 딱 한 번인데 날마다 거듭나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비웃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화목, 구속, 전가 등과 같은 교리에 대해 얼마나 자주 듣고 계십니까? 이들 교리들은 신약의 심장부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시대의 사역자들은 거의 언급을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1) 칭의(justification):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사역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 2) 구속(redemption): 하나님께서 죄인의, 영, 혼, 그리고 몸을 사시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에 대한 값으로 지불되었음)
- 3) 화목(propitiation): 예수 그리스도께서 헌물로 드려짐으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반목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 4) 화해(reconciliation): 전에 전쟁 중이던 두 당사자가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 5) 상호내주(reciprocal indwelling): 믿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놓이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 안에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 6) 구원(salvation): 하나님께서 죄인을 죄의 형벌로부터 죄의 권능으로부터 날마다 그리고 결국은 죄의 임재로부터 구출하시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더 있습니다만 만약 이와 같은 교리들이 올바르게 이해되고 올바르게 선포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교리들이 믿는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진다면 구원에 관한 많은 거짓 교리들이 입을 다물게 될 것입니다. 만약 성경 어느 한 부분만이라도 반드시 마스터해야 한다면 이 부분(롬3:21-51)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부분〉

로마서의 셋째 부분은 6~8장으로, 구원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가져다 주는 결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장들을 잘 공부하고 시행착오를 경험한 후 자신의 삶에 적용한다면 영적인 성숙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과정은 D.L 무디나 워치만 니같은 사람들도 7~10년의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죄와 율법에 대해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로마서 6장~8장입니다.

워치만 니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책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프란시스 쉐퍼의 ‘진정한 영적생활’이라는 책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어렵

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범법과 죄들로 인해 죽어 있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로마서 둘째 부분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든 놀라운 역사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제 서로 극하게 대립되는 두 성품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아담의 성품은 없어지지 않고 내 육체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아주 ‘고’ 상한 사람과 ‘고’ 약한 사람이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갈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 예수님께서 드러나셔서 승리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엉망이 되어 버립니다. 이 장들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게 되는 실제 현실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제6장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되어야 할 이상적인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옛 성품과 새 성품의 진정한 상태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오직 죄밖에는 지을 수 없습니다. 반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온전히 의롭습니다.

그래서 요일3:9에서 말씀하신 것은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 즉 우리의 속사람이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좇아 새사람으로 살면 죄를 짓지 않지만 육신을 좇아 옛사람으로 살면 죄를 짓습니다.

1) 이 둘은 전혀 공통된 점이 없으며 항상 반목합니다.

- 2) 새 사람은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함으로써 옛사람을 완전히 정복할 능력을 얻게 됩니다.
- 3) 이로써 성도는 일상생활에서 완전히 철저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 4) 영이 육을 지배하게 되고 결국 모든 것이 기쁨 가득한 승리가 됩니다.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제7장에는 6장의 이상적인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우리의 실제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슬프게도 극소수의 그리스도인을 제외한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장에 묘사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해마다 다 죽고 가나안 땅에는 두 사람(여호수아 갈렙)과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만 들어갔습니다. 3백만 명 중에 단 두 사람만이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옳고 그름과 선악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실에서는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죄의 길과 의의 길이 다르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의로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절망스러운 모습은 롬7:11-24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아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는 무기력해집니다. 이 구절들에는 ‘나(I)’ 라는 단어가 무려 26번이나 등장합니다. 즉 자아에 간혀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실제적으로는 죄로 인해 실패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라는 처절함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구원을 받고 선악도 알고 성령님을 안에 모시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의롭게 살지 못하고 육신적인 삶으로 죄 속에 사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장은 성도들의 문제는 사탄이 아니고, 마귀들 즉 악한 영들도 아니며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도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무서운 원수는 바로 자아입니다. 자아에 사로잡혀 있는 자는 오직 죽음을 통해서만 승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롬7:24).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비참한 자이오니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을 때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욥42:6 참조).

제8장은 소망을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성도는 나약함과 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 받지 않습니다. 생명의 성령(롬8:2), 하나님의 의(롬8:4),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내주함 이 모든 것이 이 장에서 다루어집니다.

로마서 8장은 주님께서 성도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성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완성된 모습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이 모습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완전히 현실로 드러나게 될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날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성령께서는 그의 나약함을 도우시며(롬8:26)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들이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며(롬8:28),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안전하게 지키십니다(롬8:29-39). 실패한다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며 성경 최고의

선언입니다.

〈4〉 넷째 부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지인 로마서는 성도들의 생활(롬6-8장)에서 곧바로 성도들의 행위(롬12-16장)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구원 교리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를 불러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에 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구약에 나오는 언약들과 약속들은 다 없어지는 걸까요? 왕국에 관한 예언들과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다루신다는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구약은 파괴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은 구약의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로마서 9장~1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택함 받은 백성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부터 이방인들에게로 관심을 돌리셨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에 실패했으며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이 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오면서 이방인들 역시 복음을 거부하게 될 것이며 결국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재림하시게 될 것임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히8장).

사실 로마서 9~11장은 성경의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거짓 교리를 세우

는 데 기초가 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이 세 장이 민족을 다루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 장은 개인들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간과하고 읽는다면 하나님께서 계시하고자 하는 진리를 결코 조명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장들을 올바르게 잘 이해하면 브리티시 이스라엘리즘(British Israelism;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자들이 유다 지파를 제외한 북왕국 열 지파가 바로 영국과 미국인이라고 주장하는 이상한 종파), 왕국신학 등과 같은 신화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 이단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영원히 제쳐 버리셨다는 거짓된 가정 위에 교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도 이런 가정하에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축복들이 다 로마 가톨릭의 것이 되었다고 하며 선교를 할 때 실제로 어느 나라에 가면 그 땅을 자신들의 교구로 삼아 버립니다.

예를 들어 서울 대교구라 하면 서울이 자신들의 땅이라는 뜻으로 실제로 교황청 대사도 파견을 하죠. 마치 국가인 양 행세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로마서 9-11장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들이 영적으로 모두 자신들의 것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교회가 영적인 복에 그치지 않고 물질적인 복까지 모두 차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11장까지는 온 인류를 집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타락한 인류에게 기회를 주었는데 다시 타락해 버렸고 하나님은 이를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인간은 바벨탑에서 또 타락했고 하나님은 이를 다시 심판하셨으나 인간은 계속해서 반역을 일삼습니다. 그래

서 하나님께서는 경영 방침(경륜)을 바꾸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를 집합적으로 다루시다가 창11장 이후 무지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백성의 수가 적은 민족을 뽑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고 증인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백성보다 수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수가 가장 적으니라.”(신7:7)

그러나 이 민족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 커녕 하나님께서 모독을 받게 했습니다. “이것은 기록된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함과 같으니라.”(롬2:24)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개 취급하며 멸시하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사랑 받는 모습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줌으로써 질투를 유발하는 지혜를 로마서 11장에서 보여주셨습니다.

9장은 이스라엘의 과거이며 10장은 현재, 11장은 미래입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은 1900년 만에 국가로 회복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역사의 시계입니다.

〈5〉 다섯째 부분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구원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으며 이는 교회생활로 표현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혼자 바르게 살면 된다

고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이루어서 교회가 단체로 주님을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멋진 건축자재도 재료상에 진열되어 있기만 하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으나 재료 하나 하나가 각기 필요에 따라 맞추어져서 건물로 만들어 지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엡2:21-22) 개개인이 올바른 인간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생활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다섯째 부분의 주제는 바로 로마서 12: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 구절의 의미는 ‘너희를 예수님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 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돌들을 주워 생명을 불어 넣어 조각하시며 작품을 만들고 계십니다. 산 돌이신 예수님처럼 살아있는 돌들로 만들고 계십니다.

“참으로 사람들에게는 거부당하였으나 하나님께는 선정 받은 돌 곧 보배

로운 산 돌이신 그분께 나아와 너희도 살아 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벧전2:4-5) 예수님께서서는 중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조각을 할 때 날카로운 칼끝이 돌을 계속해서 찌르는 것처럼 우리 역시 작품이 되는 과정에 수차례 찢립니다. 이 아픔과 고통이 하나님께서 나를 작품으로 만드시는 데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행14:22) 하나님의 마스터플랜을 알면 고난도 조금은 덜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훨씬 신앙생활을 여유 있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 부분에는 그리스도인과 정부와의 관계(롬13:1-14), 그리스도인과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롬14:1-23) 등이 다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주님을 위한 그의 신앙 여정 가운데 여러 친구들과 돕는 자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계시되어 있습니다(롬16:1-23).

사실 로마서는 15장에서 작별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뒤에 갑자기 추신이 붙습니다. 누구에게 안부 전하고 누구에게도 안부를 전하라는 말이 쓰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되어서 인품이 바뀌면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16장은 바울의 성숙함을 입증하는 장입니다. 로마서를 한 구절 한 구절 공부해 나가면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사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역사서라면 로마서는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이 의미하는 바를 보여주는 실질적인 복음서이며 교리서입니다. 로마서는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통하여 제공해 주신 구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상당히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특히 로마서의 5장 11절까지는 가장 기본적인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장 12절부터 8장까지 성화와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는 논리적으로만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체험이 될 때는 어느 정도 수궁이 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알 듯도 모를 듯도 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깨닫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구원이란, 즉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책이며 신약 교회의 첫 초석입니다.

로마서를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풀리게 됩니다. 속담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영적으로도 맞는 말 같습니다. 성경 전체도 로마서에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로마서 1:1-3:23까지는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그 죄인에게는 구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 구원이 필요한데 인간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으니 그렇다면 어떻게 그

구원을 제공해주시는가를 로마서 5장까지 설명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5:12부터는 실제적으로 그 구원이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 어떻게 실재화될 수 있는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거룩함 또는 성화라고 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까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9-11장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들대신 유대인을 다룹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유대민족을 이루셨고 그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성경이 창세기부터 구약의 유대인들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로마서 9-11장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스터플랜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타나 있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부분, 로마서 9-11장을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소위 말하는 온갖 종류의 이단 교리가 생겨나기 쉽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칼빈주의, 아르메니안주의 등등)

그러나 반대로 이 장을 제대로 공부하면 너무나 놀라운 진리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마지막(롬11:33-36)에서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누가 이분의 생각을 알았느냐?…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 분으로 말미암아 그분께로 돌아가나니…”라며 감격에 차서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로마서 12-15장까지는 실제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 구원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게 될 영적인 삶의 법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로마서 6-8장의 내용입니다.

12-15장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태도와 행동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하며 시민으로서 국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실천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생활에 대해 나옵니다. 16장은 형제들을 향한 마지막 인사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를 잘 소화한다면 다른 지체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자신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날 것입니다.

로마서 1:1-7

(롬1:1)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롬1:2)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롬1:3)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롬1:4)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롬1:5)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믿음에 순종하게 하였나니

(롬1:6)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롬1:7)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성경에 보면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든지 마귀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인간은 독립적인 자유인일 수 없습니다. 요한 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인격화된 모습이 바로 사탄입니다. 성경에 보면 불순종하는 자, 즉 믿지 않는 자의 안에는 마귀의 영이 역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엡2:2)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이들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우선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역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을 때에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와 달리 우리를 종으로 부리지 않고 오히려 자유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일하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이들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 자유롭게 하는 자는 자유롭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결코 누구에게도 속박된 적이 없거늘 어찌 네가 이르기를,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하매”(요8:31-33)

유대인들은 참으로 교만한 자들입니다. 처음에 이집트에서 노예였고, 바빌론에 포로로도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 독립국가로 있지 못했으며 중간에 노예로 살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의 씨는 결코 누구에게도 속박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로마에 속박되어 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께 그렇게 교만하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와 사망의 종이라고 말하면 ‘나는 종이 아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유를 얻은 이들 역시 이상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음에도 다시 속박의 멍에를 다시 매고자 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율법의 노예, 종교의 노예가 되려고 했습니다. 율법이란 반드시 주일성수 해야 하며 십일조를 해야 하고 여자는 반드시 치마를 입어야 하는 등 반드시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통해 율법의 의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니라.”(롬8:4) 이를 악물고 내가 노력해서 지키고자 한다면 그것은 노예입니

다.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으나 이 구원을 지켜내야 한다면 모세의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유를 얻은 진정한 자유인은 의무감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속박은 이미 초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14에서 “너희는 율법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값으로 죄인들을 사셨습니다. 노예 시장에서 인질로 잡혀 있던 자들을 구속하셨기 때문에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종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비록 종이지만 주인이 자유롭게 해 주셨기 때문에 자유인이 됩니다. 그러나 좋은 주인을 사랑하므로 주인이 자유를 주었음에도 그분을 떠나지 않고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네가 히브리 사람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거저 나가 자유로운 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혼자 왔으면 혼자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갈 것이니라. 만일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녀가 그에게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녀의 자녀들은 그녀의 주인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혼자 나갈 것이로되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내 주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을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로운 몸이 되지 아니하겠노라, 하면 그의 주인이 그를 데리고 재판관들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기둥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주인이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으리니 그가 영원토록 그를 섬기리라.”(출 21:2-6)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발적으로 그분을 섬기며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으로서 노예가 아닌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로 태어났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 원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가 6천만 명이나 있었습니다. 노예는 종이며 주인의 소유물로 여겨지던 그 시대에 바울은 노예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었지만 스스로 그분의 종이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한 구절 속에도 이토록 어마어마한 성경 전체의 구속의 교리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종임에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란 ‘보내어진 자’라는 뜻입니다. 현대어로 한다면 선교사입니다. 자기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뜻이죠.

요즘에는 사람들이 자기 일을 하다가 잘 안되면 ‘선교나 하러 갈까’라는 말을 합니다. 선교를 무슨 관광하는 것쯤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가 되기 전에 먼저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은 되기 싫어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멋대로 살며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하고 선교도 빛 좋은 허세쯤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난 뒤에 사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롬1:1)**

롬1:9에 아들의 복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롬1:16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6장에서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에는 엄청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구절을 비교해 보면 우선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은 분임을 입증할 수 있으며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한 것에서는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는 몸이니 그분과 연합되어 하나가 되므로 그분의 복음이 곧 나의 복음이 되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네 번에 걸쳐 복음에 대한 수식어가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로마서의 주제인 하나님의 복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별되었다는 것은 ‘거룩’의 실제적 의미이며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 따로 떼어 놓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따로 떼어 놓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오직 복음 하나만을 위해 살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별되었다는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자신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갈1:15)

바울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통해 구원받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복음의 사도로 계획되고 구별되었습니다. 행9:15에 바울이 회심하는 순간에 따로 구별되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실제적으로 임무를 부여 받았습니다(행 13:2).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행 9:15) “그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시킬 일을 위해 그들을 내게로 구별하라, 하시니”(행13:2)

요즘 말로 하면 선교사로 파송된 것입니다. 신약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별”이란 곧 성별하는 것입니다(고전6:11). 우리가 매일 매일의 삶에

서 주님을 닮아가고 신앙 생활하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그러나 먼저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삶을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순간에 하나님만을 위해 살게끔 구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세상적 사고방식으로부터 구별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구별되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또한 무엇을 위해 구별되었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구별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이었으며 삶에 대한 인식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롬1:2)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거룩한 대언자들을 통해 기록하신 성경입니다. 롬1:3-4. 복음은 인격이지 사물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상이 아니고 교리가 아니라 살아 있는 인격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길이요, 진리이며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첫째로는 인간에게서 나셨으며 둘째 거룩의 영으로는 부활하신 분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Spirit of Holiness는 일반

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님(Holy spirit)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 혼, 몸을 지니셨을 때의 그 영을 가리킵니다. 거룩 그 자체이셨던 그때, 죄와 관련될 수가 없으며 더럽혀질 수가 없는 그런 깨끗함 자체였던 그 영 말입니다.

(롬1:4)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과 죽은 자들의 부활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100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은 여러분과 저의 휴거와 관련이 있고, 죽은 자들의 부활은 그 후 1000년이 지난 다음 흰왕좌 심판을 받기 위한 정죄의 부활로, 심판 받기 위한 부활입니다.

영어의 전치사 하나로 완전히 다른 의미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계5:6에 “...전에 죽임을 당하였던 어린양께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과거완료형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성서들에는 “최근에 죽임 당하신 것 같은 어린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현재완료). 이처럼 계5:6의 시점이 휴거의 시점인지 2000년 전 예수님의 승천 시점인지가 이 동사의 시제 하나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d(had)를 s(has)로 고치면 종말론이라는 교리가 통째로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아주 치명적인 독소입니다. 위대한 복음교사이자 성경교사인 워치만 니가 종말론을 놓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처럼 올바른 성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조금 정확하고 덜 정확하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는데 이때는 영어로 ‘be born’ 을 쓰지 않고 ‘made of’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의 씨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여자에게서 났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에게서 만들어졌다” 라고 하면 어색하니까 표현상의 이유로 “여자에게서 났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는 그 조상이 다윗으로 올라가는데 마리아와 요셉 역시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에게는 왕권을 이어받은 솔로몬과 나단이라는 다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 중 요셉은 솔로몬의 후손이며 마리아는 나단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후손은 여고냐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께 죄를 범해 저주를 받아 그 혈통으로는 더 이상 왕이 나올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 태어나셨다면 요셉의 후손이 되어 왕이 되실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다윗의 다른 후손이었고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왕위를 이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토록 치밀하며 놀랍습니다.

(롬1:4)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임을 입증하셨습니다

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롬4:25)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갚을 빚이 없습니다. 죄와 무관함을 입증하는 부활은 예수님의 칭의를 입증해 줍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이미 계시되어 있는 분이시며 다윗의 씨로 인간의 몸을 입고 왕이 되실 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을 지니신 분으로 오셨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소개되어 있는데 마1:20에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계22:16에도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신약의 시작과 끝에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표현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롬1:5)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믿음에 순종하게 하였나니”

그분께서는 은혜를 주셨고 사도직을 주셨습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구원이 먼저이고 섬김이 그 다음입니다. 내게로 오라는 초청이 먼저이고 예수님께 명령을 받아서 가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도 은혜가 먼저이고 나중에 사도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의 은혜는 구원받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은혜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나가 되게 하였다고 바울이 고백했듯이 말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믿음에 순종하게 하였나니 (5절)” 민족들로 하여금 믿음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 바울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문맥은 바울이 믿음에 순종해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복

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믿음과 순종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계속해서 믿음에 순종한 것, 즉 바울이 주어입니다. 문맥을 보면 은혜와 사도직을 받아 자신이 받은 그 믿음에 순종하여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고 보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롬1:6)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에서 ‘그들’ 이란 민족들입니다.

(롬1:7)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하나님께 사랑 받은 자입니다. 원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 주셨으니”(엡1:6)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너무 기뻐서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사랑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정죄 받은 자로 그분의 진노가 머리 위에 머물러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요3:36).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에서 성도의 뜻은 예수님께서 핏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서 자신의 몫으로 따로 떼어 놓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헌신하고 종교생활에 열심인 사람들, 예를 들면 테레사 수녀, 김대건 신부 같은 사람만 성자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성도이면서도 성도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자가 되고 그러한 삶을 산다면 그것은 칭찬하고 인정받을 일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삶에서 예수님을 쫓 빼놓은 채로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착하게 살아서 성자가 되겠다고 발버둥을 친다는 것이 문제이며 이는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헌신된 삶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것은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7절에 보면 ‘…편지하노니, … 은혜와 평강이… 원하노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인사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어찌 보면 상투적인 표현일 수 있으나 사실은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오게 되며 또 주실 수 있습니다. 은혜는 거저 주시는 생명이며 영생입니다. 평안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믿음으로 거저 얻을 때 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거리낌 없이 평안한 상태인 이때가 인간으로서 가장 편안하고 행복함을 맛볼 수 있는 때입니다.

(롬1:8) 먼저 너희 모두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두루 전하여졌기 때문이다.

바울의 중보기도는 하나님께 찬양함으로써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찬양’ 하면 노래를 연상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입술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히13:15) 보통은 이러한 찬양을 노래로 표현하기 때문에 찬양과 노래가 동일시되는 것 같습니다. 경배는 이러한 찬양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해 주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퍼하신 분인지를 알아 그분을 드높이는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두루 전하여졌기 때문이라(8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소문이 짝 퍼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온 세상이라는 말에 “그 당시에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었느냐? 그러면 한국에도 복음이 전파되었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마도 로마와는 전 세계가 무역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라 봅니다. 성경은 골1:23에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가야 시대 유물에도 복음이 들어온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전해진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지 못하고 중간에 우상숭배로 인해 다 없어진 것일 뿐 우리만 특별히 늦게 받은 것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초대 교회 시기에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롬1:9)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기도할 때에 언제나 너희에 관하여 끊임없이 말하며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 되시거니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영으로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요4:24에 하나님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려면 우리에게도 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속에 영을 지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영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는데 이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오랜 세월을 살다 보니 무뎠진 탓일 겁니다.

영이라고 하면 어떤 신비로운 것을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진리이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 아주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자기중심에서 벗어나야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주의 말씀의 엄중한 부담이라. 주 곧 하늘들을 펼치고 땅의 기초를 놓으며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는 이가 말하노라.”(슥12:1)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자신은 이스라엘의 주인이고 하늘들을 펼친 분이며 창조주라고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사람 속에 영을 지은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첫째, 하늘들을 창조하셨는데 땅을 위해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땅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가 하늘로부터 옵니다. 태양이 없으면 지구가 존재할 수 없죠. 땅은 왜 지으셨는가? 사람을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인간은 필요한 모든 것을 땅을 통해 공급받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지으셨을까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지음 받았습니다.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계4:11)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영을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죄를 지었고 영이 죽어 그 작동이 멈추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철학자들이 나타나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이 이성으로 철학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즉 철학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합니다. 영이 죽어 버린 사람이 성경을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듭나야만 영이 살아나고 그 거듭난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으며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몸으로 혼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영을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영이시며 우리의 신앙 활동의 핵심이 거듭난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3:6에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게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죽은 영이 살아나고 이때부터 하나님을 알아보아 교제할 수 있습니다.

(롬1:9)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기도할 때에 언제나 너희에 관하여 끊임없이 말하며

“...내가 기도할 때에 언제나 너희에 관하여 끊임없이 말하며” 바울의 열정은 정말 대단합니다. 생면부지의 로마 사람들을 위해 쉬지 않고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으며 전략적으로 로마를 점령하여 복음을 전 세계로 전파하기 원했습니다.

(롬1:10) 어찌하든지 이제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탄한 여정을 얻어 너희에게 가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어찌하든지”라는 말 속에서 바울의 간절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탄한 여정을 얻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울은 사실 죄인으로 잡혀서 쇠고랑을 차고 로마를 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참 많이 다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감옥은 고관들이 드나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곧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바둑으로 치면 그 수가 매우 높으신 분입니다. 욥기서에는 마귀를 잡기 위해 미끼로 욥을 사용하셨습니다(욥41장). 마귀가 물 수밖에 없는 미끼를 던지셔서 결국은 승리하셨지요.

성경을 읽는 가운데 또 다른 재미는 하나님의 숨씨를 보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되려면 우선 영적으로 많이 성숙해야 합니다. 우선 중심이 ‘나’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내게 필요한 것부터 채우게 되면 즉,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자라듯이 영적 성숙이 좀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는 음식의 맛을 음미

하게 됩니다. 이를 바울은 ‘오!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함이여’ 라며 감탄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바울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구원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롬1:11)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고자 함이니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은” 여기서는 바울의 형제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요일5:1)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것 때문이 아니라 형제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진정한 형제 사랑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본 적도 없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바울은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이 마음이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고자 함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선물이 많으므로 이를 형제들과 나누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굳게 세우고자 함이니(11절)”

신앙생활에 있어 세워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계속해서 흔들리고 올라갔다 내려가기를 반복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가 어제는 밝았다가 오늘은 어둡게 보이면 보는 사람의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굳건하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생활을 꾸준히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

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엡4:11-14) 확고하게 교리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항상 흔들리는 영적으로 어린 지체들을 세워주고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게 해 주고 싶었던 그 마음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으며, 동시에 로마로 가고 싶은 이유였습니다.

(롬1:12) 이것은 곧 너희와 나 사이의 공통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를 받고자 함이라.

바울은 “공통된 믿음”으로 서로가 받은 은사로 서로를 섬기고 위로 받기를 원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타성에 젖어 느슨해지고 미지근한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이제 갓 구원을 받아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뜨겁게 기도하는 것을 보면 도전을 받아 다시 새롭게 열정을 가지게 됩니다.

(롬1:13)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도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처럼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이제껏 막혔도나.)

여기서 “열매”라 하면 구원의 열매, 복음의 열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에서 열매는 일관성 있게 ‘성령의 열매’에서만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미 믿은 사람이 삶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껏 막혔도다**(13절)”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사탄이 바울을 방해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에게는 이미 주어진 임무가 많았고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못 간 것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참고로 “막혔도다”에서 영어로 ‘Let’이라는 동사가 쓰입니다. 이는 본래 ‘허락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왜 여기에서는 ‘방해하다’로 쓰였을까요? 종종 이렇게 영어의 뜻이 반전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환영합니다(You are welcome!)”라고 말했더니 상대방이 “고맙습니다(Thank you)”라고 화답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면 “환영합니다”라고 화답하게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찾아온 이에게 환영한다고 말하면 그 손님이 주인에게 고맙다고 대답하는 것이 원래의 순서인데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단어 역시 원래는 허락한다는 뜻으로 쓰였는데 이 부분에서는 방해한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을 칠 때 공이 네트를 넘어가지 못하고 방해를 받아 걸렸을 때 let이 역시 방해를 받았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롬1:14)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빛진 자니라.

그리스인은 문명화된 자이며 바바리인은 야만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복음을 받아야 하기에

바울을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숭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롬1:15)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 나는 또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이 표현도 번역하기가 까다롭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분량대로”라는 것은 내 입장에서 최대한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너희이기 때문에 기꺼이 하겠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바울이 로마에 있는 자들에게 쓴 편지의 인사말입니다. 16-17절은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롬1:16)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복음만 믿으면 지옥에서 하늘나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형편없는 인간에서 고상한 자로 변화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체험했는데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부끄러워합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상사가 알게 될까 봐 식사기도를 하지 않은 채 먹는다든지 등등. 예수님을 믿는다고 손가락질 당할까 봐 그렇겠지요.

바울은 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감옥으로 보내는 일에 동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의 광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으로 많은 체험을 한 뒤 변화되어 예수님의 사랑의 종이 되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16절) 그리스인이라 하면 모든 이방인들의 대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북왕국 열 지파를 이야기하실 때 에브라임이라고 칭합니다. 열 지파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으로부터 나온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율법도 유대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기회가 온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로마서 11장에서 하겠습니다.

(롬1: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여기에서 많은 오해가 생겨 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 하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부터 떠올립니다. 너무 사랑이 강하니까요.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요3:16)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사랑보다는 하나님의 의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충족이 되어야 진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의한 사랑이 아닙니다. 의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찾아온 죄인은 빨리 이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도, 축복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더러운 그릇에 어떻게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을 주고 깨끗한 은혜를 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의롭게 하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는 그분의 의가 들어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죄 지은 적이 없는 존재로 바뀔 수 있습니다. 17절의 의를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수단이 복음이며 믿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17절) 의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수단 또한 믿음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믿음도 가지고 계십니다. 히12:2은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합니다. 처음에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주시고 이를 완성시키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믿음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는 내 믿음이 아니라 그분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노라”(갈2:20)

그런데 내 믿음으로 구원을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를 낭비하게 하고자 합니다.

17절의 표현은 구약성경 하박국 2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기록된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17절) 거기에는 “**오직 의인은 자기(his) 믿음으로 살리라**”, 즉 ‘자기 믿음’이란 말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삽니다. 자기 믿음으로 살면 신앙생활 조금 하다가 주저앉습니다. 데마처럼 세상으로 떠내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롬1:18)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17절과 18절은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진노, 불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복음에 계시되어 있는데 인간에 대한 진노는 하늘로부터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경건치 아니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부인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은 것, 이것이 경건치 아니한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과 악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음으로써 불순종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수직관계가 어그러진 인간은 최초로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즉, 수평관계인 대인 관계가 어그러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되지 못한 것(수직관계), 다른 사람에 대해 올바르게 대하지 못한 것(수평관계)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모든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잡는 방법은 무엇인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께서 들어가 계셨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와 더불어 하나님의 진노 역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진노하지 않으실 수 없습니다. 불의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사회는 불의한 행동을 하는 자들에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와 진노는 항상 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경건치 아니함 때문입니다.

영어의 ‘ungodliness’는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경건치 아니한’으로 번역이 되어있는데 우리말로는 의미가 좀 불분명합니다. ‘경건’이라는 단어는 뭔가 엄숙하고 숙연한 분위기와 태도 등이 주로 떠오르게 하지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ungodliness’가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라이프 스타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고방식이 바로 godliness라면, ungodliness는 하나님 스타일대로 살지 않는 것,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는 스타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들은 하나님과 정반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창조물이므로 하나님을 드높여 드려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과의 이 수직관계가 어그러짐으로 인해 생긴 것입니다.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불순종으로 이 관계를 깨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 옆에 있는 인간들에게도 불의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원래대로 회복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네 마음과 생각과 힘과 혼을 다해 네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올바른 관계로 돌이킬 수 있게 하며 이웃과의 관계 역시 바로잡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넓게 부은 바 되었다고 하는 로마서 5장 5절을 믿을 때에 이것이

실제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라는 말씀을 킹 제임스 성경 외에 나머지 99%의 성경이 ‘붙잡다’ 대신에 ‘억누르다’라는 단어로 변경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집에 성경 한 권쯤은 있게 마련입니다. 펼치기만 하면 복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죠. 진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불의한 가운데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읽지도 않으면서 성경을 비롯한 여러 경전들을 책꽂이에 꽂아두고 있습니다. 이는 올바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의한 일입니다.

신학자들을 포함해서 말로는 믿는다고 하나 실제로는 믿지 않고 성경이 맞다 틀리다 논쟁하는 이들이 성경을 ‘붙잡는다’는 표현을 ‘억누른다’고 고친 것입니다. 자신들은 진리를 억누르지도, 거부하지도 않는다고 말하며 성경을 인정하는 척, 예수님을 훌륭한 사대성인으로 인정하는 척하며 자신들을 고발하고 있는 성경을 변경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슈바이처 박사는 그의 책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은 믿지 않고 오직 훌륭한 성인으로서의 인간이신 예수님만을 믿겠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세계적으로 위대한 크리스천 명단에 슈바이처의 이름이 올라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는데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요 3:36)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에서 개역성경은 “아들에 순종하는 자에게는”으로 고쳤습니다. 이 단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존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의 아들에게 완전한 순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위에 아직도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아주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한 심판과 관련되는 것으로 지옥에 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경을 변개하는 일에는 반드시 마귀가 개입합니다. 마귀는 이토록 교활한 자입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일점 일획도 변개되지 않은 성경 외에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롬2:5).

(롬1:19)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유신론자로 태어납니다.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롬1:20)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알고 태어납니다. 건축물을 보면 그 설계자가 있음을 짐작하

듯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신의 창조주를 찾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20절)”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몰라서 못 믿었다는 변명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태어날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교까지의 일련의 교육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없다’라고 세뇌를 당했을 뿐, 처음부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인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롬1:21)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인간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며 섬겨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시고 보호해주셨지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이 땅에 살아남을 인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6,000년이 넘도록 죄를 짓는데도 참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말해 놓고는 왜 아직 오지 않으시냐며 조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조차 구원하기 위해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21절) 성경에서 상상 및 형상은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으며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술을 하거나 문학 활동을 하는 등의 창작에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상상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올바른 방법으로 쓰이면 괜찮지만 문제는 21절에서 ‘상상 속에서 허망해진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상력을 통해 만들어지는 모든 예술은 다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상상력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상상력도 있습니다. 헛된 상상도 있지만 지혜로운 상상도 있습니다. 비록 인간이 타락하여 좋은 상상보다는 나쁜 상상을 많이 하지만요.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21절) 인간들은 마음이 어두워져 제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성경에 보니 복음이 비추어질 때에도 어두워졌습니다. 빛을 가리는 자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고후4:3-4) 복음을 전할 때에도 분명 알아들을 만한 사람임에도 복음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방해꾼을 몰아내 달라고 기도해서 마음밭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롬1:22)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그들의 상상 속에서 마음이 어두워져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철학이나 인문학, 과학을 말하며 자신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자인 척하나 사실 하나

님을 알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입니다. “참으로 지위가 낮은 자들은 헛되며 지위가 높은 자들은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을 다 더해도 허무보다 가볍도다.”(시62:9). ‘지위’를 뜻하는 영단어 ‘degree’는 석사, 박사 등의 학위를 이룰 때 쓰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기는 교수와 학자들도 있습니다. 예외 없는 법칙이 없듯이 말입니다.

(롬1:23)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 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썩지 않은 영광을 썩을 형상인 사람이나 새, 짐승, 기어 다니는 것들에 옮겨 우상을 만듭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물질적인 것들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로마의 황제들도 자신을 신격화하여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게 하며 자신을 신격화했습니다. 지금의 이 시대에도 북한은 사람을 신격화하여 동상을 세워두고 절하게 합니다. 짐승(23절 “네 발 달린 짐승”)을 섬기는 종교도 있습니다. 멕시코에 가면, 독수리(“새”)를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기어 다니는 것들”을 섬기는 일도 발생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면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사대성인이 나옵니다. 인류의 사대성인은 소크라테스와 부처, 공자, 예수님이 꼽힙니다. 전혀 격이 맞지 않지만 인간들의 무지로 인한 것이니 어쩔 수 없지요. 소크라테스는 철학의 대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인간 속에 참다운 진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부패하고 가망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진리를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어서 사람 속에 진리가 들어 있었던 적조차 없다고 했습니다(고전2:9). 소크라테스의 후계자인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 내면의 정신세계에 내재적으로 진리가 들어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산파가 산모를 도와 아이를 끄집어내듯이 인간의 안에 들어 있는 진리를 바깥으로 꺼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들이 바로 철학자라며 ‘산파술’을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을 했던 소크라테스는 동성애자였습니다. 그는 젊은 청년이 웃옷을 벗고 있으면 흥분이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뿐 아니라 그는 뱀신에게 수탉을 바쳐 제사 지내고 독약을 먹고 자살했습니다. 그가 한 말 중에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참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사대성인 중의 한 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22절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하나”라는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지혜를 사랑한다고 하는 철학자가 어찌나 어리석은지요. 이러한 어리석음의 극치는 기어다니는 것(뱀)을 하나님의 영광과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들을 자연세계, 즉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해 보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증거는 마음에 기록한 율법인 양심입니다. 옳고 그름을 자동적으로 알 수 있는 분별력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까지는 인간이 한 단계 한 단계 타락해 온 과정을 보여 줍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도 입증되지요.

창세기에는 인간에 대한 첫 번째 심판 즉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

다. 그리고 바벨탑에서의 두 번째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온 세상에서 우상숭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첫 번째 주동자는 바빌론 제국을 만든 니므롯이라는 자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바빌론 종교는 온 세계의 잘못된 거짓 종교를 총 동원한 큰 음녀로 묘사되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인간이 단계적으로 타락해 가는 과정은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국가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해 가는 순서는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롬1:2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정으로 계시록 13장에 가면 짐승이자 마귀인 용에게 경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인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인간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지 아니하면 마지막에는 용에게 경배함으로 마무리 짓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창세기 3장에서 처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죽 옷을 입히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 다시 죄를 지었음에도 기회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는 타락한 천사들과 더불어 홍수로 심판하신 데 이어 11장에서는 바벨탑으로 심판하시며 더는 기회를 주지 않으시고 일단은 내버

려 두셨습니다(행17:30). 우리도 자식이 말을 듣지 않으면 말로 타이르고 때로 때를 들지만 계속해서 말을 듣지 않으면 네 마음대로 하라며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심정이셨습니다.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싫다면 어디 한번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이는 창세기 11장에서 역사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는 그 중에서 딱 하나 제일 작은 민족(신7:7)을 뽑아 다른 버려진 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내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뽑아 유대 민족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실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4~28절에 “내주셨으니”, “내주사”, “내어주사”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첫 번째는 몸, 두 번째는 혼, 세 번째는 영을 순서대로 다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서 손을 떼시고 마음대로 살라며 보내셨습니다.

(롬1:25)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그분은 영원히 찬송 받으실 분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몸을 내어주셨더니 인간들은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관능적인 육신과 쾌락에 완전히 찌든 것입니다.

(롬1:26-27)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불 일 듯 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이번에는 혼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인간의 감정과 애정이 빗나
가버렸습니다. 보통 26절과 27절은 각각 여성 동성애자들과 남성 동성애자
들에게 적용하는데 26절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27
절은 명백히 동성애에 대한 것입니다. 26절은 동성애라기보다는 여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아름다움을 본래 주신 목적대로가 아닌 경제적 가
치를 위해 상품화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사3:16). 여성의 아름
다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부부관계에 있어 서로의 매력을 느끼고
끌리도록 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여성의 아름다운 화장과 치장은 남편
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됩
니다(계21:2).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불륜이란 없을 것이며 세
상이 좀 조용해지지 않을까요.

잠언에서도 청년들을 유혹하는 음녀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나
옵니다. 그 음녀는 나중에 큰 음녀 바빌론이 되는데 바로 영적인 음녀, 즉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 종교를 가리킵니다. 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은 성경에서는 다 음녀라고 칭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
니다.

이전까지는 롬1:26을 여성 동성애자들로 해석했었는데 제가 읽을 때마
다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7절과 달리 26절에는 동성애
설명 없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프란시스 웨퍼는 그의 로마서 강해에 이 26절
을 정확하게 짚어놓았습니다. 성경적으로 올바른 해석이라고 봅니다. 26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을 보면, 여기에서 여자들의 아름다움은 남편을 위한 것임에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즉, 남편이 아닌 이들을 유혹하는 것으로 바꾸고 있는 세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롬1:27)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불 일 듯 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여기에서는 분명하게 남자 동성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롬1:28)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인간의 몸과 혼, 영을 하나님께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들은 자기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어 주사”, 여기에서 “버림받은”이라는 표현은 우리말이나 영어도 어려워서 헬라어 어원을 통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는 양(sheep)이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해 보니 다 기준미달이므로 통과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몸, 혼, 영이 차례로 버려진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은 하나님의 마음에 진정으로 원하시는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은 원하시지는 않으나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경우가 여러 번 나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곧바르고 완전하며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욥에게 엄청난 고난을 허락하신 경우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를 허락하셔야만 욥이 자기 의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질없고 올바르지 못한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할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결국은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 가운데 두 번째로 성경에서 떠오르는 경우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제들 중에 가장 아버지 말씀을 잘 듣고 훌륭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인생이 순탄하지 못했고, 늘 어려움과 고난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아야 했던 이유는 결국 이집트의 총리로 높임을 받아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고 그 민족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적인 계획 속에 쓰임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셉의 생애와 예수님의 생애를 놓고 비교해보면 150개가 넘는 상황이 일치합니다. 요셉의 생

에는 예수님의 생애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 순탄하지 못한 것이 형들의 잘못이 아니며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기쁜 일이든 나쁜 일이 일어나면 늘 그 뒤에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이 있음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버림받은 생각에 내어 주사”, 자유가 아닌 자유의 남용은 건잡을 수 없을 파멸의 길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롬1:29-31)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요,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의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하나님께서서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죄나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나 똑같이 보십니다. 29-31절까지의 죄의 목록들과 똑같은 죄로 보십니다. 성경에는 죄가 총 102가지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조명하에 제대로 성경을 보면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지었습니다. 겉으로의 행동뿐이 아니라 속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어디로든 숨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빛을 비추시면 우리의 숨겨진 죄까지 다 밝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죄인들의 우두머리”라고 고백했습니다. 영적으로 성

숙할수록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감출 수가 없습니다.

(롬1:32)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인간들은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합니다. 영화나 드라마, 만화, 인터넷 등 전부 이런 죄들과 관련된 것들을 다루며 보는 이들도 재미있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시면서도 계속해서 오래 참고 계십니다. 창세기 11장에서부터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점점 그 강도는 심해지고 있습니다. 양심이 죄로 인해 마비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2장

(롬2:1) 그러므로, 오 판단하는 사람아, 네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들을 행하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네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롬1:29-32까지 24가지의 죄를 짓는 사람들을 보면 나쁜 놈이라고 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말을 하는 자들도 곧 동일한 죄를 짓습니다. 내가 하면 괜찮고 다른 사람이 하면 천하에 몹쓸 놈인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자기 스스로 판단해 놓은 그대로 자신이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그것에 대하여 회계 보고를 하리라. 네 말들로 네가 의롭게 되며 네 말들로 네가 정죄 받으리라, 하시니라.”(마12:36-37)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끄러운 행동과 말들을 다 지워버리셨고 기억하시지도 않습니다(히10:17).

(롬2:2) 그러나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내 생각이나 우리 생각이 아니라 성경말씀, 즉 하나님의 생각대로 즉 진리대로 됩니다.

(롬2:3) 오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 질문은 답을 알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럴 리가 없다, 반드시 심판받는다 하는 확실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즉 자신의 아들이 모든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셨기 때문에 아들이어도 용서 없이 공의의 심판을 내리시는 그런 엄위한 하나님이십니다.

(롬2:4)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네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태껏 심판 당하지 아니하고 멀쩡히 살아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크신 긍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선히 대해 주시며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아직도 회개치 아니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느냐고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벧후3:9).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대하심은 이 땅의 모든 인간들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행14:17).

인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이 이미 이들 모두에게 있음을 입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분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교황들이 잘 먹고 잘 살았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몰랐다고 핑계 댈 수 없습니다.

(롬2:5-6) 다만 네가 네 강박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닥칠 진노를 네게 쌓아 올리
는도다.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우리의 인생은 마음먹기에 따라 다릅니다. 회개하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았던 것을 용서해 달라며 회개할 것인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 심판하시는 날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것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부끄러운 기록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지워졌습니다. 새로운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롬2:7-11절까지는 문맥과 상관없이 따로 떼어서 보면 행위 구원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 구원이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곳곳이 지뢰밭입니다. 피터 렉크만이 쓴 책 <죽음의 재 같은 땅 이스라엘>의 서문에 보면 성경을 200번 읽어보니 성경만큼 위험한 책이 없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성경은 양 날이 선 예리한 칼이기에 잘못 사용하면 건잡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를 잘못 사용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 때문에 인생이 망가져 버렸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읽고 미쳐 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고 저기서는 저렇고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헤매다가 그렇게 돼 버린 것입니다. 어느 시대인지,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인지, 신약인지 구약인지, 율법인지 은혜인지. 행위도 다 같은 행위가 아니므로 올바르게 나누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진리의 영께서 인도해주시는 대로 잘 따라가면 축복에 축복을 받게 되는 책입니다. 올바른 마음과 영이 아닌 상태에서 성경에 손을 대면 ‘걸림돌(벧전2:4-8)’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성경은 보배로운 말씀이 됩니다.

(롬2:7)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양심을 더럽히지 않고, 성경을 통해 말씀을 듣고 관심을 가지면 친구나 이웃 사람을 통해 교회에 따라 가서 말씀을 들으며 기도도 따라해 보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순수한 마음을 보시고 그의 마음문을 여심으로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에 고넬료 같은 사람은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나옵니다(행10:1-2). 이는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과거 우리 조상들도 “하늘이 두렵지 않으냐”, “하늘 아래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겠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이 말씀에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행위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기회를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상황은 그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롬2:8-16)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격노와 진노로 갚으시리라. 악을 행하는 사람의 모든 혼 위에 환난과 곤고가 닥치리니 먼저는 유대인의 혼 위예요 또한 이방인의 혼 위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화평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로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또한 다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다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니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 있는 것들을 행할 때에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 날에 이루어지리라.

롬2:1-16까지는 이방인들이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매우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2-16절까지는 본격적으로 유대인에 관한 말씀을 하기 전에 유대인을 잠깐 소개하고 있습니다. 2:17-3:8까지는 율법을 알고 있으며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은 죄인이 아닌가, 유대인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그들도 구원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3:9-20은 종합적으로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죄인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것이 3:21부터 제시됩니다.

다음은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의 로마서 연구의 발췌내용 일부입니다.

‘바울은 1장 첫머리에서 우선 인사를 겸하여 자기 소개를 하고 8절-15절에는 감사로 시작하여 로마 방문 계획에 대하여 말하고 16-17절에서 자연스럽게 로마서의 주제에 대하여 언급하며 위대한 사상을 위대한 말로써 제시하였다. 인사와 감사, 그리고 문제 제시를 마침으로써 이 큰 서신의 머릿말이 끝났다.

그러면 이 대서신의 본론에 들어와서 처음 나오는 말은 무엇인가. 복음에 인간 구원을 담은 제1본론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것인가? 아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전하는 불 같은 말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가 전제될 때에만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로마서 18절 “하늘로부터 불의가운데 진리를 붙들고 있는 자들에게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계시되었다.” 이것은 뜻밖이다. 이것은 죄악의 시작부터 지적하고 있다. 죄의 지적이 있고 회개에 있는 다음에서야 구원이 주어진다.

빛나는 복음은 처참한 죄악의 지적 위에 서 있다. 아름다운 꽃은 검은 흙에서 피어난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에 앞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 다니실 길을 곧게 하기 위한 침례인 요한의 힘책이 없이는 안 되었다. 죄를 책하지 않고 은혜를 말하는 것은 기초 없이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오늘날 세상에는 이런 어리석은 목수가 적지 않다. 바울은 사람을 구원하는 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순서를 그르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다. 그는 은혜를 말할 준비로 여기에 준엄한 펜을 굴려 무서운 죄악의 지적에 들어간다.’

여기까지 우찌무라 간조의 책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12절). 먼저 유대인의 심판은 그들이 율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먼저 심판하시고 이방인들은 마음에 새겨진 율법인 양심에 어긋난 짓을 한 것에 대해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의 근거가 12-16절까지 이어집니다. 17-29절까지는 유대인들의 죄, 즉 유대인들은 과연 죄가 없는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둘을 분리해서 다루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세대적 진리를 배우고 있는데 세대적 진리에서 가장 기본적인 진리가 바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인지에 따라서 말씀이 어떤 부분은 직접적으로 적용되고 어떤 부분은 나에게 간접적으로 교훈만 줍니다. 즉 내가 어떤 집단에 속하는지에 대한 것은 성경 해석에 있어 근간이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되”(고전10:32)

창세기 11장까지는 유대인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세 집단으로 구분을 하기 전에는 다 ‘민족들’로 표현했었는데요. 이 땅에는 여러 민족들이 있었고,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 반역을 하여 노아의

홍수 때 심판 받았고 또 다시 타락해서 바벨탑에서 또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한 경영 방침을 바꾸셨습니다. 이를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경영하는 경영 방식을 바꾸어서 다른 민족들은 일단 한쪽으로 제쳐놓고 한 민족을 선택해서 따로 다루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민족에게만 하나님 자신을 알려 주십니다.

그 민족이 선교사가 되어 다른 이방민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알리는 임무를 맡기셨는데 그 선민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신7:6-7 모든 민족들 중에서 가장 수가 적은 민족을 택하셔서 거룩한 백성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선택하신 민족입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은 이방인이라 하였고 이들은 유대인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민족적으로 볼 때 히브리 민족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들은 국가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즉, 유대인, 히브리인, 이스라엘은 다 같은 이름입니다. 이와 같이 인종적으로, 민족적으로, 종교적으로 볼 때 이름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유대인 이외의 민족들은 이방인 또는 이교도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참 하나님을 섬기는 반면에 이교도들은 우상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으로 다릅니다. 이 모든 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몸 된 교회가 됩니다. 이 지상에 존재하는 인간들은 하나

님의 교회에 속하든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에 속해 있든지 아니면 이방인에 속해 있습니다.

로마서는 이미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떤 틀에서 만들어졌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시된 진리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처음부터 긍정적인 것부터 제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에 대해 진노하시므로 죄에 대해 지적을 하고 복음을 듣고 있는 대상자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땅의 교육 제도와 사회 제도가 전반적으로 죄라는 말을 쓰지도 않고 적당히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어 사람들이 죄에 대해 둔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은 상당히 예민하여 옳고 그름,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었는데, 교육을 받으면서 이것이 점점 둔해집니다. 성경에 보니 이 양심이 더럽혀져 약화되었고 심지어는 양심이 인두로 지진 것처럼 화인 맞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 초반에 집중적으로 말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방망이’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딱딱하게 굳어 버린 인간의 마음을 말씀의 방망이로 내리쳐서 그것이 부서져야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이 들어갈 수 있으며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사람의 마음속으로 말씀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만큼 인간의 마음은 옥토가 아니라 길가에 밟혀져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인류 역사 4000년이라는 세월 속에 딱딱하게 굳어 버린 마음은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는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12절에 보니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어린아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극단적인 사람들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말합니다. 절반은 맞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알고 양심에 죄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며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안다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심판의 대상이 되어 지옥에 갑니다.

죄의 기준은 양심이 작동을 하느냐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10살이라고 해도 별거벗고 물놀이를 하며 부끄러움을 모른다면 그 아이는 죄를 모르는 것이며, 7살이라고 해도 자신의 벗은 몸을 부끄러워하고 감춘다면 그 아이는 죄를 아는 것입니다. 죄를 알고 있을 때에는 벌하시지만, 모르는 상태라면 묵인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롬 4:15). 3살짜리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는데 그 부모에게 안타깝지만 이 아이는 지옥에 갔다고 말한다면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요. 그는 진리가 아닌 거짓을 말한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롬2:13)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만 해서 안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모세의 후손인 유대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나? 율법도 여기고 이방인들보다 더 제멋대로 잘못 살았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복들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롬2:14)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 있는 것들을 행할 때에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길을 가다 어린아이가 넘어지면 본성적으로 착한 마음이 작동하여 아이를 일으켜 줍니다. 비록 본성이 타락하여 선한 심성이 별로 남아 있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심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남아 있어 우리가 착한 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본성에 의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모르고 있어도 율법을 아는 것이 됩니다.

(롬2:15)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마음에 기록된 율법입니다. 이것이 양심이죠. 이방인들에게는 이 양심이 바로 율법의 기능을 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려니 나도 먹고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것(15절)”입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 자신의 생각 속에서는 다 알면서도 서로 고소하고 변명을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고소하고 변명하는 일을 반복합니다. 그러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한 고소로 인해 변명의 여지가 없음에도 핑계를 대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이것은 기록된바, 이로써 주께서 주의 말씀하신 것에서 의롭게 되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시리이다, 함과 같으니라.”(롬3:4) 그러므로 율법, 양심, 생각 이런 것들이 율법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롬2:16)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 날에 이루어지리라.

유대인들은 율법에 쓰여 있는 그대로 삼판을 받습니다. 이방인에게는 양심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것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겉으로도 나쁜 짓을 했겠지만 눈에 띄게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성장하다 보면 사회 통념상 착하게 산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하며,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그 여인과 마음에 간음을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전 12:14) 어둠은 밝은 빛이 비추어지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둠은 밝은 빛으로 오고자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올바른 마음이라면 로마서의 앞부분만 읽더라도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저 같은 죄

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라는 고백이 자동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져 양심이 작동을 하지 않으므로 계속 말씀을 거부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결국 심판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 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터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느니라, 하니라.”(행17:31).

이 우주의 마지막 심판, 즉 환왕좌 심판을 과연 누가 하실 것인지 이미 재판관이 임명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복음을 전할 때 확실히 알려 주어야 합니다. 온 우주에서 죄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죄인들을 심판할 자격 역시 그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부활을 통해 증명 하셨습니다. 죄 있는 사람은 지옥에 가야 하니, 부활하심은 죄가 없다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요16:8-11에서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세 가지 사역을 하시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사역을 하십니다. 그 중에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요16:8). “**세상을 꾸짖으시리라(8절)**” 여기서 세상은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찢림이 옵니다. 성령님께서 ‘죄에 대하여’ 책망을 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9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다른 죄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이 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대

속하시고 자기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거부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 받는 죄인이 됩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10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아버지께로 가십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은 의인이 아닙니다. 죽어서 부활하여 셋째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만 의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다 지옥으로 갔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11절)” 하나님이 제공하는 의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들은 마귀와 함께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려 주면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이 편하고 하는 일이 잘된다는 식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롬2:17) 보라, 네가 유대인이라 불리며 율법 안에 안주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자만하여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다윗의 후손이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랑합니다.

(롬2:18-20) 율법에서 가르침을 받아 그분의 뜻을 알고 훨씬 더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또 너 스스로 눈먼 자들의 안내자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의 틀과 진리의 틀을 갖춘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요, 아기들의 교사라고 확신하는도다.

이처럼 유대인들의 자부심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고 개 취급 합니다. 심지어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인인 사마리아인들도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막7:26-28절에 “개들도 자녀들의 빵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롬2:21) 그런즉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사람이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고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도둑질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율법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따라 생활비를 드려야 함에도 아까워합니다. 그런데 종교인이 와서 성전예다 그 생활비의 1/3만 바치면 2/3는 면제해주겠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부모님께 드릴 것을 성전예다 바쳤다고 하면 부모님에 대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됩니다. 죄에 대하여 면죄 받는 것이죠. 이런 것을 성경에서는 도둑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도둑질 하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은 자칫하면 우쭐거리기 쉬운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져서 없는 얘기도 지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자가 마귀임을 기억하십시오(욥41:34). 사역자들은 교만한 마음, 우쭐거리는 마음이 생기면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교만해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 것은 많은 성경 지식들을 얻음으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우쭐대게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니 지식은 우쭐대게 하나 사랑은 세워 주느니라.”

(고전8:1) 지식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 책이나 기독교 방송에서 하는 말들이 교리적으로 틀리다고 판단하고 비판을 하게 됩니다. 조심하십시오. 히브리서 13장 9절에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늘 은혜로 마음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배운 교리와 지식들로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려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겸손한 상태로 있어야 합니다. 지식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올바른 마음과 함께 하지 않으면 무서운 무기로 변할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칼로 다른 이의 마음을 다 베어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지식을 주셨는데 이것이 변질되어 파괴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롬2:22-23) 사람이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들을 몹시 싫어하는 네가 신전 물건을 몰래 취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어떤 목사님이 율법적으로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면 영화도, TV도 보면 안 된다는 식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느 날 다른 곳에 초청을 받아 설교 하러 갔다가 몰래 간음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함께했던 그 여자가 집회에 참석하여 그날 구원을 받게 되어 간증을 하던 중에 그 일을 실토해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도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키지 않아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습니다.

(롬2:24) 이것은 기록된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사52:5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이는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잘못된 행실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독을 받게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히려 가톨릭 신자들은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칭찬을 받는데 기독교는 독선적이고 이기적이며 온갖 문제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물론 구원받지 못한 채 그저 교회만 다니는 이들이 주로 문제를 일으키기는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도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쉰다 하면 넘어질 줄 조심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롬2:25) 네가 율법을 지키면 할례가 참으로 유익하나 네가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면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나니

유대인들은 율법도 가지고 있고 할례도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할례라는 표적의 의미는 육신을 베어내고 영적으로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진짜 의미는 모른 채 표적만 가지고 거기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롬2:26)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의를 지키면 그의 무할례를 할례로 여겨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할례를 한 목적과 달리 육신에 매달리는 삶을 산다면 그 징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징표가 없어도 율법을 지키고 살면 그 사람은 할

례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롬2:27-28)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이행하면 글자와 할례를 통해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 할례를 하게 하신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죄인이므로 죄인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은혜로 구원을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은 율법을 지켜보겠다고 자기 의를 드러내어 구원을 받지 못하다니 이 얼마나 역설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죄인들이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죄인은 자신이 죄인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고개를 들 수 없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기가 좀 더 수월합니다.

(롬2:29)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글자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니라.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구약시대에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육체의 할례를 주신 목적은 그 표식 자체가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베어냄으로써 상징적으로 육신적으로 살지 아니하겠다는

는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와 신명기에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육체의 할례만 받았다고 질책하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의 영적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육체와 혼을 갈라내는 수술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할례에 대한 것은 여기서의 주제는 아니지만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 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골2:9-11) 유대인들은 생식기에 손으로 한 할례를 받았고, 그리스도인들은 손으로 하지 않은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 할례의 도구는 성령의 검인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으로 마음속에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창세기는 인간이 흙으로 지어졌고 코에 생명의 숨이 들어감으로써 살아 있는 혼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영과 혼이 있고 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 혼, 몸이라고 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는 순간 영이 죽어 버렸습니다. 영의 기능을 잃어 작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영은 죽고 혼은 육신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니 분명히 인간에게는 영이 있고 이에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으로 교제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본래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을 전달하면, 인간은 그분의 말씀을 영으로 알아듣고 인간의

혼, 즉 지·정·의를 통해 해석을 해서 육체에게 명령을 내려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는 이러한 메커니즘이 작동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브는 이와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영, 혼, 몸의 순서로 속에서부터 밖으로 행동하지 않고 육체적인 눈으로 먼저 보았습니다. 그래서 먹어서는 안 되는 열매가 먹음직스러우며 지혜를 줄 만큼 탐스럽다는 자극을 받았습니다. 이때 혼의 지·정·의가 육체의 노예가 되었고, 영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귀에게 속아 선악과를 따 먹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영이 그 순간 죽었고, 혼은 육체에 따라 행동을 했기 때문에 육체인 남편과 혼인한 셈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는 율법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남편인 몸이 시키는 대로 혼 역시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육신이 놀자고 하면 놀아야 하고, 먹자고 하면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지금까지 이렇게 육신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 순간 성령의 감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몸과 찰싹 붙어버린 혼을 예리하게 갈라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할례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죄의 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몸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옛 남편일 뿐이며 그는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그분과 함께 죄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죽어 있던 영을 성령이 들어와서 다시 살리는 것을 거듭남

이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영적 할례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합니다(골2:11).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을 좇아 살면 항상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롬3:1-2)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나?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나?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달리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고 하늘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었으며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둘러싸여 기적을 체험한 특별한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롬3:3) 그런데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효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주셨음에도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롬3:4)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이것은 기록된바, 이로써 주께서 주의 말씀하신 것에서 의롭게 되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시리이다, 함과 같으니라.

시편 51편에 다윗이 밧세바와 죄를 짓고 회개하는 장면을 이 구절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인간이 하나님 앞

에 유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나를 이렇게 벌 주시고 지옥에 보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 하지만 인간은 자신이 고소한 그 말로 인해 도리어 고소를 당합니다. 최후에 환왕좌 심판을 받을 때에도 인간은 하나님을 고소하려고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참되시고 인간은 다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결국은 다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빌2:9-11) 그렇게 시인하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을 부르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롬3:5-6)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으로서 말하노니) 보복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유대인들이 죄를 지어 불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의로운 분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예를 들면 회색과 흰색이 있을 때는 흰색이 조금 더 희어 보이지만, 검은색과 흰색이 있으면 흰색이 훨씬 더 하얗게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깨끗하신 분이데 유대인들은 죄를 많이 지

어 더러우므로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더 높여지지 않았느냐는 이상한 논리입니다. 불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지요. 자신들이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은혜가 더 부각된다고 말이죠. 이는 정말 엉터리 논리이며 궤변 중의 궤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불순종을 통해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십니다.

(롬3:7) 만일 내 거짓말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풍성하게 되어 그분이 영광을 얻게 되었다면 어찌하여 내가 여전히 또한 죄인으로 심판을 받느냐?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기여한 것이 아니냐? 이 역시 궤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의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 짓은 오히려 그분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롬3:8) 차라리 (우리가 중상모략을 당하듯이 또 어떤 자들이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주장하듯이), 선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악을 행하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정죄 받는 것이 옳으니라.

바울이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고 중상모략을 하는 사람까지 나타납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느니라 그러니 죄를 더 지읍시다??” 이진 아닙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더 지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는 명백히 유대인들의 죄를 입증하는 것입

니다. 그리고 9절부터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실 수밖에 없고, 인간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은혜로 거저 받으라고 하십니다. 9-20절까지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21절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롬3:9-10)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 있음을 입증하였느니라. 이것은 기록된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단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의로운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사자’라는 말도 있죠.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의로운 사람이 많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인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의 의인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보면 여의도에 있는 5층짜리 아파트는 옆에 있는 63빌딩과 비교했을 때 높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나 비행기를 타고 공중에서 이를 보면 어떻습니까? 5층짜리나 63층짜리나 하늘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보실 때에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는 상대적으로 의로운 사람과 형편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그런 의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이겠지요. 인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지만 의롭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 분명 있습니다. 다만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신이 죽을 수 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인간 본연의 목적을 되찾아야 하겠습니까.

(롬3:11)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죽어 하늘나라가 아닌 지옥으로 가는 것도 모르고, 자신이 왜 창조되었는지도 모른다면 명철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명석해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모르며 깨닫지 못하니 참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은 절대자를 찾아 수백 개의 종교를 만들었습니다만 이는 잘못된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이방인들이 제사 지내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찾는다고 찾는데 잘못된 것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찾고 있는 것이죠.

(롬3:12)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이것이 동양의 도(道)사상입니다. 사람들은 도를 찾아, 즉 길을 찾는다는 의미로 길(도) 자를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라. 아버지께로 가려면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 다른 길은 없다”고 하십니다. 성경 이사야서 53:6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자기 길로 갔으며 그것이 자랑스러워 연말이면 마이 웨이를 부릅니다. 자신의 길, 넓은

길, 멸망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참 길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길을 가면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함께 무익하게 되고” 즉 전혀 쓸모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물론 인간 중에는 법이 없어도 될 만큼 착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는 인간의 생각입니다. 물론 악한 사람보다는 착한 사람이 많은 편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절대 기준에 서서 보면 그 착함은 순수하게, 뭔가를 바라지 않고 그 것이 선하기 때문에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착한 일에 대한 보상,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섞인 선행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 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필요하지만 이런 선함으로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삶이 바로 의인의 삶이고 선함의 표본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가 좀 깨끗하게 양심적으로 살았다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그 무게가 같아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헛덩어리는 물에 걸코 뜰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옆에 있는 배, 즉 방주에 올라타면 됩니다.

(롬3:13)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무덤에서는 시체 썩는 냄새가 납니다. 문자적으로 너무나 선명합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것은 이미 죽은 것들입니다. 살아 있는 것을 먹는다 해도 어차피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더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체를 만지는 것이 더럽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시체를 입으로 먹기 때문에 속에서 썩는 냄새가 납니다.

(롬3:14)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죄는 바로 말로 짓는 죄입니다. 세 치 혀를 잘못 사용하여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도구로 쓰입니다.

(롬3:15)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므로

처음에는 말로 죄를 짓다가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 피 흘리는 데에 빠른 사람은 가인이었고 그의 피가 여러분과 제 안에도 흐르고 있습니다.

(롬3:16)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피 흘리는 데 빠르기 때문에 폭력과 파멸, 고통이 늘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니 폭력이 난무하고 인간이 상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롬3:17)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화평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입니다. 그분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롬3:18)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모든 문제를 묶어서 한 마디로 요약하면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며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무지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욥기의 저자인 엘리후는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분임을 알았습니다. “좋은 날씨가 북쪽에서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욥37:22)

여러분 효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무서워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정말 무섭다는 것을 알고 자란 사람이 효자가 됩니다.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식사를 할 만큼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사도 요한도 부활하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계시록에서 만났을 때 너무나 두려워 죽은 자 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졌음을 기억하십시오(계1:17).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시111:10). 아담의 후손들은 타락한 본성으로 다 어리석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혜롭게 되려면 두려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멸망받아 마땅한

자이며 진노의 대상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제가 받을 진노와 심판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다 부으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저의 죄값을 치르신 일을 알고 믿습니다. 그분께서는 저의 죄값을 다 치르신 후 부활하셔서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을 믿고 제 안에 모십니다.’ 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죄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웃습니다. 그곳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곳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2도 화상만 입어도 엄청난 고통을 느낍니다. 그런데 지옥의 불과 그 뜨거움이란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그 고통에 기한이 없고 끝없이 이어지는 영원한 고통이란 사실입니다. 또한 아버지의 형상을 아들이 닮아 있듯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모습은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던 그 모습이 아니라 다 일그러져 뱀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니라”라는 말씀처럼 벌레가 되어 마귀의 모습, 즉 뱀의 모습과 같은 형상으로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게 될 것입니다.

(롬3:19)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어떤 것들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인간은 유죄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롬3:20)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율법이나 양심을 통해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약하기 때문에 율법의 고상한 수준에까지 이를 수가 없습니다. 육신은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가질 수 있지만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를 지키기 위함이 아니요, 이를 보고 자신이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주여 긍휼을 베푸소서!’ 라고 부르짖어야 하는데 목을 뻗뻗이 하고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고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예를 들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주님,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네 안에 들어가서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음을 보여주겠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실제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답입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지고, 그 사랑이 솟구쳐 나를 미워하는 사람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자연적 사랑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생명은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성장에 성장을 거듭해 가장 성숙해질 때에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롬3:21-22)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

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두가 다 유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준인 율법에 의해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절망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 바깥에 하나님께서 직접 의를 만들어 놓고 원하는 사람들은 다 가져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이며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와 있습니다. 롬 3:21-26절까지, 더 길게 보면 4:25까지입니다. 지금은 앞부분만 다루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속에 나타난 그 의를 지금까지 로마서를 통해 공부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교제하고 기쁨을 얻기 위한 선한 목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타락했고 하나님과의 교제는커녕 그분을 대적하는 편에 서서 그분과 원수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회복시키기 위한 과정의 시작으로 인간들에게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롬1:18-3:20에 걸쳐 알려 주셨습니다.

로마서의 첫 부분에서 인간이 죄인임을 알려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살아 가는 내내 ‘하나님은 없다’는 생

각을 마귀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세뇌시키기 때문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세뇌 당합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인간 속에 넣어 주셨지만 인간은 세상을 사는 동안 이 관념이 희미해지고 점점 세상에 물들어 마음이 어두워지므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부합니다.

인간들이 행하는 모든 죄악들을 20가지 항목에 걸쳐 살펴보고, 특히 2장에서는 다른 이는 정죄하고 자신의 잘못은 합리화하는 위선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결국 이 세상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정죄의 대상이라고 롬3:19-20절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더 이상 인류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일까요? 인간은 저주받았고, 우주의 잃어버린 미아이며 길을 완전히 잃어버린 존재인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망스러운 우리를 건지기 위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찾은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찾아오셨습니다(시8:4).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자신의 할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의 사역이었으며 예정대로 다 이루시고 자신을 화해 헌물로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림으로써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롬3:20까지의 모든 암울한 상황에서 ‘그러나 이제’ 로 다시 시작합니다. 역전이 시작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보니 우리 자신은 절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무능함을 발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롬3:21)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율법의 의는 출애굽기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십계명을 포함해서 총 613개의 법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평생을 살며 이 중에 단 하나라도 어기면 그는 율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약2:10).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이고 따라서 성경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가장 교만하다고 말합니다.

율법의 끝은 저주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율법을 다 지키시고 그의 마지막 요구사항까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율법의 의가 성취되었습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사법정의’는 죄인이 벌을 받고 심판을 받을 때 실현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심판을 받으심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드디어 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디도서에서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인격이신 예수님 따로, 은혜 따로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은혜도, 의도 받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주 언급됩니다. 대언자의 글에도, 모세의 이야기에도, 즉 율법과 대언서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은 곧 나에

대해 증언한 것(요5:39)”이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분과 그분의 의에 대한 말씀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순히 신약의 것만이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예표로 주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창1:20에서의 ‘생명’, 창3:15의 ‘가죽옷’, 창1:3의 ‘빛’ 모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롬3:22-26)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救贖)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영어에서는 21-26절이 한 문장으로 이어져 있는데 우리말만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이를 잘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내게 해 주신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21절 “**율법 밖에 있는**”이라는 구절을 다른 성경에는 “율법 외에”라고 하는데 이는 의미가 참 애매모호합니다.

22절에 차별이 없다는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23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24절)”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죄를 지은 죄인을 값을 치르

고 산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노예로 붙잡혀 간 사람을 그 값을 지불하고 다시 되찾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24절)” 이브가 마귀에게 속아서 ‘값없이’ 라는 말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요? ‘값없이’ 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free’ 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도 tax free, 즉 면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는 무려 죄의 대가를 면제 받습니다.

(롬3:25)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아담의 본성으로 인해 인간은 이성, 즉 합리적인 사고방식은 가지고 있으나 영적인 부분에는 매우 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성경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보다 쉬울 수는 없겠지요.

성경은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영적 수준에 따라 깨닫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하였느냐?’ 등 재차 제자들에게 물어 보십니다. 성숙이 완전히 되지 않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에 ‘내가 나이가 몇인데 엄마 배 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납니까?’ 라는 다소 우스운 대답을 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반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롬3:26)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여기서 ‘이때’는 21절의 “이제”와 같습니다. 드디어 신약이 시작되는 이때. 앞부분에서 과거의 죄는 구약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26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처형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재판관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26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는 의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인들의 죄에 대한 값을 다른 분이 대신 갚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계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알면 우리는 이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딜레마는 의롭고 거룩하신 분께서 더럽고 추악한 죄인을 사랑으로 덮어 주자니 불의한 재판관이 되어 버리고, 그렇다고 의를 앞세워 그들을 불못에 던지면 잔인하고 사랑이 없는 분이 되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고민하실 필요도 없고 이미 창세 전에 모든 계획을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도 생각조차 하지 못할 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죄를 그냥 용납하지 않는 엄위하신 분임을 온 천하에 드러내시면서도 동시에 죄인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처절하고도 잔인한 형벌

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은혜이지만 십자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저주입니다. 그래서 갈3:13에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롬3:22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모든 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자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라는 조건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손을 내밀면 금덩어리를 주겠다고 했을 때, 손을 내민 사람은 다 하나씩 금덩어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을 내밀지 않는 사람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불신’ 이라고 합니다. 손을 내미는 것을 ‘믿음’ 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믿음입니다.

(롬3:23)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는 죄를 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때만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킹 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라고 쓰여 있습니다.

갈2:20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입니다. 잘 생각해봅시다. 믿음은 누구의 것입니까? 믿음의 출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히12:2). 주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님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맞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에서 ‘그것’ 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이라고 대답합니다(엡2:8). 우리말로 보면 구원이 맞는 것 같지만, 영어로 보면 ‘그것’ 이 지칭하는 것은 ‘믿음’ 입니다. 믿음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창시자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행위를 대비했습니다(엡2:9). 믿음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대충 알고 있는 것들이 성경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정확하지 않은 성경을 통해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성경을 통해 정확하게 배워서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순간에는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언젠가는 바로잡힙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일점일획도 오류가 없는 킹 제임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보존된 성경과 변개된 성경의 차이점은 ‘아’ 다르고 ‘어’ 다른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수단은 믿음입니다.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임합니다. 그래서 차별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많은 면에서 차이가 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만 의롭게 되는 것도 같습니다

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믿음을 받아들여 믿으면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엄격히 말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죄인으로 태어났어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23절)’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7장에 가면 바울도 자기가 죄를 지어 영적으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즉 태어나면서부터 죽어서 태어났다는 말은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로 이해를 돕기 위해 편의상 그렇게 말할 뿐입니다.

창세기에서는 보통 영적으로 죽었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왜 죽었다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아담은 죽지 않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육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영이 죽는 것이라고 했는데 성경에 과연 그런 말이 나오니까?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일 리 없는데 아담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가 아닌 영이 죽은 것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표현은 영이 작동을 하지 않아 고장이 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죽었다는 뜻은 영이 하나님께로 가고 육체는 땅에 묻히며 혼은 구원받은 사람은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는 뜻입니

다. 즉, 영·혼·몸이 해체될 때 죽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영이 죽었다거나 육이 죽었다는 표현을 성경에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죽는다고 했는데 계시록 13장 8절에 보니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양...’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지은 아담이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린양을 죽이시고 가죽옷을 만들어 아담에게 입히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창세기 3장에서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당연시했던 것들도 정확한 성경을 통해 하나 둘 확인을 해 보면 알고 있는 내용과 조금씩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도 바로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23절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구절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인간이 쓴 책이라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영원한 형벌에 처해졌더니’ 라고 쓰든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심판을 당하더니’ 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머릿속에는 ‘죄’ 하면 ‘벌’ 이기 때문이죠. 역시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차원이 다르십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가 피의자 신분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를 심판하시는 판사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너는 나와 함께 영광을 누리다가 죄로 말미암아 영광을 멀리하고 멀리 멀리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으니 너는 어둠이 되어버렸고 빛인 나와 함께 있을 수 없게 되었구나. 참으로 딱하고 불쌍하구나. 오 나의 창조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 곁에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있어야 할 네가 어찌 그리 비참하게 되었느냐?”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창3:8-9을 죄 지은 피의자와 심판하러 오신 하나님으로 이해했다면 롬 3:23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심판에 처해졌더니”로 쓰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개가 갸우뚱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 공유할 그 영광을 놓쳐 버린 자에 대한 긍휼과 불쌍한 마음을 가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왜곡된 모습으로 성경에서 만나게 되면 큰일입니다.

잘못된 말씀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투영하지 못하고 찌그러진 거울처럼 왜곡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알려 주는 것이 참으로 문제입니다. 거짓 사역자들이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것들을 너무나 많이 심어 놓았습니다. 교회에서 죄를 지은 자는 지옥에 보내는 무서운 하나님만을 가르치고 그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지옥이라니, 그런 무서운 곳은 없다고 생각하고 지옥이 없는 종교를 만들자는 취지로 생긴 것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출34:1-6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숭배를 함으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돌판을 깨뜨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다시 써 주겠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 돌판을 깎아 산으로 올라오라는 하나님은 스스로 어떠한 분이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데려가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벧전3:18) 그 영광에 도달하는 방법이 아들과 사귀는 것입니다.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고전1:9)

(롬3:24)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救贖)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 구속은 값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값은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레17:11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피는 곧 생명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에는 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잘못된 성서들에서는 골1:14에 귀중한 ‘피’를 삭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피가 없으면 구속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값을 치르지 않고 어떻게 사올 수 있습니까? 골1:14 구절 하나만 보아도 구속에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피를 통해서”라는 것을 누가 의도적으로 삭제했을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교활한 자, 마귀가 성경에서 진리를 망가뜨리기 위해 삭제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킬 때 쓰였습니다.

구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값을 치르고 다시 샀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이전에 있었던 상태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의 노예였다가 그로부터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노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진리로 해방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벤전1:18-20의 “이 마지막 때에”가 롬3:21의 “이제는(now)”, 26절의 “이 때”로 표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바로 그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때를 기준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나누셨습니다.

B.C, 즉 Before Christ와 A.D, Anno domini 즉 ‘주님의 해’라는 뜻을 가진 단어들로 말이죠. 하나님의 의가 율법 밖에서 나타난 바로 그때가 인류 역사의 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정해 놓은 그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온 인류를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계획해 놓았던 것을 드디어 실행한 그날이 바로 이때라고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합니다.

“은혜”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지만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못합니다. 어찌다가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먹이시고 입히시면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디모데서를 쓸 때는 거의 순교 직전이였음에도 자신이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바울을 기뻐하시며 그를 높이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되어 존경을 받음은 자신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며 예수님의 은혜라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24절)”, 의롭게 된 것은 법적인 판결입니다. 단순히 죄를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죄가 없다는 인정을 법적으로 받은 것입니다.

구원은 죄사함 이상입니다. 죄사함은 죄를 지을 때마다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동물을 죽였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칭의라는 것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죄가 없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 모두를 깨끗하게 십자가에서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죄 없으신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죄가 없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법적으로 깨끗하게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 예수님으로 옷을 입은 것 바로 이것이 칭의입니다. “너희 중에서 그

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갈3:27)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서 더 이상 죄를 보실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단 하나의 죄도 짓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이토록 크고 대단한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마어마한 가치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가치를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칭의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관점이고,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죄인의 우두머리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창2:16에 쓰인 “마음대로”는 영어로 freely 한 단어인데 우리말로는 ‘마음대로’, ‘값없이’, ‘자유롭게’ 등 문맥에 따라 번역하여 표현합니다.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에서 보이듯이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우리를 대하실 때 인격적으로 대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우리의 의지에 맡기셨습니다.

계22:17절에 보면 “값없이” 거저 받으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좋은 일 좀 하고요, 뭘 좀 바치고요’라며 판소리를 합니다. 선행을 많이 해서 좀 당당하게 구원을 받아 보겠다는 것은 하나님을 굉장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선물로 거저 주시겠다는 것을 값을 지불해 보겠다고 알량한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로로는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엄청나고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priceless).

“화해헌물(25절)”이라는 영어단어는 propitiation인데 옛날 성경에서는 이를 ‘화목제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는 세상에서 잘 쓰이지 않는 단어입니다. 세상에서 ‘화해하다’는 보통 싸우고 난 뒤에 이루어지는 관계 개선을 표현할 때 씁니다. 그때의 영어단어가 reconciliation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습니다. 화해란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해 헌물(propitiation)’과 ‘화해(reconciliation)’가 영어로 다르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구속은 값이 이미 치러진 것이고, 화해 헌물은 그 치러진 인질의 몸값을 받고 인질을 ‘풀어 주겠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로 인해 진노하고 계셨는데 죄의 값을 모두 치렀기 때문에 이제는 진노가 가라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신과 죄인 사이의 화해 헌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었다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지성소 안의 공훈의 자리 아래에 언약궤가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 있고 그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두 그룹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23절)”라는 말씀대로 죄를 지은 죄인은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율법에 의해서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공훈의 자리 아래에 있는 율법과 위에 있는 영광이 교차하는 그곳은 피가 없이는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 받았습니다.

그것을 속죄일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달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를 히브리어로 ‘욥키퍼’ 라고 했습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대환난의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날로 미래적으로 예표되어 있습니다.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 한 명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해서 속죄 헌물인 짐승의 피를 들고 들어가서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그 피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요구하시는 바를 만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율법은 죄에 대한 대가로 사망을 요구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니까요. 피는 생명이므로 죄에 대한 요구로 피를 흘리면 충족되었으므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길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과 죄인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화해 헌물로 왜 예수님을 세워 놓으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바로 지성소에 있는 긍휼의 자리(시은좌)의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출25: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고자 하시는데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고 싶는데 이스라엘이 죄인이기 때문에 거하실 수 없으므로 성막을 만들어서 그 안에 거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장소를 둘로 쪼개서 더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를 만들어 그 안에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언약궤를 어떻게 만드는지 쪽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21절부터는 하나님과 결별하여 숨어 버렸던 죄인인 아담, 즉 심판의 대상이었던 자가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데, 그 과정은 율법과 영광이 교차하는 그곳에 피가 뿌려짐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고 계속해서 사귀을 지속하고 싶어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사귀을 지속하지 않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함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고전1:9)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사귀게 해 주셨습니다. 신앙은 사귀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통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냄은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요일1:3)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해의 헌물로 제시하신 이상, 누구든지 이분을 믿으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고 대화할 수 있습니다.

“참으심(25절)”은 다른 사람에게 마땅히 가해야 할 벌을 참는 것입니다. 보통은 관용을 베푼다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여기서 참는다는 것은 고통을 참으며 인내한다는 뜻이 아니라, 당연히 벌을 줘야 하는데 관용을 베풀어 그 벌을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참으셨습니다. 짐승을 가지고 나와서 번제와 속제를 드리면 그것을 근거로 관용을 베푸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로마서 3장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지은 모든 과거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25절). 하나님께서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용서는 받을 수 있지만 죄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면 복음이 흐릿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개역 성경에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으니 성경을 그냥 뜯어 고쳤습니다. “내가 긍휼을 수천에게 베풀며 불법과 범법과 죄를 용서하되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내가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녀들과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벌하여 삼대와 사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출34:7)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죄들을 용서해 주셨습니까? 짐승의 피를 드림으로 관용을 베풀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죄를 제거해 버리지는 못합니다(히10:4).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제거할 수 있습니까?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라(요1:29)” 짐승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여야만 죄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신을 드려야 할 필요가 없으시니”(히9:25) 대제사장

은 1년에 한 번씩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그 동안 지은 죄를 다 용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죄를 지었고 매년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단 한 번 드리짐으로써 끝내셨습니다(히9:26).

더 정확하게 말하면 초림 당시 예수님께서서는 그야말로 죄 덩어리가 되어서 그 죄를 짊어지고 지옥에 가셨습니다. 지옥에 그 죄들을 다 내려놓고 부활하실 때는 죄 없이 올라가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드리지셨으며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히9:28) 두 번째 재림하실 때는 죄 없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입니다.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롬3:25)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이 구약의 인간들이 지은 모든 죄를 다 갚았고 이제는 의롭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도들에 대한 것입니다.

(롬3:26)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에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자신이 의롭게 되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신약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사” 예수님이 오셔서 드러내셨습니다. 구약에 사면해 준 모든 것을 자신의 피로 갚으셨고 이로써 자신이 의롭게 되셨음을 드러내시고 앞

으로 죄를 지어서 심판 받을 자들에 대한 죄들도 십자가에서 이미 다 제거 하셨습니다. 우리 같은 자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 이후에 사는 사람들도 의롭다 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모든 죄를 제거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게 만드는 이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해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신이 의롭다 함을 만천하에 선포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의롭다고 선언하는 분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에 propitiation라는 단어는 로마서 3장과 요한일서 2, 4장에 나옵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인데 똑같은 단어로 두 번은 긍휼의 자리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요일2:2)

칼빈주의자들은 그분은 우리의 죄만을 위한 화해 헌물이시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을 위해서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화해 헌물이시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요일4:10).

로마서 3장 20절까지는 죄에 대해서, 즉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깨닫게 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빛의 조명으로 짝 비추주시니 우리의 더럽고 죄악 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롬3:21-26까지는 구속, 구원, 화해, 칭의 등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들이 나와있습니다.

로마서의 두 번째 테마는 사랑입니다. 화해가 바로 사랑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 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7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의 생명을 살아 내는 것입니다. 롬3:20-26까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두 번 공부해서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했으나 부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구절들을 최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시했습니다. 한 번에 그치지 말고 여러 번 공부하셔서 잘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롬3:27)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행위의 법으로냐?” 만약 행위의 법으로라면 나는 이것을 했고 저것을 했다고 자랑을 할 수 있겠지요.

(롬3:28)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사도행전 15장에서도 똑같은 결론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행15:9, 11).

(롬3:29-30) 그분은 오직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지나? 그분은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 아니시나? 참으로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시니 할례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무할례자를 믿음을 통해 의롭게 하실 분은 한 하나님이시니라.

할례자이든 무할례자이든 다 믿음을 통해 의롭게 하실 유일한 길을 내실 분은 하나님이지라는 겁니다.

(롬3:31) 그런즉 우리가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헛되게 만들지 않습니다. 율법은 예수님이 다 성취했습니다. 율법이 요구했던 모든 것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4장에 가서 율법 이전 시대인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구약 성도 역시 믿음으로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죄를 열거했으며 그리고 유대인, 이방인 다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유대인도 믿음을 통해, 이방인도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마치 물과 기름처럼 상종할 수 없는 이질적인 두 집단인데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 집단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순절에 드리는 빵 두 덩어리, (레23:17) 즉 하나는 유대인, 또 하나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에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에 의해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한 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 벽을 허무시고 원수 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듦으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심이요,”(엡2:11-15).

로마서 4장

(롬4:1) 그러면 육체에 관한 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발견했다고 우리가 말하리요?

논리적으로 보면 굳이 4장이 필요할까 싶습니다. 내용상 3장에서 5장으로 바로 넘어가도 무방할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4장 25절까지는 구원 받기 전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 5장 1절부터는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바로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인데, 가끔 ‘죄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가 주제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죄인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의롭게 된다’가 주제라면 3장까지가 끝이고 그 칭의의 실제 예, 즉 삶에서의 예인 아브라함의 예, 다윗의 예를 들었으니 보완한다고 해도 4장이면 끝이 나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4장까지는 5장에서부터의 실제 본문에 앞선 전주곡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4장까지만 읽고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고, 나는 이제 하늘나라로 간다. 지금부터는 마음대로 살아도 하늘나라에 간다”라는 사실만을 지나치게 강조해 버립니다. 그러면 5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의로운 삶을 사는 방법, 하나님의 참뜻과 목적은 다 놓치게 됩니다.

칭의는 목적이 아니라 일종의 전제조건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의롭지 못한 사람과는 사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도 이를 수가 없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그 과정이 첫 단계로 중요했으며 의인이 되었을 때 이제부터 의로우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에 대한 내용, 바로 이것이 본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본론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4장까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부터 구원과 관련된 것들에 관해서는 성경의 곳곳에서 다 끄집어 내어 우리는 의롭게 되었고 마음대로 살아도 하늘나라에 간다고 집요하게 강조를 합니다. 이렇다 보니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늘나라에 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교리 자체는 맞지만 실은 하나님의 칭의를 한참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그것은 칭의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역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타락하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도 하늘나라에 갈 것이니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칭의 개념(의인)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살고 있는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의롭게 된 것은 깨끗하게 씻고 잔칫상에 앉아 하나님과 함께 웃으며 즐겁게 식사하는 모습인데, “나는 깨끗이 씻었으니 됐어”라며 함께 먹지 않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배가 고프고 허기가 지게 마

련입니다. 이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 여러 조직을 만들고 믿음을 가늠해 본
다며 막대한 작정 현금을 요구하고 조직화된 큰 찬양대를 만들어 통제를
통해 이탈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합니다. 로마서 5장부터의 거룩한 삶에 대
해서는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자들도 본인들이 배우지 못해 모르기 때문에
가르치지 못합니다. 로마서 4장까지만 배웠고 그것만 계속해서 가르치므로
영적으로 병들고 썩고 변질되어 그 부작용이 엄청납니다.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의 승리를 맛보고 12장에서부터 실질적인 교회생활을 통해 그것을
실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히6:1처럼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자, 영적 성숙을 향해 나아가자, 그리
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하자”를 하지 않고 “됐어, 나는 하
늘나라 가니까”로 모든 것을 무마해 버립니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결과
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곳은 죄
인이 가는 곳이니깐요.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로마서 1장부
터 4장까지만 기록해도 무방했을 겁니다. 신약성경 뒷부분이 필요하지 않
지요. 하나님 역시 구원받은 사람들을 즉시로 하늘나라로 다 데려가셨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오히려 지금부터가 본격적
으로 시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부합되므로 아주 중요합니다.

로마서 3:21~31까지는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 언급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 즉 십자가 이후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알겠는데
그렇다면 십자가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지를 4장에서 보여
줍니다. 그런데 십자가 이전에는 두 가지 종류의 시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 이전 시대이고, 다른 하나는 율법 이후입니다.

율법 이전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율법 이후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은 율법에 의하면 사형에 처해질 중죄를 두 종류나 지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살인과 간음을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은혜로 용서받게 되었는지 알면 가장 적절한 예가 되겠지요. 어떤 사람들은 구약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즉시로 제단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제단에 속죄 헌물을 바쳐서 죄 씻음을 받으라는 말씀을 항상 뒤에 덧붙이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도 모른 채 앞부분만 보고 율법을 지켜보겠다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제단 앞으로 와서 속죄 헌물을 바치고 용서받는 것 이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육체에 관한 한 우리 조상인” 물론 영적으로 보면 이방인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다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육체에 관한 한 유대인의 조상입니다.

(롬4:2)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만약에 일을 많이 했다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다면 그것은 보상이지 은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일을 한 적이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롬4:3) 성경 기록이 무어라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느니라.

〈성경 기록이 무어라 말하느냐〉라는 책 제목으로 피터 렉크만 박사가 쓴 소책자가 1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구입하셔서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에 관한 책입니다. 렉크만 박사가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코노미석 말고 좀 편안한 비즈니스석으로 마련해주시면 한국에 잘 다녀오겠다고 기도를 했더니 누군가 정말 비즈니스 석으로 마련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비행기 안에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10여 시간 만에 100페이지 정도의 책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책은 성경의 특성과 구성 방식에 대해 정곡을 잘 찌른 아주 탁월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어라고 말하느냐?(3절)”라는 이 말씀으로 책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또한 바울도 “기록되었으되,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성경은 무어라 말하느냐?” 고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삶의 방식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어떤 질문에도 성경으로 답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가 다툼 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얻은 것입니다.

(롬4:4) 이제 일하는 자는 품삯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
니와

일한 것은 은혜가 아니라 보상입니다. 일을 했으면 월급을 받아야겠으
나 일을 하지 않았는데 월급을 받는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롬4:5)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일을 하지 않는 죄인임에도 의롭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루었고 그 사람
이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하신 일을 그가 한 일로 인
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5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믿었다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이
해한다면 은혜와 율법의 차이를 깨닫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안다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못할 것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걱정을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복음에 대해 처음
부터 다시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무엇인지 깨달은 사
람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
셔서 예수님을 보고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의 엉망진창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지옥에 보내시지는 않습니다. 이미 엉망진창이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엉망진창으로 산다고 구원을 빼앗고 지옥으로 보내

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롬4:6)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하여

6-8절 여기서 ‘인정’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impute입니다. 이는 ‘전가’라는 뜻입니다. 본래 내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치르려면 내가 죽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들을 예수님께 넘기게 하여 그 분이 짊어지도록 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죄값을 값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가의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생각으로, 몸으로 지은 모든 죄의 목록을 세어보면 1억 개쯤 될까요? 내가 지은 모든 죄가 예수님 몸 위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 반 동안 살면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음은 물론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선한 일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1억 개쯤 된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것을 나에게 옮기고(전가) 내 것은 예수님께로 옮겨서(전가)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고 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내 것은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것은 내게로 맞바꾸는 것입니다. 이런 거

래를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을 보듯이 보시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분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모습을 보면 도저히 그럴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한심하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절로 들지만 우리의 상태를 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십니다. 나의 속에 있는 것들은 보시지 않습니다. 다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편하기 위해, 그리고 교제하기 위해서는 감추고 있는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평강 가운데 그분과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우리가 완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는 우리는 이미 영광스럽게 되었다고 과거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되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에 모여 예배도 드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무엇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내 상태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책감이 생기고 꺼려지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도망쳐 숨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무화과 나뭇잎을 내려놓고, 가죽옷을 입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백하지 않고 끝까지 버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인정하시는 사람의 복된 일을 묘사한다(롬4:6)고 말씀합니다. 다만 그 당사자는 주님과 교제가 끊긴 불행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롬4:7)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행복하다고 할까요? 돈, 권력, 소유 등 육신의 정욕과 인생의 자락을 마음껏 향유하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행복은 내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가 나에게 옮겨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인정하셔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평안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됩니다.

(롬4:7)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불법들을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었으므로 우리의 추한 모습들이 가려졌습니다(갈3:27). 속에 입은 옷이 좀 더럽더라도 깨끗한 옷으로 겉옷을 입으면 더러운 옷이 가려지듯이 말이죠.

(롬4:8)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속의 더러움은 자백을 통해 보혈과 말씀으로 씻어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들을 예수님께로 옮기심으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이전이든 이후이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롬4:9) 그러면 이 복된 일이 할례자에게만 임하느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 임하느냐? 이는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의로 간주하셨다고 우리가 말하기 때문이라.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이들만 의롭게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롭다고 칭하셨을 때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난 이후인지 이전인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한참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20년 후에 할례를 받았음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롬4:10)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의로 간주하셨느냐? 그가 할례 받은 때였느냐, 할례 받지 않은 때였느냐? 할례 받은 때가 아니요, 할례 받지 않은 때

니라.

유대인이 되기 전에 이방인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롬4:11) 그가 할례의 표적 곧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에 그가 소유한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적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어 의가 그들에게도 인정되게 하려 함이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확인증을 받은 날이 바로 할례 받은 날입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도 역시 얼마든지 의롭다 함을 입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롬4:12) 또 할례자들에게 속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 받지 않은 때에 소유한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자들에게 할례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례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아브라함은 모든 이들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롬4:13)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나 율법을 통해 주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의를 통해 주어졌느니라.

영적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씨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의 씨, 즉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도 ‘씨들’이라고 하지 않고 단수로 ‘씨’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게 자신의 씨라는 표현을 시편 22편에서 사용하십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천년왕국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로 재림하시면 우리 역시 그분과 함께 왕 노릇하게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롬4:14)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가 되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그 약속은 효력을 잃게 되느니라.

율법에 의해서 상속자가 되면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상속에 대해서는 원천 봉쇄되어 버립니다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롬4:15)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는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갇난 애기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아기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고로 죽는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 한 가지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 어린 아기가 죽으면 안타깝지만 지옥에 간다고 말합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해버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의도치 않았지만 순식간에 하나님을 너무나 잔인한 신으로 만들어 버린 꼴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누가 믿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적 진리를 가리는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왜곡하여 투영시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고속도로가 생겼는데 처음에는 속도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많이 일어나자 최대 시속 100km/h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규정속도를 위반하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이 없으면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율법이 진노를 이루기 때문에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기들은 먹을 것이 있으면 그냥 먹습니다. 그것이 잘못인지 모릅니다. 말하자면 이 아기에게는 율법이 없는 것입니다. 아직 양심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물론 언제 양심이 작동하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죽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신명기 1장에서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낳은 아기들은 모두가 나안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어려서 아직 죄를 모르기 때문에 죄를 묻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므로 예외 없이 지옥에 간다고 가르친다면 과연 그 아기 엄마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믿는 사

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법을 어기고 죄를 지었을 때는 반드시 속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대신 치루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은혜로 거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율법은 필연적으로 진노를 수반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율법을 주실 때 천둥번개가 쳤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이는 율법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율법과 대조되면서 그 거울에 이스라엘의 추악한 죄들이 다 비추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폭발한 것을 보여 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전혀 모른 채 율법을 지켜 보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제단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죄를 지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통해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을 만들 때 사용되는 돌을 다듬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는 구원에 절대로 인간의 손길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줍니다. 인간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다고 이사야서 64:6에서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장으로 다듬지 않고 자연 상태 그대로의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절에 십계명을 주시면서 제단에 대한 말씀을 하

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입성할 때 두 번째 율법인 신명기에도 제단을 쌓을 때 추가로 지켜야 할 사항을 주셨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제단을 쌓을 때 연장을 쓰지 말라고 하십니다.

과거의 우리, 즉 아담은 처음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했어야 마땅함에도 무화과 나뭇잎으로 스스로 죄를 가리고자 했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은 인간의 행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속죄 헌물이 될 수 없습니다.

바벨 탑 사건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손으로 벽돌을 만들어 바벨 탑을 쌓은 것입니다. 전적으로 인간의 행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거기다 벽돌과 벽돌을 이어 붙이기 위해서 진흙도 칠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인간의 인위적인 행위입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율법을 통해 인간은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도 말씀하듯이 율법은 죄를 알게 해 주기 위함인데 유대인들은 이를 지키면 의롭게 되는 줄로 알고 있으니 완전히 초점이 빗나가 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갈라디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자신들이 행위로 구원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래

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는 바울의 질책을 들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갈3:3)

율법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갈3:24-25). 율법은 가정 교사로 우리를 잘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께 보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100% 다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서 33년 반을 사셨는데 성령님께서 집요하게 관찰하셨으나 성령에 의해 전혀 죄가 없음을 인정받으셨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딤후3:16)

그 율법에서 난 의를 지키신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십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면 정말로 율법을 ‘다’ 지켜야 합니다. 평생 613가지를 다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에서 난 의는 네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라고 모세가 신명기 30:12절에서 말합니다. 행위로 구원받고자 한다면 그냥 하는 선행 정도로는 안 됩니다. 하늘에 이르는 수준까지 높아져야 합니다.

신명기 30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네 입 가까이 있는데 왜 멀리 가려고 하느냐고 하십니다. 그것은 율법의 의를 성취하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일 뿐입니다. 노력한다고 셋째 하늘에 갈 수 있습니까? 인간이 노력한다

고 해서 바다의 깊은 심연에 갈 수 있습니까? 바울도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우리에게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네 입에 있지 아니하냐”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롬10:6).

인간의 노력으로 그리스도를 셋째 하늘에서 이 땅으로 모시고 올 수 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혹은, 누가 깊은 속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나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들로부터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롬10:7).

로마서 10장 8절에서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의 ‘그것’은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율법에서 난 의는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저주입니다. 인간은 율법 613가지를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평생 살면서 단 한 가지도 어기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양심에 단 한 번도 거리키는 것이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율법에서 난 의 말고 다른 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 의가 바로 믿음의 의입니다. 단순히 믿으면 됩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묻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일이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롬10:9-10).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롬4:16) 그러므로 그것이 은혜로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 나나니 그 목적은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은 곧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 그 약속을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

이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롬4:17) (이것은 기록된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유대인만의 조상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민족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과연 어떤 성격의 믿음이고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는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의 그 죽은 자는 누구입니까? 실제로 죽은 자도 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식을 생산하는 일에 있어서는 죽은 자와 같다고 했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중국에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성들, 즉 가임기가 지난 여성들은 “관”이라 불렀다 합니다. 태가 죽었으므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그 죽은 자를 살리셔서 아이를 낳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1차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17절)” 원래 생명이 없는 사라의 태

를 선택하여 아이를 주셨고 그 아이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이삭이 죽게 되었을 때 그를 다시 살리셨지요. 영적으로 보자면 불임이었던 사라에 의한 이삭의 탄생은 하나님의 창조능력을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라고 했다가 되돌려 받은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부활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을 들여다보니 그러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에 따라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정해집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과 저 역시 범법과 죄들로 죽었던 자들인데 다시 살리셨다고 하셨으니 그대로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죠.

(롬4:18) 그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면서 믿었으니 이것은, 네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신 것대로 그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아브라함은 자식을 바랄 수 없는 100세의 나이였습니다. 부인인 사라는 90세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식을 바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인 사라에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믿은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니 “하늘의 별들을 세어보라. 네 후손을 이 별과 같이 만들어 주겠다”고 하십니다.

(롬4:19) 그가 백 세쯤 되었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

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브라함은 죽은 자신의 몸에도 불구하고 또한 사라의 태가 죽었음을 알았음에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롬4:20-22) 믿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은 영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죽은 것 같지만 이 역시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느냐는 겁니다. 믿으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고백은 겸손의 말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3)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다양한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요일5:4)

(롬4:23-24)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다고 기록된 것은 이제 그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을 믿을
진대 그것을 의로 인정받을 우리도 위한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도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롬4:25)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사망과 부활, 창조, 하나님의 속성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범죄가 아니라 ‘우리’의 범죄로 지옥에 가서서 죄 값을 다 지불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는 요즘 용어로 얘기하자면, 내가 빚을 갚았더니 은행에서 돈을 다 갚았다는 영수증을 써 주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수증만 잘 가지고 있으면 누군가 빚을 받으러 왔을 때 당당하게 영수증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는 항상 마귀가 우리에게 죄를 지었다며 송사를 걸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론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무죄가 됐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부활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의롭다 함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확고한데 어떻게 구원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개의 바빌론〉이라는 책에 보면 부활절이 어떻게 제정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인데 그것을 이방 종교 사람들이 보고 겨우내 얼어붙어 있던 땅이 소생하는 봄을 기리기 위해 소생의 신인 아스타롯이라는 여신을 기념하는 명절로서 ‘이스터(Easter)’라는 날을 만들었습니다. 이스터는 성경에서 이방종교의 명절로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있었고 이스터가 올 때 베드로를 사형에 처하겠다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2장4절에 나옵니다.

부활절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왜 이런 것이 만들어졌느냐 하면 교회시대 초기 300여년 간에는 교회가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증가하니 콘스탄틴 황제가 권력을 잡은 후에 자신의 권력 기반을 다지기 위한 도구로 기독교를 제대로 이용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고 자신도 개종합니다.

누구든지 물속에서 들어갔다가 나오는 사람들에게 침례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비단옷과 금화 20개를 선물로 주는 홍보성 이벤트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은 노예를 포함한 모두가 일요일 하루는 일하지 않고 쉬게 해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로마 시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크리스천이 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안 믿고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죠. 이것이 가톨릭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옛날에 이방 종교를 믿을 때는 술의 신 바쿠스의 축제같이 때 실컷 마시고 노는 축제가 일년에 대여섯 번은 있었는데 왜 기독교에는 없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을 의의 태양(말4:2)”이라고 한 것에 근거해서 태양신의 탄생일이라

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정하여 크리스마스를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9~10월에 태어나셨습니다. 12월은 너무 춥기 때문에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이는 비밀스러운 내용도 아니며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전통이니까 그냥 지키자고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명백히 이집트의 우상인 태양신 탄생일이며 전 세계에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크리스마스를 즐깁니다.

자신의 신을 섬기는 것인데 거리낄 것이 없겠지요.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가 정말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피상적으로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역사적인 사실들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합니다. 부활절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가톨릭에서는 많은 명절에 대해 전도서를 근거로 듭니다. 인생이 고달프니 즐겁게 살기 위해 먹고 마시는 것이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원래 의도는 인간은 그것밖에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함인데 그것을 먹고 즐기라고 주신 말씀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기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부활 찬송을 부르고 부활에 대해 설교도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활의 의미를 이런 날을 계기로 하여 확실히 알자는 취지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얼마만큼 이교도적이며 치명적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작용을 하는지 여러분이 공부를 통해 잘 알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사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탐무스, 즉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니므롯의 아들을 숭배하는 날입니다. 니므롯 숭배가 바벨론 신비 종교의 시작입니다. 참된 성경적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는 다 바벨론입니다. 큰 음녀인 바벨론은 이 지상

에 하나님의 참 종교를 대적하려고 사탄이 만들어 놓은 신비의 체계입니다. 바벨론은 혼돈 그 자체이며 질서의 하나님을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부활’ 이라 하면 두 가지밖에 생각하지 못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물론 두 가지 모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최종적으로 의롭다고 판결 받은 것을 입증하는 증명서입니다.

로마서 5장

(롬5: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법적인 근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전에는 아담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처럼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두려웠으나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죄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아들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아버지’ 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롬5:2)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가까이 갈 수 있는 접근성을 허락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셋째 하늘에 수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셋째 하늘에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구원 받은 사람들이 현재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보상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해 불안해하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평안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만 끝내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평안이 오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롬5:3-4)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환난까지도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환난 자체를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환난 중에 있으나 그럼에도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환난이 나에게 가져다 줄 결과를 바라보는 중에 인내가 생기며 인내하는 동안 체험을 하게 되고 그것이 곧 소망이 됩니다. 처음에 어려움을 겪으며 인내했더니 견디지 못할 줄 알았는데 잘 넘어갑니다. 두 번째도, 세 번째 시련도 넘어갔습니다. 이런 체험이 계속해서 쌓이면서 이제는 웬만한 어려움에도 낙담하지 않고 믿음이 강해져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죽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니까요.

(롬5:5)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성령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애초에 성령을 받으려 다닌다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괜히 여기 저기 쫓아다니다가 잘못된 영, 악한 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쳐 흐르기 때문에 소망이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 소망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환난, 인내,

체험, 소망, 사랑으로 인해 현실에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던 것처럼 초월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풍량이 일고 파도가 치는 바다 위를 걸어 갈 수 있는 이 엄청난 축복을 향유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5장의 축복을 알지 못한 채 4장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에만 머물러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축복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사람도,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여 응답 받을 수 있는 사람도 그리스도인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쳐 흐릅니다. 그래서 정말 미운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지옥에 가지 않게 하고 하늘나라에 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고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인지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는 죄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부터 8장 9절까지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방법에 대한 교리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를 짓고 또 자백하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로 악을 저지르고, 주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하신 것이 바로 6장과 7장입니다. 그러므로 6장과 7장을 잘 배워서 8장에서 성령의 법에 따라 살 수 있어

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서 속아 살게 됩니다.

로마서 8장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영적으로 아직 성장이 되지 않은 경우이고, 둘째는 시간적으로는 충분히 성장했어야 하나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속고 있는 경우입니다. 감히 말하건대 95%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 7장에서 계속 빈곤의 악순환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빈곤의 악순환이란 예를 들어 후진국은 소득이 부족하여 저축을 할 수 없고, 이 때문에 투자가 되지 못해 계속해서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므로 빈곤의 악순환이 아니라 충만의 선순환이 이루어져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6장과 7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제대로 주님을 섬기자는 내용의 위치만 나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반복해서 잘 읽으시고, 똑같은 주제를 다른 각도에서 다룬 프란시스 웨퍼의 <진정한 영적 생활>이라는 책을 잘 읽고 깨닫게 된다면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5장 1-11절을 복습하겠습니다.

(롬5: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은혜로운 말씀

이자 경이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화평” 이라고 했는데 좀더 직접적으로 번역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화평’ 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에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린다고 하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영원히 지옥불에서 끝없는 고통을 당해야만 했을 운명이었으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셨고 더 이상 나를 징죄하지 않으시니 얼마나 마음이 편안합니까.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의 99.9%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축복입니다.

이제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으면 하늘나라에 주님 앞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생적으로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이지만 이것까지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죽는 것이 유익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함께’, 즉 하나님 쪽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마음도 편안해지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모든 인간들이 영원한 지옥불의 고통 가운데 있어야 했었는데 얼마나 그분의 마음이 괴로우셨을까요? 그런데 자신의 아들의 순종으로 이 죄인들이 원하기만 한다면 거저 주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회복하여 아들이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시겠습니까.

이렇듯 로마서 5장 1절을 보고 내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했다면

그는 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지옥에 보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이 나누어 줄 그 영광을 누릴 자격을 상실해 버린 자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신 그 외침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워서 찾는 간절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경찰이 죄인을 쫓듯 “이놈 어디 있느냐, 아담아 썩 나오지 못하겠느냐”는 식의 뉘앙스로 하나님의 이 간절함을 퇴색시켜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무서운 분으로 소개합니다.

여호와와의 증인도,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겁을 내며 지옥을 실재하지 않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성경을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자신의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누려고 만들었던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어 있는 것을 보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것이 로마서 3장 23절에 나와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복음 집회를 앞두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꼭 구원받게 해 달라는 식의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기도는 조금 달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음을 듣기 위해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될 자들입니다. 당신이 구원만 해 주시면, 오늘 영원히 당신을 찬양할 자들을 1명이라도 더 얻게 될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수준의 기도를 했습니다. 옆에서 그의 기도를 듣던 사람들이 크게 은혜를 받았다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라는 말씀에서 화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셨겠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하신 분께서 더러운 죄인들과 대화를 하시려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이를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 30년 정도 한 사람들 중 1-2명이 나올까 말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점점 성숙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자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는 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충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오히려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냉철하게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롬5:2)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과거에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 주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꺼운 휘장이 쳐진 지성소라는 특별한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더군다나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 짐승의 피를 뿌리고 기도하며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속죄일은 히브리말로 ‘욥키퍼’라고 하고, 날짜로는 7월 10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 몸이 찢기시고 창에 찔리셨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휘장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 당하시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져서 두 동강 났습니다. 가려져있던 지성소가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은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에게는 매일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지성소 안으로, 은혜 안으로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생겼습니다. 죄를 짓더라도 언제든지 용서받기 위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염치가 없을 정도로 드나들다 보면 어느새 예수님을 조금 닮아가면서 드나드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가끔 염치가 없어서 자꾸 자백하기가 어렵다는 분들은 자기 의가 너무 강한 것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죄를 지어 더러워졌고 이 죄로 인해 괴롭습니다. 그런데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이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고 하나님도 만나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왜 만나지 않습니까? 공휴일과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가지고 왕좌에서 기다리시는 대제사장을 왜 찾아 나서지 않는 것이냐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신앙생활은 은혜의 왕좌 앞으로, 지성소 앞으로, 마르고 닳도록 드나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으로부터 빛을 받아 모세의 얼굴이 빛나던 것처럼 우리도 점점 성령에 의해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2절)”고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랬었습니다. 죄를 지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가져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

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딤후2:11-13) 어떻게 인간의 일생을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이는 성령님이 아니시면 감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1절은 초림이며 13절은 재림입니다. 은혜가 나타났는데 받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이 은혜를 받지 않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었으면 그것으로 됐는데, 12절이 왜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실은 12절을 위해 11절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엄마 배 속에서 이제 막 태어난 어린 아기와 같기 때문에 극진한 보살핌, 즉 양육이 필요합니다. 먹이고 가르치고 입히는 일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십니다. 12절에 “가르치다”라는 동사가 나오고, 11절에 보면 그 동사의 주어가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의인화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 말씀하실 때 주님은 “너희 위에 내 멍을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하십니다. 경건치 아니한 것(하나)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둘)을 거부하고 맑은 정신(하나)으로 의롭게(둘) 하나님의 뜻대로(셋)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성령에 의해 계속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복된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신부가 가장 고대하는 것은 신랑이 보내 주는 무엇이 아니라 신랑입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것이 신부의 소망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십니다(골1:27).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만나는 것입니다. 휴거 때 있게 될 일입니다. 성정은 이를 가리켜 ‘신비스럽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성서들은 이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고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그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역성경을 들고 있으면 영광만 만나고 주님은 만나지 못합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 땅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과 영광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과 위로자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 역시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보혜사는 ‘돕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위로입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위로부터 오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린도후서 1장 3-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는 학대 받는 자, 고난 당하는 자, 힘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위로자요 상담자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혼자 힘들어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장 힘들어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 믿고 죽으면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 외에는 배우지 못해 힘들게 삽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만 반복하며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경제

학자 녀시라는 사람이 후진국의 경제가 항상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을 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연구했습니다. 후진국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고 그러니 저축이 없고 그러니 투자가 활발하지 못하고, 투자가 안되니 생산이 안 되고 돈이 시장에서 돌지 못하니 저축도 안 되고 이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이어져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었습니다. 내부에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외부에서 돈을 끌어와 외자를 유치하여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내부의 상황을 타개할 돌파구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도 늘 죄를 짓고 회개하는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이 악순환에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소리를 쳤습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탄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롬7:24)” 이 “누가”라는 외침이 우리의 돌파구입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비참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금식기도, 철야기도 등 열심히 했어도, 결국 “육에서 난 것은 육”이었습니다. 바울이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부르짖는 순간 빛이 임했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롬7:25)”

우리는 예수님이 건져내야 이기는 삶이 됩니다. 그것이 로마서 6, 7, 8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내 위주로 돌아가는 것으로 알다가 살아가면서 전혀 내 위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알고 누릴 수 있습니다. 주인공은 내가 아니고 주님입니다.

그런데 이를 아는 데 얼마나 걸리는가? 한 예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만 40년이 걸렸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를 묻어 주세요.” 이 말이 요르단 강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요르단 강에서 자아를 묻어 버리는 것이 로마서 7장이라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공부를 통해 이를 알 수는 있지만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되고 실제적으로 삶에서 체험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던 중 어느 날 “이것이 진정한 자유함이구나”라고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그럼에도 항상 승리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리고에서 승리하고 아이 성에서 패배했던 것처럼,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어도 여전히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을 쓸 때는 “나 사도 베드로는”으로 시작할 정도로 마음에 뿌듯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가나안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육신적으로 행동하는 바람에 계속해서 영적 전쟁에서 패배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이스라엘’ 이라고 불릴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야곱’ 이라고 부르십니다. 가장 성숙했던 야곱도 생의 60%는 야곱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아를 아예 버리지 않고 참새가 어미 새에게 먹이를 달라고 짹짹대듯이 끊임없이 요구만 하며 삽니다. 그래도 교회 안에는 대어섯 살 먹은 성도들이 소수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린 아기들을 돌보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생활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롬5:2)**

(롬5:3)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환난도 기뻐하나니” 보다는 ‘환난 중에 기뻐하나니’ 로 번역하는 것이 의미가 더 잘 통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환난 자체를 기뻐할 정도로 지나치게 의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고통 자체를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통 중에도 믿음으로 기뻐할 수는 있죠. “또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으니”(살전1:6) 고난 속에 있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이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구절은 번역상에는 문제가 없으나 다른 성경 구절과 비교해 볼 때 고난 자체를 기뻐한다기보다는(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마담 귀용이라는 자매님은 십자가가 주는 유익을 알았기 때문에 고난이 더 많이 오기를 기다리고 사모했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다’가 더 적절해 보입니다. 번역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런 각도에서도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환난을 왜 기뻐합니까? 환난을 통해 인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이를 참아내는 것이 우리에게는 인내라는 성품을 만들어 줍니다. 인내는 행복의 조건 중 하나입니다. 불행한 사람들은 참을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참기 전에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야만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을 줄 아는 능력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너희가 옴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는 분이시니라.”(약5:11) 왜 인내하고 참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 인내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타는 듯한 갈증을 느낄 때 시원한 물을 마시는 쾌감과 평소에 마시는 물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서 인내하는 자의 행복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적 기준에서 보면 행복은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한다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롬5:4)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인내를 하면 경험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참지 못해 마음이 상했지만 이제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인내를 통해 경험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체험은 소망을 만듭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 경험이 쌓이다 보면 그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모든 문제를 단 한번에 해결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롬5:5)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이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꼭 차 있으므로 그 사랑이 그분께서 나를 반드시 데려가실 것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 안에 사랑이 가득 차 있지 않다면 사랑을 의심하고 불안해하므로 소망을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넓게 부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면 눈물이 주르륵 흐르며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칭의의 결과로 주어지는 축복들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금욕주의로 규정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안 되고 저것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33년 반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셨습니다(요 8:28). 그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의 “부요한 자들은”에서 부요는 물질적 부요를 가리킵니다. 물질은 많아도 마음은 공허한 사람이 많습니다. 재물은 쉽게 떠나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동물과 식물 세계 등 아름답게 이 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섬세하게 만들어놓으신 것은 우리를 기쁘게 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늘은 땅을 위해, 땅은 인간을 위해,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만드셨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며 하나님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보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과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 알고 있는 사람의 영적 성숙의 차이는 아이와 아버지라 할 수 있습니다(요일2:13). 하나님을 처음부터 계신 분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아버지께 해당합니다.

(롬5:6)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비참하고 한심한 죄인의 상태로 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의 가치가 매우 큼니다.

“힘이 없을 때” 여기서 가리키는 힘은 영적인 힘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도 없으며 진리를 배울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나쁜 일에는 에너지가 넘칩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무가치하고 세상말로는 쓰레기에 불과한 존재인데 왜 사랑하실까요. 신비롭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 하나님과 닮은 구석이라고는 단 한 군데도 없으며 고칠 수도 없고 폐기 처분해야 할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 존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모르는 인간은 참으로 불쌍합니다.

(롬5:7)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는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인간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모습이(약3:9, similitude) 조금이나마 남아 있어서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남을 위해 죽고자 하는 사람이 아주 드물지만 간혹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죄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롬5:8)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면 사랑에 대해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사랑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즉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이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큰 사랑을 받고도 사랑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정말로 둔감한 사람입니다.

(롬5:9)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 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여기 보시면 ‘더욱 더’ 라는 말이 5장에서 5번이나 나옵니다. 죄인이었을 때에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더 사랑 받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죄를 지으면 다시 지옥으로 보낸다고 믿고,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했습

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는 “건져 내신”이라고 과거시제로 되어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혼은 이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났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몸도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과거 시제로, 또 어떤 경우에는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로마서에는 미래 시제로 쓰여 있습니다.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9절)” 문맥을 잘 보아야 합니다.

(롬5:10)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대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는데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더욱 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구원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래적으로 지옥에 가지 않는 구원일 수 있고, 문맥으로 보자면 매일 죄의 권능으로부터, 나의 자아로부터, 나의 게으름으로부터 나의 모든 것으로부터의 구원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나를 통제한다면 나의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죄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롬5:11) 그러할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았으며 그분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느니라.

속죄라는 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덮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 무화과 나무로 수치를 덮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가죽옷으로 가려졌습니다. 죄를 ‘가리다, 덮다’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단어는 노아의 홍수 때 만들어진 방주에도 쓰였습니다. 방주의 안과 밖을 역청으로 칠해 물이 침투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덮었습니다.

두 번째로 속죄는 덮어 버림으로써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쳐져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의 두 번째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고전6:17) 그러므로 로마서 5장은 본격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6, 7, 8장이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느니라(11절)”** 이는 매일 매일의 삶에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뻐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로마서 5장 1-11절까지는 성경에서 가장 유쾌하고 읽으면 읽을수록 즐거운 부분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라는 책을 쓰신 분은 바로 이것을 안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들을 읽어보니 보잘것없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에 자긍심이 생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 자긍심이 생기면 다른 것들은 다 시시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를 욕하면 ‘예수님도 들었던 욕인데 뭐.’, 고통을 당해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도 당하셨는데.’, 친구가 배반하면 ‘가롯 유다에게 예수님도 배반당하셨는데’, 형제들이 비판하면 ‘예수님의 형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데’ 하고 넘겨 버릴 수 있습니다. 전부 예수님과 비교하여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읽으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리 없기에 나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행복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이 말씀을 날마다 실감하며 삽니다.

검었던 머리는 희어지고, 빠지고, 얼굴에는 주름이 늘어갑니다. 점점 기운도, 기억력도 없어지는 등 점점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걱정도 근심도 비방도 다 괜찮습니다. 안이숙 자매님의 책제목처럼 “그럴 수도 있지”가 됩니다. 정말 모든 것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중이며 세상 것은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리고 **“잠시 받는 고난(17절)”** 이 세상의 일들을 죽으면 끝이 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훨씬 뛰어난 영광인 상급을 하늘에 쌓아둘 기회가 됩니다. **“보이는 것들을 바라볼 수(18절)”** 있던 구약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매우 어린 사람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유대인에게 주셨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18절)”** 인 영원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하라”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편하게 사는 길인데, 이를 위해서는 자아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8장까지는 한 세트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2-21절까지는 읽어도 무슨 의미인지 잘 와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영어로 읽으면 조금 낯섭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적 은사가 있는 사람이 만든 도표가 있습니다. 이를 참고해서 보겠습니다.

도표

*칭의의 기초(12-21절)

두 아담(5:12-21)

구 분	아담 vs. 그리스도(대조)	
15-16절	범죄	값없이 받은 선물
17절	사망	생명
18절	정죄	칭의
19절	불순종	순종
20절	율법	은혜

두 아담(5:12-21)

첫째 아담은(첫째 사람은)	마지막 아담은(둘째 사람은)
땅에서 만들어졌음(고전 15:47)	하늘로부터 왔음
옛 창조의 왕이었음(창 1:26-27)	새 창조의 왕과 제사장이심(고후 5:17)

완전한 동산에서 시험 받았을 때 불순종함	황량한 광야에서 시험 받았을 때 순종하시고 겻세마네에서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굴복시켰음
불순종으로 죄, 정죄, 사망이 온 인류에게 임함	순종으로 의, 구원, 생명이 믿는 자들에게 임함
죄가 다스림(14, 17, 21절)	은혜가 다스림(21절) 믿는 자가 생명 안에서 다스림(17절)

첫째 아담과 첫째 사람, 마지막 아담과 둘째 사람. 어떤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데 이는 정확한 용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지막 아담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둘째 사람으로서 부활하셨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의 의미는 인류의 모든 자를 대신해서 죽으셨음을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인류인 아담이라는 전체 인류를 대표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둘째 사람, 둘째 인류가 되셨습니다. 이를 제대로 구분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1. 첫째 사람 아담은 땅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습니다.

2. 첫째 사람 아담은 창세기에서 세상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신 동시에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3. 첫째 사람 아담은 완전한 동산에서 시험을 받았으나 불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의 최악의 조건에서도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담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성령에 의하여 집어 넣었습니다. 이것이 성령 침례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고전12:13) 성령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고전6:17)

4. 첫째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온 인류에게 사망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 의와 구원, 생명이 임합니다.
5. 죄가 다스립니다.
은혜가 다스립니다.

믿는 자가 생명 안에서 은혜로 다스립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 1) 구약성경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으로 저주라는 단어로(영어로) 끝이 납니다. ‘아담의 세대들’로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1세대, 2세대, 3세대...계속해서 살다가 죽습니다.
- 2)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는 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낳고, 낳고, 낳고’라는 말은 반복되지만 죽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세대는 영생을 얻어 죽지 않기 때문에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더 이상 저주가 없다고 선언되어있습니다(계 22:3). 예수 그리스도와 아담의 대조입니다.

3) 창세기에서 아담이 잃어버린 낙원, 즉 paradise lost는 영국 시인 밀튼이 쓴 시의 제목이지만 창세기 3장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낙원에서 쫓겨났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계시록에서 낙원에서의 삶이 회복됩니다. 우리는 이를 새롭게 회복된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p.s.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는 아담 안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가? 이 둘을 대조해서 성경에서 설명했는데 태어나는 순간에는 자동적으로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으로 옮겨집니다. 아담 안에 있다면 죄와 사망이 내 삶을 다스릴 것이고 정죄 아래에 놓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은혜가 내 삶을 다스리고 죄가 나를 종으로 다스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의 주제입니다.

로마서 5, 6, 7장의 차이를 알고 올바르게 나누어야 합니다. 5장의 핵심 주제는 내가 죽어야 했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알고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5장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했는데 6, 7장은 내가 그리스도와 죽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5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죄들(sins)’로 인해 죽으심은 나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리스도께서 ‘죄(sin)’에 대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복수와 단수의 차이를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에서 실패합니다. 이 둘

은 다릅니다. 다시 말해 죄는 공장입니다. 공장에서 죄들을 생산해내죠. 죄들은 제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장과 제품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분명히 제품을 다 제거했는데 얼마 있다 보니 제품이 또 있습니다. 공장을 폐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장에서 계속 제품을 생산해 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공장을 십자가로 내리쳐서 폐쇄 명령을 내리셨지만 우리가 그 폐쇄 사실을 모르면 공장은 자꾸만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칭의, 그렇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성화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넘겨주신 그 의가 내 안에서 분배됩니다. 나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어 그렇게 예수님께서서 내 안에 점점 형성되어 갑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겪노라.”(갈 4:19) 마치 엄마 배 속에 태아가 형성되어 조금씩 자라 사람의 모양을 갖추듯이 예수님께서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점점 그분의 형상을 갖추어갑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 다르다는 것은 예수님께서서 주신 의가 내 안에 분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5장과 6, 7장의 차이입니다.

지난 시간에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리스도인이 되어 얻은 축복을 알아보았습니다. 12절부터는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여 아담 안에 있어 영원한 정죄로 결정지어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영원한 축복을 받을 운명이 된 것을 교리적으로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행복해져야 하는데 현실은 로마서 6장과 7장이 아직 남아 있습

니다.

왜 실제 삶은 이렇게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죄의 종 노릇 하며 육신적으로 살게 되는 걸까요? 죄를 짓고 자백하는 일을 반복하며 바울이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롬7:24)”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같은 고백을 듣고 싶어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는 죄 짓지 않고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마음에 결단을 하고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 얼마 가지 못합니다. 다시 죄 속에서 헤매다가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에 따라 자백하고 용서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얼마 가지 못해 죄 짓는 삶을 삽니다. 이제는 자백을 하기도 민망할 지경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한 20년을 그렇게 살다 보면 자괴감이 들게 됩니다.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워치만 니와 D.L 무디는 약 7년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역시 이 광야 생활을 어서 끝내고 요르단 강에 자아를 묻고 영적 삶을 상징하는 가나안에 들어가 풍성한 풍요로움을 맛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10:10).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매일의 생활에서 풍요로움을 얻지 못하고 겨우 생존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지 탄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때부터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워치만 니

가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바닷가에서 쉬고 있을 때, 한 형제가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처에 마침 인명구조 자격증이 있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물에 빠진 형제를 구하지 않고 잠잠히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자 함께 있던 형제들이 빨리 구해주지 않는다고 그 형제를 비난했습니다. 그 형제는 물에 빠진 형제가 기력이 다해 물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하자 물 속에 들어가 그를 구조해 냈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묻자 그는 이것이 인명구조의 원칙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대고 있을 때 선불리 들어가게 되면 그 버둥거리는 힘에 의해 구조자까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 역시 비슷한 맥락입니다. 우리는 해 보려고 버둥거리지 말고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바울처럼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때부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지하여 사는 믿음의 삶,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는 성령의 통제를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하니 다 이해가 되는 것 같지만 실제 삶에서는 이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아무리 비명을 질러도 구조해 주시지 않습니다. 발버둥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겠단다는 마음으로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뒤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위치만 니 같은 경우는 죄짓고 자백하는 악순환의 연속이 6-7년 지속되는 동안 너무 힘이 들어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절실히 깨닫고 모든 것

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고백이 절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귀히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사람, 자랑하는 사람,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은 “나”를 매우 강조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나’가 25번이나 나옵니다. “제 생각에는요, 저는요” 등의 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그만큼 자아가 강하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을 자동적으로 많이 할수록 로마서 8장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성령님이 어서 오시기를 바란다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임을 당한 가짜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입으로 나와야 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성령님을 자꾸 찾는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하나님의 지식을 말씀합니다. 영적 지식,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 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지식과 정보만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귀를 통해 점점 그분의 깊이와 넓이, 높이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벧후3:18) 로마서 6장, 7장, 8장은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따로 떼어서 공부하기가 쉽지 않지만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 6, 7장 핵심 메시지

로마서 5장 vs 로마서 6, 7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대체(substitution)	일치(identification)
그리스도께서 죄들로 인해 죽으심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 죽으심
죄의 형벌을 받으심	죄의 권능을 부수심
칭의(justification)	성화(sanctification)
의가 전가됨(imputed)	의가 분배됨(imparted)

로마서 5장은 칭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6-7장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초점입니다. 초점이 달라진 것이죠.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이 칭의에 있어서 중요하다면 성화에 있어서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을 받고 지옥에 갔습니다. 여기서는 그분과 내가 일치되어 그분이 죽었을 때 나도 죽었고, 그분이 부활했을 때 나도 부활했습니다. 그분과 함께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들(sins)’로 인해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까지는 우리가 행한 죄악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었고, 로마서 6-7장에서는 내 안에 인격체로 나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죄성에 대해 죽은 사실에 초점을 맞춥니다. 죄들 때문에 죽으신 것이 로마서 5장이라면 죄에 대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게 된 것이 6장입니다. 예전에는 죄의 형벌을 주님이 대신해 주신 정도라면 이제는 아예 죄의 권능을 부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마지막 심판을 받기 전까지는 계속

해서 나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게 되며 내가 싸우면 결국 패배하고 맙니다. 사탄은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칭의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선포되었습니다.

이제는 매일의 삶이 거룩하게, 의롭게 나타나야 하고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넘어오고 내가 지은 모든 죄는 예수님께 넘어서 전가가 되었습니다.

6-7장은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의로움을 조금씩 분배시켜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형성됩니다. 마치 어머니 배 속의 아이가 세포 덩어리에서 세포 분열을 통해 조금씩 사람의 모습을 갖추어 가듯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내 안에서 점점 퍼져 나가 의로운 행동과 의로운 삶으로 변화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크리스천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닮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이나 말투, 태도가 거의 예수님과 흡사하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어떤 분은 지금은 크리스천을 찾아볼 수 없고 구원받은 죄인만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늘나라에 갈 사람들은 많지만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삶을 맛보는 사람은 몇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빌립보서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여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시민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초점입니다. 유독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시민권 대신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살기는 땅에서 살되 하늘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 것을 권면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6-8장입니다. 그런데 이를 소화시키려니 힘든 것입니다. 영성이 뛰어난 사람들도 보통 6-7년이 걸리니 대충 1-2년 해보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참 맛을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들은 셋째 하늘에서의 삶의 방식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갈 때 그분만 바라보고 갔을 때는 충분히 갈 수 있었지만 옆의 파도를 보고 두려움을 느낀 순간 물에 빠졌습니다. “주여 구원해 주옵소서” 이것이 로마서 7장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초월적입니다. 전적으로 주님께 나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는 실천이 삶에서 행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스라엘은 열흘이면 죽할 길을 무려 38년간 광야에서 헤맸습니다. 신앙생활은 미묘합니다. 그 맛을 깨달아 알게 되면 꿀처럼 달지만 모르면 한 없이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신뢰하며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 분을 믿고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만 번의 실패입니다. 9,980번쯤 넘어지고 포기하면 남은 20번을 채우지 못해 성공하지 못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거듭되는 실패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

을 나는 확신하노라.”(빌1:6)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믿음을 보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뻔뻔스러움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롬6:1)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은혜가 군림하려면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가 많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를 열 개 지었는데 예수님이 다 용서해주셨다면, 은혜가 10개 정도 되고, 만일 죄를 200개 지었는데 용서받았다면 20배의 은혜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상한 논리입니다. 인간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더 많이 지을수록 나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상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로마서 3장에서 하나님은 죄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순종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롬6:2)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지금까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가르쳤는데 다시 죄를 짓겠다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막대한 양의 빛을 다 대신 갚아주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러니 다음부터는 빛을 지지 않고 땀 흘려 일해서 살아야지 또 다시 빛을 지면 되겠습니까?

(롬6:3)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데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죄를 짓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6-8장에서 죽었다 살아나기를 반복합니다. 죽었다고 했다가, 이것은 살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고, 죄에 대해 죽은 것은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 또한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죽음과 삶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죄에 대하여 죽었을 때에만 의에 대해서 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은 안되며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부활을 체험하려면 죽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야 생명의 새로움 속에 살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3절)” 이 구절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거의 대부분 이 구절을 보며 물로 침례 받는 것을 떠올립니다. 대단한 오해와 착각입니다. 이는 물 침례가 아니라 성령 침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 침례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의해서 들어보세요. 물 침례는 성령 침례를 예표하여 보여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실체는 따로 있습니다. 이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into one body”의 한 몸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집어 넣는 순간에 우리는 성령을 마시게 되어 성령이 내 안으로 들어오고 내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님은 나를 예수님 몸 속으로 집어 넣으셔서(고전12:13) 교회의 한 지체가(엡1:23) 되게 하시는 동시에 또 성령을 마시게 되어 성령님이 내주하시게 된 것입니다.

침례는 내가 죽었으니 묻어 달라는 요청에 따라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믿음을 시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내 몸 전체가 물 속에 잠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분의 권능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살아납니다. 물 속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이 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지냄, 그리고 부활이 그대로 나에게 적용되어서 나 역시 죽고 장사 지냈으며 부활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부활한 신분으로 살아야 하는데 이는 믿음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부활한 신분임을 잊어버리면 살아가는 스타일이 이전과 같은 모습이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머리로는 부활한 신분을 알고 있지만 소속만 하늘나라이고 사는 모습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고후5:20)로 보냈는데 그리스도의 이익

을 대변해야 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성령 침례를 설명하는 유일한 성경구절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모두 성령 침례를 받았는데 이 구절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성령 침례를 받았느냐고 물어 보면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은 못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거듭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이 성령의 증거라고 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을 모르는 목사도 많습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기도할 때 ‘날마다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거듭남은 일생에 단 한 번뿐인데 날마다 거듭나게 해 달라니 참으로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모르는 것을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마귀가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성경을 알지도 갖지도 못하게 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자 함입니다. 마치 길이를 쟀 정확한 자를 갖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 있는 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흠과 영이 합쳐져 살아있는 영과 혼과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역성경에서는 ‘생령’이 되었다고 합니다.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장로교의 기본 교리입니다. 인간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구원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 자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는데 구원받으면 인간의 혼과 영, 몸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 성경에 자세히 기록해 놓으셨는데 이를 찾아 공부하지 않고, 한낱 인

간일 뿐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이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다고 한 그 말을 믿습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영, 혼, 몸을 모릅니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영혼과 육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영혼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spirit이면 spirit이고 soul이면 soul이지 둘이 섞인 그런 단어는 없습니다. 단지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혼이라는 단어 대신 사용하지만 성경에는 없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영적으로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손에 킹제임스 성경이 들려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미국은 1971년에 이 성경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거의 40%가 버렸습니다. 나머지 60%의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데 귀중함을 알고 가지고 있기 보다는 다시 돈 들여 사기가 귀찮고 300여 년 동안 사용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냥 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영적으로 참 어두운 시대입니다.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서 보면 희미하거나 애매하지 않고 명확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교리가 빚나가기 때문입니다. ‘생령’ 이 대체 무엇입니까? 그런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살아 있는 혼’ 입니다. 인간은 혼입니다. 나, 자아(ego)입니다. 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혼을 살게 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 그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전12:7). 그리고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혼만 하늘나라로 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혼은 지옥으로 갑니다.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에서 출간한 소책자 <하늘나라와 지옥>에 보면 앞부분 전부가 그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는 말이 이런 것입니다.

목사가 인간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인간을 다루고 사랑하고 그들을 인도한다고 합니다.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인간, 정신과 육체로 이루어진 인간이라니요. 마귀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집어넣은 누룩을 모르고 그것이 진리인 양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 배운 교리들이 잘못되었고 그것이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교리의 정확성이 갖추어지지 못하면 우리의 영적인, 정서적인, 도덕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된 삶의 기반이 흔들립니다. 물론 개역성경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이는 훌륭한 분들은 전적으로 존경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이와 같은 정확한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사역은 이렇게 배워서 유익을 얻고 이 진리를 통해 자유롭게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롬6:5)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죽었다면 당연히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부활하여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

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요일3:1-3)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만 세상은 아직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되었으나 아직은 성화의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세상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보지 못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하나님이신 분을 몰라 봤습니다. 현재 우리의 신분은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형상과 성품, 모든 것이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의 방식으로 살고 예수님처럼 말과 행동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에너지와 지혜를 공급받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이며 살기는 지상에 살아도 우리의 필요는 하늘나라에서 채워 주십니다. 거둬지는 실패 속에서도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충분히 살아낼 수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인내로 견뎌내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참고 견디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롬6:6)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께서서는 3절 “알지 못하느냐?”, 6절 “알거니와”, 9절 “아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8:32)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자유롭게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의 삶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얽매여 살며 마귀에게 속아서 삽니다.

“우리의 옛 사람이” 이 말은 곧 ‘새 사람’ 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이 옛 사람이 바로 아담이고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새 사람이신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몸은 우리들입니다. 아담은 아담이 머리이고 인류가 몸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자동으로 옛사람, 아담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간은 옛 사람과 새 사람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옛 사람은 십자가에서 폐기처분 되었습니다. 새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죄의 몸을 멸하여” 이 몸은 창세기 3장에서 죄를 짓기 이전에는 ‘죄의 몸’이라는 타이틀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몸이었습니다. 몸(body), 혼(soul), 영(spirit)으로 인간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창2:17)”,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창2:16)”, 이 말씀들은 “내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요6:63)” 하신 말씀대로 다 영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입니다.

‘나’ 는 지, 정, 의로 구성된 하나의 인격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판단합니다.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으면 죽는다고 하시는구나” 라고 말이죠. 그래서 내 혼은 몸에게 먹지 말라는 명

령을 내립니다. 영, 혼, 몸의 순서대로 통제를 받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나를 지배했다면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왔는지 이브가 선악과를 따 먹게 된 그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브에게 뱀이 나타나서 말을 걸었는데 그 순간에 이브의 영이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뱀을 딱 보는 순간 ‘요놈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인데.’ 라고 생각했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사실은 뱀이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것을 다 먹으면 안 된다고 하시더냐’ 질문했을 때 속이러 왔음을 간파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순진하게도 속임수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마귀가 놓은 덫에 걸려든 것입니다.

그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대꾸를 하더라도 사실만을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만지지도 말라’ 는 말을 첨가했고, ‘마음대로’ 라는 단어는 삭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고 말았습니다. 만일 그녀가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으되’, ‘말씀하시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더라면 마귀가 말씀의 예리한 칼에 베어져 바로 물러갔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브의 마음속에 쓴 뿌리가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아닌 아담을 먼저 지으셨다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자는 가장 신비한 존재입니다. 모든 것들은 흙이나 물에서 나왔습니다. 아담도 흙에서 나왔죠.

그런데 여자는 흙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아담의 뼈에서 나왔습니다. 재

료가 다르기 때문에 여자는 좀처럼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그 지혜롭다는 솔로몬을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남자는 여자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고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쓴 뿌리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마귀가 여자의 특징을 잘 알고 접근했다고 말합니다. 만약 아담에게 접근했다면 “기록되었으되” 라며 답변하여 속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대체적으로 여자들이 말에 약한 것을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결혼하면 골치 아프다는 것입니다. 물론 언제나 예외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자가 더 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는 아버지의 보호 아래에, 결혼 후에는 남편의 보호 아래에 있어야 안전합니다. 특별히 본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어서 독신으로 살겠다는 것 외에 자기중심적으로 살고자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 마귀가 주는 생각은 편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이는 다 이기심에서 비롯된 욕심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결혼을 하게 되면 반드시 분가를 해야 합니다. 성경은 ‘부모를 떠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고 같이 살면 결국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 부모를 떠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브가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의 나무 열매를 따서 먹고서 남편에게도

주어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아담은 존귀한 자입니다(욥 22:8, honourable).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인 이브가 먹고 죽을 것을 알고 아내를 사랑하므로 함께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항상 자신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남자를 찾습니다.

(롬6:6) ... 우리의 옛 사람... 죄의 몸을 멸하여 ...

“죄의 몸을 멸하는” 목적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육신은 나를 부려 먹는 악독한 주인이므로 이제는 새로운 주인 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대로 자유로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축복입니다.

(롬6:7)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 100%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죽는 것뿐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롬6:8)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도, 그분과 함께 사는 것도 사실입니다.

(롬6:9)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

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았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결국은 다 다시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한번 살아나시고 다시는 죽지 않으십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망을 이기시고 정복하셨습니다.

(롬6:10) 그분께서는 죽는 것을 통해 친히 죄에 대하여 단 한 번 죽으셨으나 살아 계심을 통해 친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시나니

죄가 그분을 완전히 죽일수는 없습니다(고전15:55-56). 죄가 침을 썬서 예수님이 한 번 죽으셨으나 이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한 번 죽으셨으나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진리도 가르치시고 기적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믿으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롬6:11)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하며, 여겨야 합니다. 알지 못하고는 믿을 수도 여길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여긴다’ 라는 말은 회계학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장부에 기입한다는 뜻입니다. 여긴다는 말에 속

으면 안됩니다. 흔히 사실이 아니면서 그냥 사실인 것처럼 한다는 뜻으로 사용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여기다”의 뜻은 정확하게 알고 믿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일어난 일, 죄로 인해 죽으셨고, 살아나셨고, 그분이 바로 내 안에 들어오셨고, 그분은 머리 되시고 나는 몸이므로 이제는 공동 운명체라는 사실 말이지요. 이를 사실로 알고 믿었으면 이를 여기고 내 몸을 드러 헌신해야 합니다. 이것을 매일 매일의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산다면 죄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

(롬6:12)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죄가 더 이상 죽은 몸 안에서 우리를 부려 먹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롬6:13)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손, 발, 눈, 코, 입, 몸을 죄에게 내어주면 불의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해서 살아난 자들으로써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라고 하셨는데, 이 ‘드린다’는 것은 내 자신을 향복시켜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입니다. 승리의 비법 3단계는 ‘1. 정확하게 알라, 2. 그리고 여기라, 3. 그리고 내어 드리라’입니다.

(롬6:14)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 죄는 율법을 근거로 하여 우리를 정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로부터 벗어났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을 전체적으로 해설하고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7장입니다.

(롬6:15)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아래서 자유롭게 산다고 했으니 이는 곧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일까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를 짓는다? 아니죠.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가르치는 종파가 있습니다. 죄를 많이 지을수록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양심이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잘못이 잘못인지를 모릅니다. 마귀는 참으로 교활합니다.

(롬6:16)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에게 다시 순종하게 되면 죄의 종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고 주님께 순종하면 의에 이르게 됩니다.

(롬6:17)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

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우리는 과거에 죄에게 몸을 내어주어 죄의 종보다 더한 죄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의 교리를 보고 내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치르신 주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롬6:18)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롬6:19) 너희의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의 영적인 깊이가 얇기 때문에 잘 알아듣지 못하므로 쉽게 풀어서 말씀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전에는 불법과 부정함에 너희 몸을 사용했으나” 예를 들면 과거에는 화투를 치는 데 손을 사용하고 춤을 추는 데 발을 사용했다면, 이제는 그 손과 발을 복음 전하고 전도지 나눠 주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거룩함에 이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실 때 1순위가 간음과 음행입니다. 이것은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니라 본성이기 때문에 통제를 받지 않으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다윗 같은 성군도 죄를 지

었습니다. 이는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마귀가 속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사역자를 쓰러뜨리는 전략은 딱 두 가지, 돈과 여자입니다. 이를 뛰어넘은 사역자에게는 마지막으로 자기 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마지막이 이 생의 자랑이죠? 이 세 가지 전략이면 거의 다 쓰러지기 때문에 마귀는 이를 바꾸지 않고 6,000년 동안 사용해왔습니다. 너무나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롬6:20-21)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그런데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과거의 일들을 통해 얻은 게 무엇인가요. 결과는 사망이지 않습니까?

(롬6:22)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단순한 생명이 아닌 풍성하고 영원한 생명인 영존하는 생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요10:10).

(롬6:23) 죄의 값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값과 선물의 차이는 값을 했으니 주는 것이지만 선물은 그냥 은혜

로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과 7장의 비교

로마서 6장 vs 7장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것인가?	우리의 본성 자체가 것처럼 죄로 가득한데 우리가 죄 말고 할 것이 있겠는가?
죄의 몸에 속박 당함	율법에 속박당함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음	우리는 율법에 대해 죽었음
종과 주인	아내와 남편
우리가 죄로 가득한 본성을 지니고 있음에 어찌 악을 피할 것인가의 문제	우리가 죄로 가득한 본성을 지니고 있음에 어찌 선을 행할 것인가의 문제
우리가 죄에 대해 죽을 것으로 여기고 성령께 내어 드림으로써 문제가 해결됨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음을 알고 우리 자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내주시는 성령께 내어드림으로써 문제가 해결됨

로마서 7장은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해석도 분분합니다. 하지만 로마서 7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걸돌기 쉽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죄의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죄 문제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아입니다. 이 자아 문제가 처리되어야 합니다. 홍해에서 침례를 받으면서 내 자신을 주님과 함께 묻고 죽었기 때문에 죄는 더 지을 일이 없습니다.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롬6:7).” 그러므로 내가 주님과 같이 죽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

면 죄로부터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죄로부터는 해방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의 옛 육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을 의지하여 그분이 나를 통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주님께 나를 의탁할 때만 로마서 8장의 승리의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은혜를 받으면 벌써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헌신기도를 하지만 이 마음이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7장에서 계속 곁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로마서 7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실패하고 자백하고 또 실패하고 자백하는 일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 깨닫는 때가 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워낙 육신적인 삶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 영적인 감각에 둔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사는 듯 하다가 육신적인 삶을 살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면 신앙생활에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피곤해지고 지치기 쉽습니다. 이럴 때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인지, 옛 사람으로서 새 사람의 흉내를 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경험을 통해 배우고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끊임없이 맺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야곱은 찬탈

자였습니다. 엄마 배 속에서 형이 먼저 나가려 할 때 다리를 붙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을 야곱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야곱의 삶은 온 우주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기적인 삶입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의 다루심을 통해 많은 훈련을 받게 되는데 특히 그 도구로 야곱의 네 명의 아내들이 많이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다루실 때 여자만큼 좋은 도구는 없습니다. 야곱도 아내들을 통해 훈련을 받던 어느 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야곱(찬탈자)이라는 이름을 이스라엘(하나님의 왕자)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제 옛 사람 아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야곱 자신의 열심으로 육신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하기에 이릅니다. 하나님과의 씨름에서도 그는 이겨 보려고 하는 엄청난게 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환도뼈(고관절에 해당함)를 쳐서 그가 잘 걸을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지 않으면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필립 안시가 쓴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그러시는 겁니까?”라는 책 제목의 맥락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뜨겁게 섬기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왜 나한테 이러시는 것이냐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고비를 잘 넘겨야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견디라고 하십니다. 이를 잘 넘겨야만 야곱이 이스라엘로 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인격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 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땅을 기어 다니던 벌레가 창공을 날아 다니는 나비가 된 정도의 변화를 겪은 것입니다. 이름을 지어 주신 뒤부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시겠다 하셨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 이후의 야곱의 삶에서도 계속해서 야곱이라고 부르시는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육체 안에 죄가 아직도 머물러 있고 옛 본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옛 본성에서 자유로워지는 체험을 하려면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든지 원점으로 돌아가서 옛날 방식 그대로 살 수 있습니다.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신앙생활이 좀 잘된다 싶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가 싶다가 어느 날 보면 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시는 것을 비율로 따져 보면 약 40%정도 됩니다. 4%도 안 되던 사람이니 엄청난 발전을 한 셈입니다. 육신으로 살 때는 위급하고 다급한 순간에만 겸손해지고 4%만 영적으로 살다가 나중 40%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40%면 굉장한 비율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산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대대적인 영적 부흥이 7차례에 걸쳐 있었습니다. 이때는 설교를 하고 나면 얼마 후 주변의 유흥업소들이 문을 닫는 일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은 라오디게아, 즉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꺼져 가는 불빛이 겨우 유지되는 정도입니다.

프랑스는 레 미제라블에서 묘사된 것처럼 비참한 사람들에 의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 잔인한 결과를 낳았던 반면에 영국은 명예 혁명, 즉 피를 흘리지 않고 개혁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그 혁명의 저변에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요한 웨슬리의 복음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영국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이었습니다. 프랑스의 혁명 정신이 자유, 평등, 박애인데 영국과의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인간적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을 공부하기에 앞서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

인간은 왜 구원이 필요한가? 인간은 왜 하나님께서 도와 주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과 멸망, 저주 아래에 놓여 있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도 하나님 앞에 명백하게 죄인이고 진노의 대상이며 이방인도 명백하게 진노의 대상임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요구하는 의를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를 대신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습니다.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그분의 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입었습니다. 의롭지 않은데 그냥 의롭다고 쳐주는 정도가 아니라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법적으로 완전히 깨끗한 의인으로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께로 옮기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로 옮기는 것을 전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모두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벌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의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어마어마한 축복인 믿음으로 얻는 칭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은혜, 영광, 기쁨 등등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롭다 함을 얻은 자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들을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5장 12-21절까지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그 전까지 아담이 행했던 죄악들 하나 하나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다루고 있는 것은 죄의 뿌리입니다. 죄의 행위 하나 하나가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죄 자체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기도 전에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첫 사람과 둘째 사람의 차이점 7-8가지의 특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6장, 7장, 8장에 와서는 성화, 즉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은 사람이 일상 생활에서 어떤 원칙하에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그 의로움이 바깥으로 드러나는가에 대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즉시로 하늘나라에 가도 충분한데 우리를 그대로 이 땅에 두시는 목적이 바로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임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바깥으로 드러내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와 같은 역할을 맡았던 이스라엘이 오히려 더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며 형편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하는 구실을 제공했다고 로마서 2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우리가 증인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고 있는지요? 나의 언행이 과연 예수님 같은지, 크리스천이라는 호칭에 걸맞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구원받은 죄인일 뿐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물론 대부분은 그렇게 형성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7절이 진정한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왜 신앙생활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7장 24절이 그 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이 대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육신의 자아인 야곱이 죽어야 새 사람이 이스라엘로 살 수 있습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고백이 진심으로 나와야만 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어떻게’가 아니라 ‘누가’입니다. 내가 나서서 무엇을 하든 육에서 난 것은 육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똑같이 육신적 행위이고, 죄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라는 질문을 할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도와서 할 수 있지?’를 생각해야 합니다(롬7:25).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살아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온갖 비난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처럼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데 전혀 역을 할 것이 없습니다.

다윗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윗은 아들인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해 목숨을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이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그를 향해 저주하자 아비새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를 그냥 내버려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신을 저주하라고 하신 것이니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런 처지에 놓인 자신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바라며 그분의 긍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사시며 나도 삽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 있으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만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나 자신으로부터는 어떠한 능력도 없음을 고백하고 그분께 도움을 청하면 그 즉시로 도와 주십니다. 나의 자아가 살아 있는 채로 싸우는 싸움은 죄와 싸우든 미운 사람과 싸우든 다 악한 싸움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항상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선한 싸움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싸움은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야고보서 4장에 나와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6장에서 죄 문제를 해결했지만 여전히 선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아들로 대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로 대우하시는 겁니다. 내가 열심을 내어 해 보려고 했던 모든 일을 내려놓고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가만히 살펴보고 그 속에서 지혜를 조금씩 배워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에 나와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모든 자들이 너희는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리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마11:28-29)” 조금씩 배우면서부터 십자가가 가벼워지고 내 멍에는 쉬워집니다.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쉽고 짐이 가벼워진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영적인 삶이 시작됩니다. 성숙된 삶으로 들어갑니다. 로마서 7장의 주제는 율법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율법과의 관계입니다. 즉 6장 14절을 해설한 것이 7장 전체인 것입니다.

로마서 7장

(롬7:1)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구약의 율법을 알고 있는 자들과 이방인들 중에서도 구약의 율법을 읽은 사람들에 대한 규정입니다. 법이란 그 적용 대상이 되는 사람이 죽으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롬7:2-3) 남편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 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 있을 때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부(姦婦)라 불릴 터이나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현재 남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그 남편이 죽는 것뿐입니다. 그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벗어날 수 없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어 자유인이 되면 다른 남자와 혼인할 수 있습니다.

(롬7:4)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지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

려 함이라.

남편이 죽어야 자유인이 됩니다. 자유인이 되면 “일으켜지신 분”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려 함입니다.

(롬7:5)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우리가 구원받기 전 육신 안에 있을 때는 죄들이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손과 발, 온 몸을 통해 열심히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는 사망이라는 열매를 맺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롬7:6)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붙들던 것” 그것은 율법입니다. “글자의 낡은 것 안에서” 역시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등의 “하지 말라”는 것이 365가지 있고, “하라”는 것이 248가지 있습니다. 총 613가지로 이루어진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하라는 것을 하지 않으며 맹렬히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육신인 죄의 공장은 십자

가에 못 박혀 영원히 폐쇄되었습니다. 옛 사람 육신이 죽었기 때문에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향해 하라, 하지 말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에게는 율법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새 사람은 예수님과 결혼했습니다. 옛 남편이 죽었으므로 옛 남편과나 사이의 관계를 관장하던 법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이 죽었다고 하는데 율법은 죽지 않았습니다. 문맥상나, 즉 자아가 죽은 것이지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죽은 것인가? 성경에서 이를 교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창세기에서의 창조 과정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인간의 몸을 만드시고 그 코에 숨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 숨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2장 1절에 보면 “사람 속에 영을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몸 안에 들어와 그가 살아 있는 혼(living soul)이 되었습니다(창2:7). 이 혼은 지, 정, 의를 갖춘 인격체입니다. 혼은 심리학에서는 자아 혹은 인격 등의 용어로 표현합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이 있는데 그를 속 사람이라 부르고, 겉에 있는 몸을 겉 사람이라고 합니다. 내가 속 사람을 따라 사는가, 겉 사람을 따라 사는가에 따라 나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받기 전에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는 순간에 속 사람인 영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내 혼은 겉 사람인 육체와 들러붙어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가

되어 버린 혼과 몸의 결합을 가리켜 혼인을 했다고 표현합니다. 내가 몸인 옛 남편과 혼인을 한 것입니다. 이 옛 남편은 죄가 지배하고 있고, 그 육체 안에 아예 죄가 거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나에게 죄를 짓도록 노예처럼 부려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게 속박당해 신음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1장 28-29절에서 말씀하는 참 안식이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모든 자들아...” 이 속박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죽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십니다. 성령의 검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검이 나와 한 몸처럼 들러붙어 있던 옛 남편을 둘로 쪼개 갈라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할례를 하듯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골로새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할례”, “영적인 할례”입니다. 느껴지지는 않지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옛 사람과 나를 갈라 놓는 수술을 하여 옛 사람이 죽음으로 내 혼이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로써 내 혼은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었고(골2:11) 셋째 하늘로 올라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율법 자체로는 훌륭하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더 이상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미국에서 시민권을 가지고 미국 시민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 법을 지켜야 할 필요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나에게는 옛 남편의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법만이 적용됩니다. 사랑의 법입니다.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던 여인이 갈 데가 없어서 귀족의 집에 가정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며 열심히 살던 어느 날 귀족의 부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족이 이 가정부를 새 부인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이 새 부인이 귀족에게 주인님이라 부르며 시키실 일이 없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귀족은 당신은 나의 부인이기 때문에 나를 주인이라고 부를 필요가 없다고 말하지만 그 새 부인이 계속해서 예전의 가정부처럼 행동합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서는 아니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그의 부인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옛 남편은 율법으로 나를 혹독하게 부려먹었지만 새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를 주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법으로, 하고 싶으면 기쁨으로 하면 됩니다. 새 남편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뭔가를 굳이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한다면 기도를 하든 교회에서 청소를 하든 다 받으십니다. 내가 하는 일의 동기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했다면 그 일이 무엇이든 다 받아주십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며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아내가 된 사람이 아내답게 행동해야 하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십여 년을 교회에 다녀도 항상 눈치만 보며 가정부 노릇을 하려고 하니 예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고전16:14). 고린도 사람들의 교회는 왜 ‘고린도 교회’가 되었는가? 사랑

으로 일하지 않고 율법으로 일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1-6절까지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내용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율법에 있지 않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7-13절까지는 과거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의 바울,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13절은 과거 시제가 쓰였고 14-25절은 현재 시제가 쓰인 것으로 미루어보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육신적이어서 (14절)”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말하는 “본성에 속한 사람”은 영어로 natural man입니다. 직역하면 ‘자연인’ 이지만 우리말의 어감상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해석하기 쉽기 때문에 ‘본성에 속한 사람’ 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적인 상태 그대로’ 라는 뜻입니다. 즉 새롭게 태어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6절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대로 영적인(spiritual)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영적으로 판단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은 구원은 받았으나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므로 영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 7-13절까지는 본성에 속해있을 때는 내가 이리했었다고 설명을 하고 14절부터는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으로 성숙이 되지 않아 육신적인 사람이므로 결국 자신이 비참한 사람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롬7:7)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

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나를 압박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이 나를 죄 짓도록 유도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육신적이므로 선한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 것이지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에 문제가 있는 듯이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율법 자체는 좋은 것이며 선합니다. 율법 덕분에 죄가 죄임을 알게 됩니다. 거울을 보며 얼굴에 묻은 더러움을 알게 되듯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십계명은 율법을 압축해 놓은 것입니다. 십계명 중에서 아홉 개는 외적인 것입니다. 바울은 겉으로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열째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마음속에 있는 것, 탐심에 관한 계명이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위가 아닌 내면을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사촌이 땅을 사면 함께 즐거워한다”는 식의 속담은 없습니다. 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아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자이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 여인과 함께 간음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속에 있는 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바울조차 지키지 못한 것, 탐심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남의 물건과 남의 아내입니다(출20:17). 바울이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보는 순간 자기 안에 있는 탐심을 발견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롬7:8) 그러나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서 온갖 종류의 욕정

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기 때문이라.

율법이 없으면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율법이 있어야 어떤 것이 죄이고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롬7:9) 전에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내가 살아 있었으나 명령이 오매 죄가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이 없었을 때는 자기 속에 더러운 욕심과 죄가 있는 줄 모르고 자신이 괜찮은 사람인 줄로 착각하고 삽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주변에서 착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으며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 여기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나를 조명하는 순간 마치 영화관의 깜깜한 실내를 영사기의 밝은 빛이 비추듯이 엄청난 먼지, 즉 온갖 추악한 죄들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보니 온갖 더러운 죄들이 가득한 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조차 죄라고 말씀하시는데(잠24:9)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을까요?

죄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이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신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죄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가 다 드러나면 창피하고 겁이 나서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수치스러운 죄를 드러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죄 문제를 지적할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가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때는 각기 다르지만 우리의 영은 각자 죄를 짓는 순간 어느 순간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본성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일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어떤 말씀인지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롬7:10)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정하신 명령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인 줄 내가 알았나니

어느 날 나의 죄들이 모습을 드러내니 말씀의 빛으로 인해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며 죽어 버렸습니다.

(롬7:11)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나는 내 열심을 다해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결국 지키지 못해 하나님 앞에 매를 맞게 생겼습니다. 과거에 내가 율법에 의해 어떻게 죽었는지 그 모습을 바울의 간증을 통해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롬7:12) 그런즉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다.

율법이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롬7:13) 그러면 선한 그것이 내게 사망을 이루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

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을 통해 내 안에서 사망을 이루었나니 이것은 죄가 명령을 통해 넘치도록 죄로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다면 율법이 나를 죽인 것인가?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전부 끄집어내서 내가 죄인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내가 전혀 희망이 없는 상태임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나 대신 죄의 대가를 치르신 분이 계시니 그분을 믿도록 가정교사 노릇을 해 주었습니다. 율법은 나를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했습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줄 몰랐더라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몰랐을 겁니다. “이것은 죄가 명령을 통해 넘치도록 죄로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13절)”

(롬7:14)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우리는 거듭났으나 아직 영적으로는 어렵니다. 13절에서는 죽었으나 여기에서는 거듭남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죄가 나를 속여서 죄에게 팔렸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죄에게 팔아 버렸습니다.

(롬7:15)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 즉 그것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미워하는 것 즉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은 하지 않고 싫어하시는 것은 내가 하고 있습

니다.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일들이죠.

(롬7:16) 그런즉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대해 내가 율법에 동의하노니

율법이 하라는 것은 하려는 마음은 있으므로 율법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롬7:17) 그런즉 이제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를 자기변명이며 책임회피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죽고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가 된 나는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지 않으며 주님을 정말 사랑하므로 그분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음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일은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가 나를 속여서 하게 한 것입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인신매매범을 따라 간 것이 아니라 좋을 것을 준다고 하여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아니라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죄가 나를 속여서 넘어간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며 내가 의도하여 한 일이 아님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롬7:18)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이제 주님께 다가서는 길입니다. 욥은 그 사실을 깨닫기 위해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욥은 너무나 의로운 사람이었으며 훌륭한 성도였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죄가 깔려 있고 위에는 좋은 것으로 덮여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절대 건드릴 수 없는 큰 시련들을 통해 그 아래에 있는 것을 끄집어 내셨습니다.

욥은 자기 의를 내세워서 계속 이를 숨기려고 하다가 결국은 폭발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도 욥과 다니엘, 노아 이 세 사람은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구약적 의미에서 겔14:14). 그 중에 하나인 욥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종국에는 하나님과 정식으로 대화를 통해 의로움에 대해 겨루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의 광선이 그의 안을 비추자 자기 속에 있던 죄들이 발견됩니다. 욥은 아무 변명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지금보다 더한 시련을 주셔도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거룩하신 분임을 인정하겠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몹시 싫어한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내가 비참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가리켜 죄 많은 사람이라고 했던 것과 다 같은 맥락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

람은 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욥은 42장에 가서야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기 위한 도구로 그의 육체 안에 가시를 넣으셨습니다. 평생토록 아프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몸이 아프면 겸손해집니다. 아프면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오직 신음 소리 같은 기도만 흘러나올 뿐이죠.

(롬7:19)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해 본 사람은 18-19절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잘 압니다.

(롬7:20)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또 반복합니다.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주체는 내 속에 있는 죄입니다.

(롬7:21)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드디어 한 법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만유인력의 법칙처럼 절대로 변하지 않는 법을 말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내 안의 죄도 가만히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갑자기 내 안의 죄가 자신과 놀자고 합니다. 항상 옆에 붙어 있습니다. 기도를 하

려고 하면 잡생각이 나고 성경을 펼쳐도 잡생각이 납니다. 설교 시간에도 아마 절반가량은 말씀이 귀를 거쳐만 갈 겁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라(21절)”

(롬7:22)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거듭난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형제들과 교제하는 것과 영적인 일들을 좋아합니다.

(롬7:23)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데도.

내 몸의 지체인 눈은, 성경으로 가는 것은 어색하지만 드라마를 보는 데에는 매우 익숙합니다. 2-3시간도 아무렇지 않게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5분만 읽어도 지루하고 피곤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를 이겨내려면 주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생각은 주님 쪽을 향해 있으나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가 나를 포로로 사로잡아 영적인 것들이 아닌 육신적인 것들을 하게 합니다. 이런 일들을 얼마나 반복해야 할까요? 로마서 공부를 잘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롬7:24)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

라?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것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발견하는 것 말입니다. 바울은 훌륭한 가문, 높은 학식, 그리고 사회적 존경까지 한 몸에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뺨속까지 죄인 중의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가장 성숙했을 때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기록한 책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바울은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고 고백합니다.

예를 들어 얼굴에 먼지가 묻어 있는데 멀리서 보면 괜찮아 보일지 모르나 거울 앞으로 가까이 다가갈수록 자신의 얼굴이 더러워졌음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주님께 매우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내 안의 죄가 더 잘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억지로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숙되어 겸손해져야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교회에서는 겸손한데 가정으로 돌아가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한다는 말을 종종 합니다. 하지만 그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숨길 것이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어떻게 하면 뭘까를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지만, 내가 하려고 할수록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도울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롬7:25)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율법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얻었으며 육신의 법이 아닌 성령의 법을 좇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6장	죄에 대해 죽었음
7장	율법에 대해 죽었음
8장	성령이 주시는 승리 가운데 살아감

성경을 좀 알고 있는 분들은 로마서 8장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장이라고들 합니다. 충분히 근거가 있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에 워낙 어마어마한 내용이 압축되어있기 때문에 이는 한 학기를 두고 공부해도 충분할 분량입니다.

일본의 기독교계의 전환점을 마련한 획기적인 인물로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쓰신 <로마서 연구>라는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량으로 보아도 8장은 그 중심에 있다. 로마서를 산에 비유한다면 8장은 산 정상에 해당하는 절정이다. 그리고 8장부터는 내리막이 된다. 로마서는 신약성경의 중심이며 8장은 로마서의 중심이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은 신약성경의 중심이 된다. 독일의 경건파의 창시자 쉬페너에 의하면 만일 성서를 반지에 비유한다면 로마서

는 그 보석이며 8장은 그 중에서도 가장 반짝이는 부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참으로 이것은 성서의 최고점으로 하늘이 만져질 듯한 꼭대기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의 가치를 알지 않고서는 이렇게 묘사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성경교리에 관해 최고라고 생각하는 피터 렉크만 박사는 만 93세인데(2016. 4. 22. 소천) 성경을 250번 이상 읽을 정도로 열심이 있는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도 로마서 8장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성경 전체에서 Top10에 들어갈 최고의 장 중에 하나다. 구원에 관한 교리의 총체이기 때문이며 교리에 관해 완전하게 정리되고 요약되어 있다.』

이분은 자신의 주석서에서 로마서 8장에 대해 엄청난 분량의 주석을 달아 놓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의 꼭대기까지 올라와있습니다. 정리를 해 보자면 먼저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인데 그분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이미 계시해 주셨으므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무신론자’ 나 ‘진화론자’ 가 될 수 없습니다. 자라는 동안 학교에서 잘못된 정보를 얻고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지면서 비뚤어지고 구부러져 무신론자나 진화론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알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여 짐승도, 인간도 섬기면서 정작 하나님은 버린 상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는 수

없이 우리가 그냥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셨다는 말을 세 번이나 하셨습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영도 몸도 혼도 하나님의 통제로부터 떨어져 나간 그 결과, 우리의 혼과 몸은 들러붙어 하나가 되어 버렸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해서 지상에 내려왔는데 ‘너희도 육체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고 하니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인간은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채 그냥 살아있는 살덩어리, 육체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짐승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숨이 멈추면 죽고 죽으면 흙이 되는 것은 짐승이나 인간이나 똑같습니다(전3장).

살아 있는 생물은 딱 3가지 본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존 본능으로 살아남아야겠다는 본능입니다. 두 번째는 생식 본능, 즉 종의 보존을 위한 번식입니다. 세 번째는 편안하고자 하는 본능입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안 됩니다. 배고프면 먹어야 하고 목이 마르면 마셔야 하며 가려우면 긁어야 합니다. 인간은 편안하게 살기 위해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독이 되어 생명을 단축시키기도 합니다. 땀을 흘리지 않으면 독소가 자연 배출되지 않아 체내에 축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우나에서 땀을 흘리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흘리는 땀은 수분과 영양분이 함께 배출되는 것이므로 건강에 해롭습니다. 일해서 땀을 흘릴 때만 독소가 배출되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프로 그래밍하셨습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기하시고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신 결과 인간의 죄목이 102개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가장 많이 짓는 죄는 음욕, 간음 등 성적인 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범위 내에서 누리면 최고의 쾌락일 수 있으나 이를 벗어나면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가리켜 음녀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미움, 시기, 질투 등의 목록이 쭉 이어집니다. 롬1:29-2:24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가복음 7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시며 13가지 죄목이 나옵니다. 사람 안에는 13가지 죄가 다 들어 있습니다.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고 멋지게 보이더라도 육에서 난 것은 결국 육이고, 성경에 의하면 육은 더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희생물로 몸을 드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전에는 다 더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만 인간의 육체는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숨만 끊어지면 곧바로 땅에 묻히고 부패가 시작되어 심한 악취가 납니다. 육체가 좋은 것이라면 잘 보관할 텐데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육체가 쓰인다는 것은 굉장한 존귀함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두신 결과 인간은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계시되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

지 못한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다른 인간들과의 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관계에서도 인간이 합당치 않고 수평관계에서도 합당치 못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마 22:37)”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쾌락을 더 사랑하죠. 성경은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항상 내가 먼저입니다.

예를 들어 세월호 선장과 같이 우리도 자신을 먼저 챙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 ‘조이 선교회’라고 있는데 JOY의 J가 Jesus를 의미하는데 예수님을 항상 제일 우선으로 생각한다는 뜻이고, O는 Others, 즉 다른 사람들을 두 번째로, Y는 You, 내가 내 혼(너)을 마지막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항상 기쁨이 넘친다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영적으로 아주 건전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긍휼이 많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이 많으시니 이 죄인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이 인간들을 만나 주셔서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인간들도 의롭게 되지 않고서는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무죄 선고를 해야했는데 누가 대신 죄값을 갚을 것인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로마서 3장에서 선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를 대신해서 죽어 줄 수 있는 대속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서

서 자신이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죄인들의 대표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장사 되시고 그 혼이 지옥에 내려가셔서 짊어진 죄짐들을 지옥에 던져 버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짓값을 청산하시고 부활하셔서 셋째 하늘에 가셔서 성령님을 보내시고 사람들에게 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너희의 짓값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치렀다, 네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너의 짓값을 대신 치른 것을 받아들이면 내 아버지께서 너를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 아들로 삼으시고 영원한 복을 주실 것이다.’ 고 말씀하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를 받아들이는 수단은 믿음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간단히 본다면, 이와 같습니다. ‘너는 죄인이다, 아멘. 너는 진노의 대상이며 심판의 대상이다, 아멘. 너의 짓값을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다 갚았다, 아멘. 너를 의롭다 할 수 있는 영수증은 내 아들의 부활이다. 더 이상 짓값을 갚을 필요가 없다. 다 갚았다는 영수증이 있지 않느냐?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은 다 끝이 났으니 내 아들을 구원자로 믿겠느냐? 아멘.’ 이렇게 영접을 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이 유일한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손을 내밀어 믿음으로 받으면 의롭다고 선언이 된다는 것이 로마서 4장까지이고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그 의롭게 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축복이 칭의(의롭다함)로부터 소망에 이르기까지 다 열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축복들이 얼마나 큰 복들인가를 살펴보

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신분이 바뀐 지금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는 여태껏 죄인으로 산 경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본 경험이 없으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처음부터 새로 배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만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면 미국식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므로 처음부터 하나씩 배워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죄인으로 살아 온 것들이 몸에 배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더욱 쉽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영 어색합니다. 그러므로 빨리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야 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함에도 많은 교회들에서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날 가톨릭 신자가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1년 반 동안 성경을 가르쳐서 그가 구원을 받았습니 다. 지금은 다른 곳에서 섬기며 가끔 연락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동창회 모임에 갔다가 어쩌다 보니 예전에 가톨릭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구원을 받고 보니 정말 기쁘다는 내용의 간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친구가 ‘너 구원받았냐?’ 고 묻기에 그렇다고 하니 그 친구가 ‘그럼 이제는 무슨 짓을 해도 하늘나라 가는 것을 알겠구나’ 하기에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배웠다고 계속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 친구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지 잘 몰랐는데, 결국 그 친구의 결론이 뭐냐 하면, 이제는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니 흥등가에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당황스럽

고 놀라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던 그 분은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 친구는 구원받은 것이 맞습니까?” 저 역시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을 받았으나 죄를 계속해서 짓고 양심이 마비되었거나 다른 하나는 구원받지 못했는데 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입니다. 구원이 마치 면죄부를 받은 것인 양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괜찮고, 무슨 짓을 해도 하늘나라에는 갈 수 있으니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초점을 ‘구원받은 것’에 맞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잘못 가르침을 받았고 잘못 배웠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아주 기본적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교회 다니세요, 성경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정도만 가르칩니다. 물론 좋은 내용들이고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것만 하기에는 너무나 초보적인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미국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배워야만 미국 시민으로堂堂하게 자기 역할을 하며 살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게 되면 죄인으로 육신적으로 살다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처음에는 성령님께서 내가 넘어지더라도 손잡아 일으켜 주시고 돌봐 주시는 등 밀접한 보호하심 가운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기도만 하면 응답이 되고, 전도하면 영접을 하는 등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과거의 습관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철야기도, 작정기도 등 스스로 열심히 노력

을 해봅니다. 이런 생활이 몇 년 지속되면 ‘아, 이렇게 살다 보면 주님이 오시겠지’ 하며 답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누구도 명쾌하게 신앙생활의 답을 제시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이론적으로나마 가르쳐 주면 정확한 방법대로 반복하는 중에 신앙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지만 아무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워서 반복적인 실천을 통해 훈련이 되어야만 영적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진리와 교리를 배워야 합니다. 성경은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무엇이 그렇고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을 할 수 있도록 교리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올바른 방법으로 실천을 통해 반복적인 훈련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의롭게 된 신분에 걸맞게 하나 둘씩 배워가면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배우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초청은 죄인들에게 전하는 구원의 초청입니다. 죄의 짐을 지고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는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평안한 안식을 주겠다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이 초청에 응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초청인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내 멍에를 매고’ 인데요. 멍에는 두 마리의 짐승이 십자가형으로 묶여서 지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에 같이 묶여서 따라가야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걱정, 근심, 염려가 내 안에 머물러 있다면 두 번째 초청에 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초청은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라고 하면 겁을 냅니다. 그러나 주님은 겁내지 말라 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30절)”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영적생활에 필요한 필수 과목 다섯 가지를 배우라고 하셨습니다(딤후2:11).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지만 믿음을 행사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12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경건치 아니한 것”, 즉 하나님과 코드가 맞지 않는 것은 모두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옛날에는 이 두 스타일이 너무 잘 맞아서 신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과는 전혀 코드도 맞지 않고 육신의 정욕, 돈의 정욕, 세상의 정욕들로 피 튀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거부하는 것이 자기 힘으로, 즉 노력으로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을 거부하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세 번째는 긍정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구원받았다고 막 사는 것은 안됩니다. 하나는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맑은 정신이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은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아내를 생각해야 하는데 남의 아내를 생각한다는지, 자신의 할 일을 생각해야 하는데 남의 할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러면서 비판합니다. 건전한 것을 생각해야 하는데 허황된 것만 생각합니다. 일확천금을 꿈꾸며 열심히 일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모두 욕심입니다. 성경에 욕심은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는 거부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으로부터가 아니면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지식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가볍게 떨칠 수 있는 방법을 그리스도만이 알고 있습니다. 맑은 정신을 가지고 생각할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항상 올바르게 사셨던 것처럼, ‘의롭게’ 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예수님을 보실 때 항상 기뻐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주님으로부터 잘 배우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목적이라고 계시록 4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라는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즉 하나님의 스타일로 사는 것입니다. 말도 행동도 옷 입는 것도 밥 먹는 것도 하나님의 스타일로 하는 것입니다. 흥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신 스타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예수님 같은데?’, ‘저 사람은 예수님이 사시던 스타일로 사는데?’ 이렇게 생각해서 Christ like people이라는 뜻으로 Christian, 크리스천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크리스천이 되려면 어느 정도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함부로 쓸 수 없

는 단어가 바로 그리스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려면 아직은 멀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열심히 배우지 않습니다. 잘하고 살지도 못하면서 배우기를 싫어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내 명에를 매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배우고 싶은데 명에 매는 것은 싫어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주님에게 붙어서 같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영적이신데 나는 육신적이어서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아 부담스럽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 둘 배워 가야 합니다.

이 첫 번째 과정이 무엇이나 하면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구원받았고,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부터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고 하면서 밤낮 죄만 짓고 삽니다. 자백하고 용서받고 며칠 견디다 또 자백하고 용서받는 생활이 반복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우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D.L 무디, 워치만 니 등 아주 쟁쟁한 그리스도인들, 심지어는 사도 바울조차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죄가 자꾸만 “놀자”, 그러면 “나는 죽었어”라고 대답하고 가만히 있으면 죽은 줄 알고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처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무 간단하게 얘기해서 실감이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죄가 놀자고 했을 때 우리가 손을 내밀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기록되었으되’ 하고 응대했다면 마귀가 말씀의 칼에 베어서 더 이상 공격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갑자기 무릎을 꿇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고 소리친다고 해서 마귀가 물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뽑아 들어

야만 물러갑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다고 로마서 6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살아 있으면 죄를 짓습니다.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간직하고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죄에 대해 죽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하며 열심히 섬기면서 기도하고 성경도 읽고 전도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을 내었는데, 어느 날 보니 “원하는 바 선은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곧 그것을 내가 행하기 때문이라(롬7:19).”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에서 난 것은 육이니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며 내 육체로는 사망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롬7:25).

구원받은 이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살고자 하지만 내 몸의 법은 나를 이끌고 다시 죄의 법으로 끌고 갑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이보다 훨씬 강력한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선한 일을 해 보려고 해도 결국은 밤낮 죄에게 지고 맙니다.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해방시킬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하는데, ‘누구인가?’의 주어가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8장

(롬8:1)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그 답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나 대신 마귀도, 세상도, 육신도 다 물리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 짓는 일에 달인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힘은 제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는 죄인인 나를 죽게 하시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나도 죽게 하셔서 율법이 나를 부러먹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고 부활해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의 능력으로 드러나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지킬 수 있습니다(롬8:4).

33년 반 동안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을 통해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영원한 정죄를 벗어나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여 새 사람이 된 나는 하나님의 스타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살며 1절 말씀처럼 육신을 따라 사는 스타일이 아니고 성령을 좇아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앞선 예처럼 미국에 왔으면 미국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둘째, 전에 살

던 삶의 방식이 아닌 성령을 좇아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롬8:2)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이 삶이 가능한 것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예수님께서 건져 내셨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시킨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더니 예수님께 적용되었던 법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드디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롬8:3)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율법이 육신에게 이렇게, 저렇게 살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포함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613가지의 율법은 세계에서 최고로 수준이 높은 법입니다. 이대로만 하면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신적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구약 때 돌판에 새긴 십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내려오기도 전에 산 밑에 있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숭배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화가 나서 돌판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은 육신적이었습니다. 우리도 3절의 말씀처럼 율법은 거룩하고 훌륭한 좋은 법이나 육신으로 말

미암아 연약합니다. 인간은 나약합니다. 그래서 영은 원하지만 육이 약함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이 능히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대신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일점일획의 오류도 없이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서 33년 반 동안 살면서 율법의 요구를 단 하나도 어긴 적 없고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담은 유혹에 넘어져 죄를 짓고 타락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도 순종함을 통해 죄에 대하여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아담의 핏줄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육신은 똑같은 육신이지만 그 안에 죄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이 죄 짓기 전, 즉 죄와 상관없는 육신을 입고 계셨습니다. 죄가 몸 안에 거하지 않은 상태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예수님의 몸 위에 즉 머리 끝부터 발 끝까지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전 인류의 죄를 모아 놓은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자체가 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롬8:4)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사는데 이 사람들 “안에서” 율법의 요구사항이 이루어집니다. 이제는 “우리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 의해서”라고 말하는 성경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4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삶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핵심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살고 계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이루어집니다. 그 분을 사귀면 사귄수록 점점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혹시 큰 바위 얼굴을 아십니까?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어야지 하며 살다 보니 어느 날 그 얼굴이 자신의 얼굴이 되었다라는 이야기 말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러다 보면 그분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부도 함께 오래 살다 보면 닮아간다고 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다 보면 그분을 닮아 갑니다.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그래서 가장 실체적이고 위대한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의 지배를 받으면 정말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듯이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를 계속해서 밑으로 밑으로 끌어당깁니다. 끊임없이 이 땅

의 것들을 생각하라고 요구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마치 양력처럼 항상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거기에 애착을 두라고 말합니다.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항상 우리의 시선을 위에 두라고 말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공중에 둥둥 떠올라서 초월적인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의 예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눈을 고정시키고 물위를 걸어갑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주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 걸어갑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치니 두려움이 생겨 물속으로 빠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켰다면 병에 걸리거나 힘든 일이 생겨도 능름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선이 다른 곳으로 돌아가면 별것도 아닌 일에 겁이 나고 두려움이 생겨 우리의 마음이 상합니다.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일이 생겨도 주님께 시선이 고정되어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면 어려움 가운데서도 불안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사26:3)”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말기 암 환자 두 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평안한데 또 한 사람은 불안해합니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사람은 말씀에 따라 주님을 생각

합니다. 또 한 사람은 암을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며 불안해합니다. 주님께서 “일어나라” 하시면 나사로처럼 일어날 수 있으며, “올라오라” 하시면 하늘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죽는 것이 이익이라’ 하신 말씀에 따르면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므로 불안하지 않고 평안한 것입니다. 뜬 구름 잡는 소리 같지만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일까 의문을 가집니다. 영적인 일에는 워낙 익숙하지 않은 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위치만 니가 쓴 책,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로마서 6장~8장을 풀어 쓴 것입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데도 항상 바닥을 치는 생활을 합니다. 왜 악순환이 반복되는 걸까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고민 끝에 나온 책입니다. 프란시스 웨퍼라는 사람도 ‘진정한 영적 생활’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 역시 로마서 6~8장을 집중적으로 다루어서 초월적인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일상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저자는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분은 암으로 고통 가운데 투병하시다가 85년도쯤에 돌아가셨습니다.

설교에 보니 유럽에서 사역할 당시 미국으로 집회를 하러 가기 위해 비행기를 탄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웨퍼가 탄 비행기가 대서양을 건너가던 중에 엔진 고장이 났다며 바다에 추락한다는 내용의 기내방송이 나왔습니

다. 그는 놀랍게도 순간적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제가 살 수 있는 시간이 여기까지이면 기도하고 편안히 주님 품으로 가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가 이 땅에서 할 일이 남아 있다면, 주님께서 저를 필요로 하신다면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며 기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고장 난 엔진이 다시 제대로 돌아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내의 모든 사람들은 패닉 상태에 빠져있다가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쉼퍼는 전과 같이 평온했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놀랍지 않은지, 기쁘지 않은지 물어보자 쉼퍼는 내가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는데 아직 이 땅에서 자신이 할 일이 남아 있는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존경할 만한 믿음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생활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죄인의 생활이 몸에 배어 있었다면 공포로 인해 패닉 상태였겠지만 이 영적인 사람은 주님께 모든 일을 맡기고 편안히 눈을 감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 나를 본다면 당신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맞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롬8:5)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나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있는지 성령 안에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롬8:6)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실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롬8:7)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아무리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며 뛰어난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육체에서 비롯된 생각이면 하나님과 원수 된 생각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죽겠다고 했을 때,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며 예수님을 책망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은 것입니다. 베드로의 생각은 아마 ‘예수님께서 인기를 얻어 이제 스타급이 되었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 시점인데 갑자기 죽겠다고 소리를 하시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베드로 안에서 베드로를 지배하는 것은 육신이라는 뜻입니다. 네 안에서 누구의 영이 나왔는지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입에서는 성령이 나갈 수도 있고, 내 인간의 영이 나갈 수도 있고, 사탄의 영이 내 입을 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네가 누구에게 말을 하였느냐? 누구의 영이 네게서 나왔느냐?”(요26:4) 성경 말씀과 어긋나는 말은 모두 사탄의 영이거나 인간의 영입니다.

(롬8:8)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모두 육신 안에 있습니다.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히11:6)**”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삽니다(고후5:7).

(롬8:9)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의 위치는 성령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다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니 다시 성령을 받으려 다니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 안에 계십니다. 잘못하면 다른 영에 미혹될 수 있습니다.

(롬8:10)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로 옛 남편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혼인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옛 남편이었던 우리의 육신은 죽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성령이 나의 생명이 되셔서 그 생명으로 삶을 삽니다. 이것이 진정한 나의 인생입니다. 성령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롬8:11)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있을 부활을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루 하루의 삶에서 육신을 성령을 통해 죽인다는 뜻도 됩니다. 가톨릭에서 자기 몸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것을 영화를 통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금욕주의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영적인 삶을 살 수만 있다면야 좋겠지만 그렇게 해도 육에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자신의 의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인이 고양이가 아니라 강아지를 좋아한다고 해서 고양이가 필사적으로 강아지 소리를 내고 강아지처럼 행동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어느 순간 마당에 쥐가 보이면 고양이는 금세 야옹 거리며 본래 대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그 본성을 어떻게 숨길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생명이 되어 그 생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11절은 13절과 연계하여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 죽을 몸을 살리실 뿐 아니라 매일 매일의 삶에서 성령을 좇아 살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롬8:12)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빛진 자로되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빛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육신에게 진 빛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갚으셨습니다. 육신이 나에게 다

른 것을 더 요구하더라도 우리는 값을 이유가 없습니다.

(롬8:13)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면 물리적으로 몸이 약해지고 상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죄를 지으면 심리적으로 자꾸 움츠러듭니다. 병도 들 수 있고 예정보다 더 빨리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들을 죽이면 됩니다.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 질투, 시기, 욕심, 분노 등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가져가면 됩니다.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고후10:5)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포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인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롬8:14)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며 방언을 받아야 인도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즉시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목자가 양을 이끌고 가듯이 우리를 셋째 하늘로 주님게서 계신 본향을 향해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뒤를 쫓아 조금씩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착역인 하늘나라에 도달하지요.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롬8:15)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속박의 영인 율법은 우리에게 ‘해라, 하지 마라’를 반복했지만 우리는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율법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즉,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런 영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떨게 하는 영이 아니라 양자 삼으시는 영입니다. 어떤 분들은 양자라고 하니까 ‘친아들이 아니네요’라고 합니다. 이는 성경적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아들은 물론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아담의 아들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것, 즉 ‘양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본래의 의미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개념입니다. 친아들은 보통 남녀가 결혼하여 원했던 원하지 않았든 낳게 되는 자식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뜻이지요. 그러나 양자는 신중하게 골라 선택합니다. 만일 양자와 친자가 싸우다가 친자가 자신은 친아들이라며 우위를 주장한다면, 양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너는 어쩔 수 없이 태어났지만 나는 선택 받았어.”

미국의 법은 부모가 친자식에게는 상속을 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양자에게는 반드시 상속을 해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셋째 하늘에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집이 있습니다. 즉 상속 유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양자

이기 때문에 상속권이 있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양자란 법적으로 상속권을 계승 받은 자녀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쓰셨던 용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기도할 때 종종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따뜻한 배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바’ 는 친밀감의 표현으로 ‘아빠’ 라는 개념이고, ‘아버지’ 는 권위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신분이 바뀌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처음에는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냥 ‘아버지’ 이기만 하셨다면 무섭고 근엄한 아버지를 떠올릴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바 아버지’, 즉 하나님을 아주 친밀하게 ‘아빠’ 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갈4:6)

(롬8:16)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의 열매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입증하면 참 좋겠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해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솔직히 한 가지는 테스트 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어리석고 부족합니다’ 라고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 있다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와 관련된 예화를 소개하겠습니다. 예전에 교회를 20여 년 다녔던 어떤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신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는 불러도 아버지라고는 부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지 못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안에는 생명이 없으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분은 끝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완악하여 딱딱하게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믿고 싶다고 해서 언제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고후6:2)

성령께서 마음에 죄에 대한 찔림을 주셨을 때 미루지 말고 바로 즉시로 영접해야 합니다. 실컷 죄 짓고 놀다가 죽기 일주일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늘나라에 가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일주일의 언제인지 알 수도 없을뿐더러, 믿음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믿음이 생겨야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롬8:17)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상속을 받습니다. 이 상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과 하늘에 있는 집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 분께서 자신의 풍성한 공훈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벧전1:3-4). 지금까지는 구원받은 후의 매일 매일의 삶에서 겪는 일들을 롬5:12부터 살펴 보았습니다. 5:11까지는 구원의 과거적 측면, 즉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받은 은혜입니다. 그 이후에는 매일의 삶 속에서 얼마나 거룩한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 갈 것인가를 6~8장에서 논하는데, 8장 18절부터는 미래에 어떤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 끝부분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을 조건부로 생각하여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영광을 받지 못하는 것이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서 8장 전체의 문맥은 우리의 마지막에, 미래에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말씀의 초점은 성령을 좇아 사느냐 육신을 좇아 사느냐에 따라 영광이 주어지는지에 대한 여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절도 보면 ‘정죄함’이 없는 것의 조건은 단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께서 예수님의 몸 안으로 침례를 주셔서 고린도전서 12:13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성령에 의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당연히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에도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 구절에서 육신을 따라 걸으면 정죄함을 받을 수도 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논리를 만들어 버리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는 교리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17절 역시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단 교리가 만들어질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몇몇 사람들에 의해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나머지 성서들에서 8장1절 후반부가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서 살았던 삶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고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보완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17절)”에서 욕기에 인간이 고난을 당하기 위해 태어난다는 말씀을 참고해봅시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고난을 당합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성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각자 고난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다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고난 당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혼자 감당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를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한다거나 더 큰 고난을 당하면’으로 해석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겪는다. 그러나 그 고난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뒤에 어마어마하게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으니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을 따라가자!” 라는 내용입니다. 권면을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서신은 바울이 젊은 사역자인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의 문맥은 로마서 8장 17절 끝 부분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계시록 1장에서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는 다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며 그분과 함께 통치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고난을 당하면 그분과 함께 통치한다, 그러므로 고난 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세상적으로 살면 통치를 하지 못한다.” 라고 해석합니다.

이 구절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의 고난으로 낙심하지 말고 그 후에 주님과 함께 통치할 수 있는 영광을 바라보며 그 소망으로 나아가자고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구절인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인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옥에 가는 것인가요?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설사 우리가 나약하여 그분을 부인할지라도 말입니다. 사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지 스스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결정하고 사는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들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하루에 20번이 있다고 한다면, 18번은 믿음으로 했으나 나머지 2번은 믿음대로 하면 손해가 너무 커서 그냥 믿음대로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을 믿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설령 그러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달리 항상 신실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주었기 때문에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아주 형편없는 자인 줄 알면서도 믿음으로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시므로 자신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볼 때는 문맥에 주의하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지 격려를 하시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롬8:18)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될 수 없도다.

“내가 생각하건대” 여기서 쓰인 동사 reckon은 ‘믿는다, 여긴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내 주머니에 백 원이 있어서 회계장부에 수입액으로 100원으로 기입할 때 사용하는 회계용어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이 단어가 ‘여긴다’로 번역되어 있는데 약간의 의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현재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의 신분은 획득했음에도 그 신분이 주는 권리를 아직은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살면서 신분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왕 노릇은 미래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기본적으로 고난을 겪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받

는 고난까지 더해져서 겪어야 할 고난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 예수를 믿는다면 하는 일마다 잘 되지 않는다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일이 더 잘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현 시대의 고난은 나타날 미래에 있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이죠.

고린도후서 11장을 읽어보면 바울이 받은 고난의 목록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정말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 일들이 즐비합니다. 고린도후서는 두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책입니다. 먼저는 사역을 위한 사역자의 책이라는 점입니다. 사역자가 자신의 사생활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는 많이 읽으면서도 고린도후서는 사람들이 잘 읽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 드린 것과 같이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이 싫어하는 탓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이런 고난 속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았다면 나는 나의 여건과 환경에 대해 핑계 댈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므로 유익합니다. 바울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내가 미혹에 넘어져 힘든 것은 나의 책임이지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느냐며 탓을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롬8:19-22)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작스럽게 창조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창조물(Creature)과 창조세계(Creation)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자면, 창조물은 생명체에 대한 이야기이고, 창조세계는 산, 들, 별, 무기물까지도 포함한 포괄적인 이야기입니다. 날아다니는 새와 벌, 파리 등등 지금 다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지만 아직은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형성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갈4:19). 마치 씨앗처럼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으로 들어오셔서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에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나 우리에게나 드문 일입니다. 성경에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시므로 믿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아들이 장성하여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 순간에 홀연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날을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주로부터 해방되어서 완전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등장할 때를 기다립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입니다. 새들도 짐승들도 바로 그날이 되어야 이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생태계 파괴,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

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땅의 모든 생태계가 썩어가고 오염되는 원인은 인간의 타락으로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간들이 그 부패하는 속도를 늦추기 위해 여러 가지로 힘쓰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들로 시간을 조금 벌 수는 있으나 완전한 회복은 불가능하며 결국은 쇠퇴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에야 비로소 완전히 치유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20절)” 이 말씀에서 ‘헛된 것’이 무엇인지 창세기를 통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형태가 없고 비어 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비어 있다는 것은 공허하다는 의미이죠. 또 전도서에서는 ‘모든 것이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솔로몬의 유명한 탄식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 그가 가진 참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썩고 병들어 버렸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우주로부터 방사선이 차단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발효라든지 부패라는 개념이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모든 것이 다 회복되려면 만물의 영장인 인간, 즉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 삼은 그 자가 정신을 차려 회개하고 구원받아 완전히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 이 땅을 되찾아야만 합니다. 성경에 ‘중생’이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오는데 영어로는 regeneration입니다. 이 단어는 디도서 3장 5절에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 즉 거듭남’에 쓰였고 또한 자연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때 회복되는 것을 두고 쓰였습니다(마19:28).

우리는 현재 분명 구원을 받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혼의 구원이 이루

어진 것이고, 우리의 육신은 아직 영적인 몸으로 변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창조 세계의 중생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이 완전히 영광스럽게 되는 순간 물리적인 세계도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구원에 대하여 ‘구원받으면 하늘나라에 간다’는 단 한 가지 사실만 알고 있다면 구원을 1%도 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은 최종적으로 생체계까지 영향을 미쳐서 완전한 회복을 이루게 합니다. 온 우주가 아름다운 회복을 합니다.

물리학에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썩음의 법칙입니다. 이는 성경에 죄의 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썩고 부패하며 낡아집니다.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자, 다시 위로 올라오지 못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장 멍청한 사람들이 진화론자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저절로 좋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의 상태보다 더 낮게 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육신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 절대 상태가 좋아지지 않고 점점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언제나 밑으로 내려가지만 이제는 성령님께서 거하시고 새롭게 거듭났으니 위에 있는 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망 중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만물들이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

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할 그 날을 모두가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과 심지어는 창조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삼천리 금수강산도 예외 없이 다 썩고 파괴되어 가고 있지만 회복되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소위 중독 물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물질에서 특정 성분을 추출하여 마약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로 인한 피해가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합니다. 자연 과학은 이런 중독 현상에 대해 그 원인을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은 많은 약물들로 중독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창세기 3장에서 죄로 인해 이 땅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즉 엔트로피 법칙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완전히 해방되는 순간 모든 저주가 풀린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때 모든 중독된 것들도 다 해방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죽으면 하늘나라에 간다는 말만 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이 없느냐고 질책합니다. 결코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이 아름다운 산하를 보전하는 방법은 우리가 빨리 성장하여 예수님처럼 변화하는 것입니다. 물론 생태운동을 통해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나쁠 것은 없습니다. “산고(22절)”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가, 한 생명이 태어날 때 있게 되는 고통입니다. 이 자연도 신임하고 있다가 영광스럽게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산고’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현재에는 자연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첫째로 모신 우리도, 세상 사람들도 탄식과 신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롬8:23)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지만 우리의 몸은 아직도 여전히 구속받지 못한 채 죄가 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오르락 내리락 기복이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하면 자신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여 이 들쭉날쭉한 기복이 사그라지면서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음함면서 ‘양자 삼으심’이 몸의 구속으로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합법적으로 상속자의 모습을 갖추도록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누가 보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지금은 그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롬8:24)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아직은 우리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소망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면 그것은 더 이상 소망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롬8:25)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세상에서 말하는 소망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비가 오기를 바라는 소망은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소망은 하나님이 곧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다’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소망은 혼의 닳과 같다고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틀림없이 이루어질 소망이기 때문에 인내로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롬8:26)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이 구절을 읽을 때면 항상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혼자 외로이 기다리며 힘들어하니 성령님께서 우리 옆에서 함께 신음해 주십니다. 마치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누군가 옆에서 하소연을 들어주는 것처럼 함께 아파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구약에서도 연약한 사람을 도우십니다. 추수 때에도 그들을 위해 일부러 이삭을 땅에 떨어뜨리라고 하십니다. 우주의 최고 통치자이신 분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내 안의 연약함까지 도우시기 위해 성령님을 내 안에 주셨습니다.

(롬8:27)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이 땅에서는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므로 나약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닥치고 너무나 힘이 들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기도를 해도 이 고통 속에서 빨리 벗어나기만을 구합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 해결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머리카락도 세시며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다 아시는 분께서 여러분과 제가 그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것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가만히 계시는 걸까요?

분명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만큼이나 눈높이를 낮추셔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잘 걸러내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으로 바꾸어 올려 보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자식이 달라는 대로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기도한 대로 주신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 보기에는 그것이 거의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결혼 전에 너무 똑똑한 아내는 싫었습니다. 누가 저에게 싫은 소리 하는 것을 못 견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적당히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매우 똑똑한 자매를 아내로 주셔서 저의 허점이 마구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주위 사람들은 저에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칭찬을 해 주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내를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가까이에서 누군가가 오랫동안 지켜봐 주어야 합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좋은 모습만 보게 되면 참 좋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기 아내로부터 칭찬 받는 남편이라면 그는 정말 좋은 사람일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 그런 이는 천 명 중 한 명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칭찬받는 아내는 이천 명 중에 한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는 기대할 것도 실망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사랑해야 하는 대상일 뿐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27절)” 성령님께서 신음으로 기도하시는 것을 아버지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께 ‘어떤 이의 기도는 무슨 내용인데 이렇게 기도가 올라왔습니다, 저이의 기도는 이런 내용입니다. 받아주십시오.’ 하고 중보하십니다. 그러면 100% 기도가 응답됩니다. 이것을 알면 기도가 쉽습니다. 잘못된 기도일지라도 성령님께서 고쳐서 올리시기 때문에 응답이 됩니다. 우리 안에서는 성령님이 기도하시고 하늘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은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롬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 이후에는 사랑하지 않고 조금은 나태했으나 믿은 순간에는 분명 하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이 구절은 가장 위대한 약속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남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속된 말로 자신은 엉망으로 살아놓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 하고 편한 대로 생각

해버립니다. 이것은 그렇게 사용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오히려 갈라디아서 6장 7절이 더 잘 어울릴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지, 팥이 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는 좋은 것도 분명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의외로 더 좋은 일들도 있습니다.

특히 기도 응답에 대한 내용으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엡3:20).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선을 이룬다는 것은 좋은 것뿐 아니라 나쁜 것도 주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상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결국은 합해서 나에게 유익한 일이 된다는 의미이죠. 어떤 사람은 그 유익을 자의적으로 생각하여 세상적으로 출세를 한다든가 돈을 많이 버는 것으로 단정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은 당연히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구원받은 순간 예수님을 우리 안에 보내 주셔서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빌1:6)”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 최고의 선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행복한 일, 불행한 일은 다 결국 내가 예수님을 닮는 데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은 잘 안 되더라도 나중에는 다 성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에서 이 구절의 참된 의미를 모른 채 그저 나중에

는 결국 성공한다는 식의 잘못된 해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세상 사람들에게조차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너희가 새벽기도 하며 복 달라고 하는 것이나, 정화수를 떠놓고 비는 것이나 절에 가서 불상 앞에 엎드리며 비는 것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합니다.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정말 매력적인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된다면 다 그분에게로 오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지 아닌지는 다른 사람에게 왜곡되어 일그러진 예수님을 보여주었는지 진정한 예수님을 투영하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 책임이 엄청난 겁니다. 어떤 집은 아버지는 인품도 훌륭하고 대단한데 자식이 형편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아버지까지 욕을 먹게 됩니다. 지금 현재의 유대인과 교회도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롬8:29)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미리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구절만 잘 이해하시면 예정론에 대한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칼빈주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갈 것인지 지옥에 갈 것인지가 미리 예정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예정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총 5번 나오는데 이는 모두 믿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닮게 될 것이라는 맥락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지옥에 가고 하늘나라 가는 일이 예정되어 있다는 말이 없습니다. 칼빈이

잘못된 교리를 만들면서 참으로 많은 이들이 말씀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가 분명 잘한 것도 많지만 성경에 어긋나는 일도 많이 했습니다. 이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 시대에 이 땅에 천국을 세운다며 제네바를 기독교 도시로 만들어 시장 노릇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며 설교 도중 줄거나, 어린아이가 울거나 하는 등의 일이 발생하면 감옥에 보내거나 매를 때리는 등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스페인의 세르베투스가 자신과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그의 화형에 동의하는 엄청난 일도 저질렀습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지 않아도 될 오해가 생기며 이단이 생겨납니다. 교활한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마귀들의 교리를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도 유심히 귀를 기울이며 마귀들의 교리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항상 성경 말씀과 대조해서 살펴보았던 베레아 사람들을 본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의 깊게 성경을 찾아서 성경과 설교가 일치하는지 대조해보았던 이들을 가리켜 noble, 즉 아주 고귀한 자라고 칭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귀한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항상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 진리가 아니면 행동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마음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곧 noble, 귀족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정’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운명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성품 자체도 원수를 사랑하는 수준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

님이 만아들 되시고 우리는 동일한 성품과 생명을 지닌 아들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지닌 사람들이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이 사실 그런 세상이지요.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이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지만 소용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유전자를 조작한다고 해도 좋은 사람을 만들 수 없습니다.

(롬8:30)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영화롭게 되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이 이미 다 끝난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하게 되었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합니다(히10:14).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바라보실 때는 예수님과 똑같이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항상 무릎 꿇고 ‘아버지’ 하고 기도를 하면 셋째 하늘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고 있기 때문에(갈3:27)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드님 대하시듯 대해 주십니다.

영광스럽게 되는 일은 하나님께서는 다 끝난 일이지만 우리에게만 미래적인 일입니다. 다 이겨 놓은 싸움을 하는 것과 같죠. 믿음으로 가면 모든 신앙생활이 쉬워집니다. 실제로 히브리어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언

어입니다. 그리고 31~39절까지는 정말 복된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구원의 필요성을 말씀하고 죄인이 구원받는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믿음으로 선물을 거저 받으면 되고,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을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 다윗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칭의의 결과가 얼마나 복된 일인지 11절까지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아담 속에 속해 있다가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 왔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세상의 인간은 돌밖에 없습니다. 집합적입니다. 개인은 70억, 90억,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이 400억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아담에 속해 있으면 아담,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 왔으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으로서 십자가에서 첫 번째 아담의 실패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부활하시면서 둘째 사람으로 첫 사람과 다른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셨고 만아들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둘째 인류에 속한 자가 되었는데, 이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위나 신분을 박탈하거나 빼앗아 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자기가 하신 말씀에 책임을 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한 최종적인 결론을 말씀하는 순간에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어 주십니다. 로마서의 이 구절을 읽고도 “하나님께서 날 버리시면 어떡하지” 하는 것은 신경쇠약이라고 보고 정신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목회자가 영적인 문제인지 정신적인 문제인지 구별하지 못하면 모든 문제를 전부 기도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치료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화가 되지 않으면 약을 먹고 속이 편안해지듯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면 치료를 받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울증이 왜 생기는 걸까요? 호르몬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면 뇌를 자극하는 약을 조금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왜 정신과에 가기를 꺼려할까요?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기도하면 낫는다며 때리고 두들겨서 병증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서울대 정신과 의사인 분이 신학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어 <정신병인가 귀신들림인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는 정신병인데 구분을 못하고 기도로 해결하려는 목사, 영적인 문제인지 잘 모르고 정신병원에 가게 해서 약을 먹게 만드는 정신과 의사를 지적합니다.

우리는 영, 혼, 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람마다 매우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어릴 적에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자란 탓에 남자를 보면 괜히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여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착한 남자와 결혼했어도 남편이 조금만 큰 소리로 말을 하면 매우 무서워합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겪은 두려운 경험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증상은 정신과 의사의 도움을 받으면 치료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것이 죄와 관련된 문제일 때는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해야 합니다. 같은 저자가 쓴 <그리스도인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라는 책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 전문적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 <구원 이후에>

는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될 만한 책으로 어떻게 성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쓴 것입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롬8:31)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를 위해 주시며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고 강하신 분임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 분 앞에 능히 대적할 자가 없지만 마귀는 무모하게도 아직까지 그분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옷을 입고 주의를 기울이며 말씀의 검으로 그를 물리쳐야 합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마귀가 지게 되어 있습니다.

(롬8:32)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아들을 온 세상의 상속자로 삼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온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 아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너무나 명백한 논리가 전개됩니다.

(롬8:33)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여기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이라고 복수로 말씀하셨습니다. “God’s elect”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개체로 한 사람씩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셨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선택된 것입니다. 영적인 진리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사야서 42:1절에서 “나의 선택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온 우주의 상속자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온 우주의 재판장께서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근거로 우리에게 의롭다 선포하셨는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있을 리 없습니다.

(롬8:34)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감히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재판관께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구원과 칭의는 겹겹이 아주 확고하게 보장해 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설령 마귀가 이런 생각을 넣어준다고 하더라도 뿌리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롬8:35-39)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 놓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것은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 놓지 못하리라.

이 모든 것의 근간은 하나님의 본질적 성품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누가 감히 그분의 사랑을 끊겠습니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서 누가 떼어놓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바울은 환난, 곤경, 핍박, 기근, 벌거벗음, 위험 등의 고난을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을 바울도 그대로 겪었습니다. 이 모든 고난을 그냥 겪은 정도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고도 남았습니다. 주님의 성품은 항상 풍성하고 넉넉하기 때문에 오천 명을 먹이고도 열두 광주리에 가득히 남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3장, 6장에서 이것을 남용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지었지만 이 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용서해주신다면 그만큼 더 은혜로운 하나님이라 찬양을 받으시겠지. 그러니 더 죄를 지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 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순종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십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바울은 단호히 말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런 자들이 많습니다. 단번속죄로 자신들의 죄는 모두 사함을 받았으니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논리를 펴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많습니다. 구원이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는 면죄부 입니까? 그리 생각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의 경고만 제대로 들었어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며 진노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둘째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물건 취급한 죄입니다(예:중요, 인신매매, 폭력 등).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본래의 모습으로 올바르게 대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땅의 불경건과 불의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요3:36)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올바로 경배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바르게 대하는 것 즉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니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발상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교리적인 면에 대해 공부해 보았습니다. 실행에 관련된 이야기는 12장에 있습니다. 9-11장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인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계획, 하나님께서 지향하시는 경영 방침이 나와 있습니다. 하

나눔께서 시대별로 대상에 따라서 사용하는 경영 방침을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륜이 조금씩 바뀌어 갑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구약과 신약으로 완전히 다른 경륜인 것입니다. 구약은 ‘하라’ 중심이라면 신약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한 하나님이지만 다릅니다. 인간이 죄 짓기 전과 죄 지은 후, 율법을 받기 전과 받은 후,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 교회가 휴거되기 전과 휴거된 후 각각의 시기마다 하나님의 경영방침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와 관련된 예화를 소개하겠습니다. 독일이 통일되기 전 프리드리히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 황제가 궁정 목사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는 유대인의 역사를 성경과 비교하여 보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장인 9장, 10장, 1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구원이 왜 유대인에게서 오는지를 알게 됩니다. 기독교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왜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에 관심이 많고 그들의 하나님만 찾느냐고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 대해 공부해보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는 교리적으로 1장부터 8장까지 구원에 대해 말씀합니다. 구원의 교리를 세 가지로 간추려서 정리해보겠습니다.

1. 죄로부터 구원받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칭의, 의롭다 함을 얻게 되

었습니다.

2.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성화에 대한 것을 다루었습니다.
3. 마지막으로 영광스러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려면 어떻게 인내하고 탄식과 기도와 더불어 승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과,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 12장으로 건너 뛰어 우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삶을 살 것인지, 특히 혼자가 아니라 지체들과 더불어 지역 교회를 이루고 그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 구체적이고 체험적인 교회생활이 12-15장에 걸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 부활하심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게 된 것은 그에 앞서서 진행해 오던 계획을 고려해 보아야 잘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의 창조와 창세기 3장에서의 타락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에서부터 이방인과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영 방침이 각기 다르다는 것까지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히려 진노의 대상이자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지혜로 이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해결하여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있게 되었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때마다 타락을 거듭하여 심판 받았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창세기 1-11장까지 이어졌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하나님의 경륜을 바꾸셨습니다. 인간은 민족들로 구별되어 10장에 보면 노아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민족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민족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 때 이후로 인간은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께 반역하려고 합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인간이 편리하게 모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항상 영적 타락을 불러옵니다. 그 면에서 보자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가장 암흑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이며 해가 떠 오르기 직전 가장 어두운 새벽입니다.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되어 버린 데에는 이 교통, 통신의 발달의 기여가 크고 이에 대해서는 이미 다니엘서 12장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지식이 증가하며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왕래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하나 되어 죄를 짓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을 흩어 버리셨습니다. 땅도 쪼개져서 지리적으로 이동할 수 없게 만들고(대륙이동설 참조) 언어도 소통하지 못하게 만들어 완전히 단절되도록 말입니다. 이때가 되어야 인간은 비로소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인간은 외롭게 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외로움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가장 수가 적고 가장 별 볼 일 없는 민족을 뽑아 선민으로 택하셨습니다(신7:7, 고전1:27 참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다릅니다.

제일 형편없는 민족을 뽑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하게 하시겠다는 전

락입니다. 다른 강대국들이 볼 때 의문을 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들 뒤에 과연 누가 있기에 저들을 강하게 하는가? 자신들의 신보다 더 강한 신이 있나 생각하게 만듭니다. 참 하나님이신 이분이 누구이신지를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이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선민으로 뽑힌 것은 수가 작고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기 위함인데 자신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뽑힌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우상들이 지배하는 땅에서 불러내어 강을 건너게 합니다. 이 ‘강을 건너다’는 말이 히브리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히브리 민족은 강을 건너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이 민족을 택하여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나타나시며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고 율법도 주시고 환상도 보여주십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도록 이스라엘에게 책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부르신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이방 신들을 섬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 진노하셨지만 이내 그들의 믿음이 약한 것을 아시고 왕을 세워 주셨고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훈련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하는 바람에 하나님을 제대로 증언하기는커녕 오히려 왜곡된 모습을 나타내어 그분을 욕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4절에서 너희들 때문에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신약적으로 적용하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반가워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오히려 경계를 하거나 멀리하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좋은 간증으로 덕을 끼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출애굽 당시 남자 60만명 중에서 단 두 명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으니 확률적으로 보아도 매우 낮은 확률입니다. 지금도 상당히 소수의 사람들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한 이스라엘 즉 유대 민족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실패와 인류의 실패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갚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집트에 보내시고 그곳에서 많은 수의 민족을 형성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제사장 국가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들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은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신학적 견해가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언약 신약의 장로교회를 포함해서 로마 가톨릭, 그 외에도 대다수의 개신교가 이스라엘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했던 모든 축복과 약속은 영적인 이스라엘인 주님의 몸 된 교회에게로 다 이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성경적으로 결정적인 오류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부른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신 적이 없다는 사실과 그들을 매를 때려서라도 회복시키셔서 원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책무를 그대로 수행토록 하시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과거는 어떠했는가? 지금 현재는 왜 이런 모습일까? 그러면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에 대한 답을 알아야 하나님의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의 완성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치자면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해 원수 된 자들이지만 선택에 대하여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는 자들이니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롬11:28-29)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마다 방해했습니다. (그 방해꾼 중 하나였던 바울은 회심하여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의 원수 노릇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했느냐를 봐야 합니다.

수없이 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조상으로 둔 선택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은 불효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아들로 입양하셨는데 그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아

들이 아니라고 부정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아들 역할을 해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본래 이스라엘에게 부여하셨던 증인의 역할을 다하게 하실 겁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성경 전체의 최고의 진술을 로마서 8장 31-39절까지 전개했습니다. 이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보장한다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복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기민족을 생각하니 바울의 마음은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에서 제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가장 멀리 떨어져있고, 자기민족의 일원으로 직접 찾아오신 메시아를 내팽개쳤으니 이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불같이 타올랐던 것입니다.

로마서 9장

(롬9:1)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거니와

바울은 이방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그렇다고 유대인들을 미워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제 와서 갑자기 유대인 편을 들면 가식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감히 가식을 떠는 것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양심은 더럽혀진 양심이며 악한 양심입니다. 그래서 양심은 자신에게 유리할 때에만 작동을 하다가 조금 불리해진다 싶으면 금세 작동을 멈춥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속인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아주 예민한 양심으로 자신을 솔직하게 들여다봤지만, 맹세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에 의해 깨끗하게 정결케 된 양심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롬9:2)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바울이 말합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설파하고 나의 영원한 아름다운 미래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기쁨이 넘치지만 동시에 내 속에는 고통과 슬픔이 존재하노라.”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제, 자매, 친구, 친지 등 잘 아는 사람들 중에 아직 구

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즐겁게만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도 바울의 마음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문제가 마음을 무겁게 짓눌러 괴롭고 슬프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힘들어하다가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습니다. 복음도 전하고 기도도 하지만 될 대로 되라는 심정이 되기도 합니다. 마음은 이해되지만 이는 마귀가 부추기는 마음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야 합니다.

(롬9:3)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는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에 따른 형제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저주 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랬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그런 마음까지 들었겠느냐는 것이지 실제로 바란 것이 아닙니다.

(롬9:4)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권층 중의 특권층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알아봤어야 할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강박해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무려 8가지나 됩니다.

이방인들은 생각도 못할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양자 삼으심”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양자 삼으신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집합적으로 맡아들로 삼으신 것이고, 신약시대의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고 요한 복음에서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양자의 영을 부어 주셔서 우리는 양자의 권리를 취득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양자 삼으심과 9장에 나오는 양자 삼으심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다르다는 것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인데 이것을 놓치면 성경에서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출애굽기 4장에서 이스라엘을 맡아들로 삼으시겠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입니다.

둘째는 “영광”입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 번 나타났고, 성전 건축을 했을 때도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우상숭배를 했을 때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버렸다고 했습니다.

셋째는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 모세와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 등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한 민족은 이스라엘이 유일합니다.

넷째는 “율법”입니다. 시내 산에서 율법을 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다섯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를 말합니다. 우리

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만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25-40장까지 성막을 짓는 설계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성막을 짓고 실제적으로 제사장을 세워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알려 주셨습니다.

여섯째는 “약속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많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미 지키신 것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도 있습니다.

(롬9:5)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일곱째, “조상들”입니다. 유대인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 야곱, 이삭 등 하나님과 매우 친밀하게 지냈던 조상들을 둔 엄청난 민족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여덟째로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을 때 수백 개의 민족들 중에서 유대 민족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이에 요한복음 4장 22절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랑스러운 민족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도 엄청난 일인데 심지어 유대 민족의 일원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영광과 자랑스러움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롬9:6-7)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한 것 같지 아니하니 이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이들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이삭 안에서 네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선민을 조상으로 두었고, 육체적으로 그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전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첫째이고 이삭은 둘째인데도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고 육체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삭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녀라 불렸습니다. 육체적으로 태어난 자들은 비록 조상이 육체적으로 유대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롬9:9-10) 그 까닭은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기 때문이라. 곧, 이때에 내가 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뿐 아니라 리브가도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으로 말미암아 수태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선별작업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 이삭만 인정하신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아무런 상관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태어났습니다. 사라는 현대 의학적 관점에서 불임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함을 얻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라의 태를 여셨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 자식을 얻으려 했고, 그 결과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특별하게도 둘째 우선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처음에 가인과 아벨 두 형제 중 첫째였던 가인이 실패했던 것을 기억해보십시오. 또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과 이삭에서 이스마엘이, 에서와 야곱 중에서는 에서가 실패했죠. 첫째 아담은 실패작이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그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특별하게도 둘째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이 원칙을 고수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 십니다.

이삭 역시 20년 동안 아내인 리브가가 불임여성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간섭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택하 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결국은 기적적인 방식으로 리브가가 아들을 낳게 됩니다.

(롬9:11) (그 아이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으되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때에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셨나니

에서가 무엇인가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신 것뿐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미리 알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올바르게 판단하십니다.

(롬9:13) 이것은 기록된바, 야곱은 내가 사랑하되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에서는 잘못된 것도 없이 하나

님으로부터 미움을 받았단 말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불공평하신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제일 쉬운 방법은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불공평하게 하실 분이 아니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가지 않을 때는 이렇게 넘어가면 될 터인데 이를 억지로 이해해보려고, 인간의 생각으로 철학으로 해석하려다 보니 하나님을 곡해하게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두 아이는 성경에서 두 민족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다 정해 놓고 이 땅에 태어난 개개인을 때로는 지옥에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하늘나라로 보내기도 하시는 분으로 아주 비약해서 가증스러운 교리를 만들어 냅니다. 그러면 그냥 태어나서 살다가 “너는 지옥에 가는 것으로 이미 정해져 있다” 하여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에 갈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매우 사악한 교리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너무 쉽게 이런 교리를 받아들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며 선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과연 인간을 이렇게 악하게 대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하실 분도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민족과 민족을 다루시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통치의 원칙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개인의 혼의 구원을 적용하여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겁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물론 미리 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서와 야곱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창세 전부터 이미 지옥에 갈 사람과 하늘나라에 갈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시점은 이미 어머니 배 속에 잉태되어 있는 시점입니다. 창세 전이 아니라 이미 시간이 흘러서 역사 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에 대해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누군가를 선택하는 문제에서 결코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심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도 미리 어떤 삶을 살 것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정하신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똑같은 아담의 속성을 지닌 타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것에 마음이 더 있었고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이것도 육신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것 즉 장자권에 도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는 자를 택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 있는 미리 아심이라는 교리를 인정한다면 설명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전혀 손대지 않아도 모든 것을 정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를 극단적 칼빈주의로 몰고 가서는 안 됩니다.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교리입니다(엡1:4). 그런데 이에 대한 단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다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입양되어서 상속을 받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

스도를 닮게 되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정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정이라는 단어가 다섯 번밖에 쓰이지 않았습니다. 이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구원받은 자들이 반드시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을 예정해 놓았다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지옥으로 가도록 예정되었다는 말은 단 한 군데서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그 한 구절(엡1:4)만 조심스럽게 읽어도 칼빈의 예정론이라는 교리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롬9:14)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있을 수 없느니라.

사람들은 에서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싶어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롬9:15) 그분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시나니

하나님께서서는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불쌍히 여김을 받을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롬9:16-18) 그런즉 이와 같이 그것은 원하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고 달리는 자에게서 나지도 아니하며 오직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내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너를 일

으켰나니 이것은 내가 네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두루 밝히 알리려 함이니라, 하시나니 그런즉 그분께서 공흘을 베풀 자에게 공흘을 베푸시고 또 강박하게 할 자를 친히 강박하게 하시느니라.

성경에 보니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셨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역시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그렇게 만드셨으니 파라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파라오가 스스로 마음을 강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적 차원에서 마음을 더욱 강박하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예정론은 마귀가 사람들을 헛갈리게 하려고 만든 것입니다. 예정론은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될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적용될 교리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예정하신 그대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롬9:19) 그러면 네가 내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분께서 여전히 허물을 찾으시느냐?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였느냐? 하리니

하나님께서 정해 놓았으면 파라오가 아무리 회개를 하려고 해도 그러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롬9:20) 아니라, 오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어진 것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 하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올바른 판단을 하십니다. 만드는 자가 무엇을 만드시든지 만들어진 그릇이 무슨 자격으로 이러쿵저러쿵 중언부언 하는지요?

(롬9:21) 토기장이가 같은 덩어리의 진흙으로 한 그릇을 만들어 존귀에 이르게 하고 다른 하나를 만들어 수치에 이르게 할 권한이 없겠느냐?

만드는 자가 하나는 쓰레기를 버릴 그릇을 만들고, 또한 귀한 것을 담은 그릇을 만들기도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롬9:22-23)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고 자신의 권능을 알리기 위해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에게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고 이로써 영광에 이르도록 자신이 미리 예비한 긍휼의 그릇들에게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려 하셨을진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자기 뜻대로 하신들 만들어진 물건이 만든 이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롬9:24-25) 이 그릇들은 곧 우리니 즉 그분께서 유대인들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니라. 이것은 그분께서 호세아의 글에서도 이르시되, 내가 내 백성이 아니던 자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며 사랑받지 못하던 그녀를 사랑받는 자라 부르리라.

하나님께서서는 유대인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부르셨습니다. 실제로 구약성경에 보면 이방인들 중 구원받은 자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며 사랑 받는 자라고 하십니다.

(롬9:26-28) 또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곧 거기에서 그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리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한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쳐 이르되,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그분께서 그 일을 끝마치시고 의 안에서 그것을 단축시키시리니 이는 단축된 일을 주께서 땅 위에서 이루실 터이기 때문이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사람은 모두 다 택하신 것인가? 아닙니다. 이스마엘과 에서가 배제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는 배제시키고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이 남은 자가 바로 환난 때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단축시킨다는 말이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마24:22). 그래서 택함 받은 자들이 멸망 당하지 않도록 지키십니다.

(롬9:29) 이것은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바, 만군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씨를 남겨 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되었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서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타락하고 우상숭배를 했지만 항상 그 안에 남은 자들을 숨겨 두셔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환난

때에도 이들을 지키십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복음 선포를 듣고 변화될 사람 144,000명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롬9:30-31)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의 곧 믿음에서 난 의에 이르렀으나 의의 법을 따른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동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선물을 받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제멋대로 살던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의를 받았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이방인들보다 이스라엘이 더 의롭게 되었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롬9:32) 무슨 까닭이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느니라.

율법의 행위로 보자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로마서 3장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613가지를 태어나서 다 지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여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율법을 지켜 자신들의 의로 구원을 얻어 보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하여 노력을 기울여도 인간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롬9:33) 이것은 기록된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결국은 넘어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디딤돌로 하여 반석 위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굳게 서지 못하고 오히려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10장

(롬10:1)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유대인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아무리 알려줘도 필요 없다고 합니다. 자신들에게는 이미 율법이 있으니 상관없다고 하니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롬10:2)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전 세계에서 종교적 열심이 가장 강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고, 알라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종교는 생활입니다. 삶 전체가 종교입니다. 이를 영적으로 적용하면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많은 예배에 참석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해야 합니다.

(롬10:3-4)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율법의 요구사항은 곧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단 한 가지라도 어긴 자는 다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태어난 유대인은 100% 율법을 어겼습니다. 이들이 죽음으로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면 누군가는 이 대가를 대신해서 치러야 합니다. 자격 조건은 단 한 번도 율법을 어기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본 자들은 원수조차도 그분이 의롭다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의 33년 반의 공생애를 지켜본 모든 이들은 누구도 예수님을 죄인으로 기소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에 의해서도 의롭다 함을 얻었다고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의로운 분인데 왜 의롭게 되셨다고 하셨을까요? 이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성령께서 지켜보신 결과 단 하나의 율법도 어긴 적이 없으므로 의로우신 분이라고 판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받을 수 있는 희생 제물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유일한 희생제물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이 요구했던 사망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더는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롬10:5) 모세가 율법에서 난 의를 묘사하되,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거니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의와 율법의 의 두 가지가 있는데 율법에서 난 의를 쟁취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희생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제는 율법으로 난 의가 아니라 믿음에서 난 의를 거저 받습니다.

(롬10:6-9) 믿음에서 난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나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에서부터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깊은 속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나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들로부터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이 있어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율법에서 난 의는 율법 613가지를 단 한 가지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믿음에서 난 의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 주신 일들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5절에서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지옥에 내려가서 사망을 이기셨으며,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 의를 거저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롬10:10)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는 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의에 이른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아시고 칭의를 받

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믿었는지 믿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해야만 실제로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은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구원은 양 측면을 말합니다. 바깥쪽으로 드러나는 외적 측면과 내적 측면을 하나는 칭의라고 했고, 하나는 구원이라 했습니다. 구원은 어디로부터의 구원인지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아도 죽으면 하늘나라에 갑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휘둘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백이 중요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분리가 됩니다. 때로는 강제로 희생을 당하기도 하고 미움을 받기도 하며 분위기를 흐린다는 눈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롬10:11-13) 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부끄러워합니다. 11절에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단어가 창세기에서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에서 처음 쓰였습니다. 둘은 벌거벗었으나 죄가 없으므로 창피해하지 않았습니다. 영어단어로는 하나지만 우리 말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다”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다”는 두 가

지로 문맥에 따라 번역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항상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많이 해석합니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성령께서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당황하지 않는다”는 말 대신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으로 바꾸셨습니다. 문맥을 살펴보면 10절에 “입으로 시인하여”라고 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분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나에게 해 주신 것들에 대한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분을 자랑합니다. 즉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그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롬10:14)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내 마음으로 주님을 믿어서 그분을 부릅니다. 그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은 믿음의 말씀(롬10:8)이기 때문에 믿는 순간 내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롬10:15)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처음에 말씀 선포자를 보냅니다. 사도행전에서 나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 목적으로 특별히 보냄을 받은 이들이 사도들입니다. 사도란 보내어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선교사

에 해당합니다. 이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13절)에 따라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이방인 선교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는 창세기 10장에서부터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로마서의 이방인 선교의 장이 10장 10절에 있습니다.

(롬10:16)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는 아니하였나니 이사야가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느니라.

순종은 믿는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때로는 순종과 믿음을 분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순종한다는 말은 바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내가 해야 할 노력은 단 한 가지, 그 사실을 믿는 것뿐입니다.

(롬10:17)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믿음의 말씀들이 내 안에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살전 2:13). 믿음은 영어의 동사와 명사의 형태가 다릅니다. 동사는 believe를 쓰고, 명사는 faith를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거부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믿으면(believe) 그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므로 하나

님께서 우리 안에 faith, 즉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believe) 순간에 믿음(faith)이 나에게 선물로 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말로는 설명하기가 애매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두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한 사람은 믿어서(believe) 역사가 일어납니다. 빌립보서 4장 6-7절을 읽고 마음의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똑같은 말씀은 들었지만 어떤 사람은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서 성장하는 데 반해 어떤 사람은 변화가 없이 똑같습니다. 말씀이 마음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의 말씀 하나 하나를 믿을 때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롬10:18)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못하였느냐? 참으로 들었은즉, 그것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것들의 말들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성경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첫째,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해, 달, 별 등의 자연 현상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시19편). 다른 하나는 특별 계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이 계시는 것까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 계시인 말씀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시편19편 1-6절까지는 일반 계시이고 7-11절까지는 특별 계시입니다.

(롬10:19-21)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는 이르기를, 내가 백성이 아닌 자들을 시켜 너희의 질투를 일으키며 어

리석은 민족을 시켜 너희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리라, 하나 이사야는 매우 담
대하여 이르기를,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들이 나를 발견하였나니 내게 묻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내가 나타났노라, 하되 오직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이르기
를, 내가 종일토록 내 손을 내밀어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백성을 향하게 하였
노라, 하느니라.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거부하여 기회가 이방인들
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는 사실 유대인들의 질투를 불러일으키고자 하신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개 취급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놀랍게 변화되는 모습과 은혜를 누리는 모습을 통해 이스라
엘이 회개의 마음을 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수단으로 이스라엘 마음속에 질투가 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1장

(롬11:1)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고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성경을 고쳤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복음 전하는 일을 방해하고 박해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6절에 “극도로”라는 부사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그만큼 진노가 크게 임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를 “하나님의 진노가 영원히 임하였노라”는 말로 뜯어 고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끝났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 중에 성취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에게로 이관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은 땅입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은 다른 것인데, 하늘의 왕국은 유대인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이를 자신들에게 적용하여 선교사들을 보낼 때 복음만 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구’라는 것을 세웁니다. 이 교구가 세워지면 소위 가톨릭의 영토로 편입되는 것입니다. 바티칸에서는 심지어 대사도 보냅니다. 자신들이 국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톨릭은 이스라엘이 끝났기 때문에 그들의 복은 다 자신들의 것이며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모

두가 가톨릭 교회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개신교회에서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 국가 중에서 중심 국가가 이스라엘이 될 것인데,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장로교도들은 무천년주의를 주장합니다. 실제적인 천년왕국은 없으며 상징적인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미 우리 마음속에서 왕이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의 왕이라는 성경 구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지, 정치적으로 왕이 되시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 이렇게 셋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되**” (고전10:32) 이를 잘 구분해서 보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인지, 이방인에게 하신 말씀인지,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지 잘 구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네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딤후2:15) 십일조에 대한 것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한다면 십일조를 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교회에게 십일조를 내라고 하신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 뭔가를 바치길 원한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사역자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

지를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되는지는 고린도후서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사람이 가진 것에 따라 주께서 그것을 받으실 것이요, 그가 갖지 아니한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뜻한 바는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하고 너희는 짐을 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다만 균등의 원리를 따르려는 것이니 곧 이제 이번에는 너희의 넘치는 것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공급하고 또한 그들의 넘치는 것으로 너희의 부족함을 공급하여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은 기록된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더라, 함과 같으니라.”(고후8:12-15)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이를 마음껏 향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쳐 방종으로 흘러 율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1장 앞부분을 보면 그리스도인들과 율법 간의 관계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지만 올바르게 사용하면 훌륭하고 선한 것입니다.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롬6:14)

(롬11:2-3)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 기록이 엘리야에 대해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중보하여 이르되, 주여, 그들이 주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파헤쳤으며 나만 홀로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도 찾나이다, 하나

첫 번째 예는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인데 버림받지 않았고

구원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구약의 예를 듭니다. 엘리야가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보기도라 하면 어떤 일이 잘되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누군가에게 벌을 청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가 볼 때에는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롬11:4)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이 무어라 말하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칠천 명을 남겨 두었노라, 하나님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우상숭배자가 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 하지 않고 남아 있는 자, 칠천 명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 버리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택함 안에 보호해 둔 자들이 있었습니다.

(롬11:5) 그런즉 이와 같이 이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다 배교해 버린 것 같지만 이 교회 시대에도 일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도행전에도 초기에 구원받은 사람 중에 상당수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28장을 기점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교회 시대에 구원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의 방향을 돌리기겠다고 결단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롬11:6)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은혜와 행위는 정반대입니다.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이며 율법은 지킴으로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음을 로마서 3장에서 배웠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하시듯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롬11:7) 그런즉 어떠하나? 이스라엘은 자기가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으나 선택 받은 자는 얻었고 그 나머지는 이 날까지 눈멀게 되었으니

이스라엘 민족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켜 의로움을 얻고자 했습니다. 율법은 하지 말라는 365가지의 내용과 하라는 248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대응되는 숫자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몸은 248개의 부분으로 되어 있고 1년은 365일입니다. 이 둘의 값을 더하면 613가지 율법의 전체 가짓수와 같습니다. 묘합니다.

이스라엘은 열심은 있었으나 율법으로 나아가느라 실패했습니다. 하나

님께서는 자신의 의를 선물로 주시는데 이를 자신의 행위로 얻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선택을 받은 자는 얻었습니다. 은혜의 선택을 받지 못한 나머지는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눈 멀지 않았더라면 지금이라도 선물을 영접해서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롬11:8) (이것은 기록된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자 하나님께서 아예 영적으로 그들을 눈 멀게 하셨습니다.

(롬11:9)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울무와 함정과 걸림 돌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과거에 주신 축복과 특권이 8개 있습니다(롬 9:4).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그들은 이를 가지고 오히려 특권의식을 가지고 우월감에 빠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왕국은 왕이 있어야 하고 영토와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영토와 왕은 준비되었으나 백성이 하늘의 왕국 백성다운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거둬나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들은 정치적인 목적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왕국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천년왕국은 상징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을 뿐 실재할 왕국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양쪽 다 옳무에 걸려 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두 가지 모두를 다 이루려 오십니다.

(롬11:10)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등이 항상 굵게 하소서, 하느니라.

요한복음 1:10-13절에 창조주가 지상에 내려오실 때 창조물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영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유대인 이외의 이방인에게도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롬11:11)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은 전 세계적으로 2000년 동안 어디를 가든지 핍박을 받았고 어디를 가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대가로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니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나오니다. 예수님께서서 유대인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서 나중에 사탄의 머리를 부수실 것으로 로마서 16장에 나와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십자가에서 이미 부수신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가 부서졌다면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에 와서 미래 시제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롬16:20) 물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분명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는 영원한 불똥이라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집행은 아직입니다. 로마서 16장이 미래 시제로 되어 있는 것은 집행이 아직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는 분명히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심판은 받았으나 그 형이 아직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니다.

마귀의 운명은 불똥이기 때문에 그날이 가까워올수록 필사적으로 포악을 떠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 다닌다’ 고 했습니다. 지옥에 함께 갈 이들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 마귀가 위로를 얻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옥에 가보니 자신이 미혹해서 함께 데려온 이들을 보고 흐뭇해하며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파라오가 그들을 보고 그의 온 무리로 인하여 위로를 받으리니 곧 칼에 죽임을 당한 파라오와 그의 온 군대가 위로를 받으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겔 32:31)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스라엘이 넘어지게 되었으나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특유의 질투가 불타올라 하나님께로 회개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전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던 민족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겼으니 얼마나 질투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이러한

지략과 지혜가 너무나 놀랍다고 감탄했습니다. 로마서 11장 33-36절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시리라.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시리라. 이를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살리로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에 우리가 알리라. 그분의 나아오심은 아침같이 예비되어 있으며 그분께서는 비같이 곧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호6:1-3)

(롬11:12) 이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그들의 쇠퇴함이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많이 부요함이 되겠느냐?

그들이 넘어짐으로 이방인들이 엄청난 부를 가지게 되었고,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망하게 되어 이방인들이 이 정도의 축복을 받았을진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축복을 받으면 얼마나 큰 축복을 받게 될까요?

(롬11:13) 내가 이방인들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인 만큼 내 직무를 존귀히 여기나니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인해 축복받게 되었고 예수님은 할례인들을 위한 사역자가 되셨습니다. 바울 자신은 예수님의 뒤를 이어 이방인들의 사

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특별한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롬11:14) 이것은 내가 어찌하든지 내 살붙이인 그들을 자극하여 경쟁하게 함으로 그들 중의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는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므로 너희 이방인들이 다 구원을 받으면 유대인들이 얼마라도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겠는가”라는 바울의 바람입니다.

(롬11:15)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을 화해시키는 것이 되거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유대인들을 버려서 세상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화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더 많은 축복이 있을까요.

(롬11:16) 첫 열매가 거룩하면 덩어리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그러하니라.

첫 열매는 유대인의 조상들이며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뿌리이며 가지들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그 후손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지들인 후손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롬11:17) 또한 그 가지들 중에서 얼마가 꺾이고 야생 올리브나무인 네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서 그들과 함께 올리브나무의 뿌리와 기름짐에 참여하게 되었을진대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며 가지들이 많이 꺾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뿌리인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로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습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롬11:18)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지탱하지 아니하며 뿌리가 너를 지탱하느니라.

유대인들을 향해 “우리는 접붙임을 받아 축복 받고 있다”고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덕분에 복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롬11:19-20) 그러면 네가 말하기를, 그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접붙여지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꺾였고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들이 꺾임으로 우리가 접붙여졌으며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부함으로 꺾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13절의 말씀처럼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마치 내가 잘나서 받은 것인 양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하십니다(엡2:8-9)

(롬11:21)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을진대 그분께서 또한 너를 아끼지 아니하실까 조심하라.

본래의 가지도 제멋대로 하다가 잘려 나갔는데 우리도 불순종하면 잘려질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9장과 10장도 마찬가지이지만 11장은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합적으로 유대인이라는 그룹과 이방인이라는 그룹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다루시다가 그들의 불순종으로 이방인들이 접붙여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방인들이 교만해져서 점점 불순종하더니 마지막 시대, 즉 라오디게아 시대인 지금에 와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도 결국엔 잘려나가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잘려나가 지옥에 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기회가 없어질 뿐입니다. 이 구절은 개인의 구원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만드시 데려가실 것입니다. 교회가 휴거되면 지금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전파는 중단됩니다. 7년의 환난이 다가옵니다.

(롬11:22)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엄하심이 있으나 네가 그분의 선하심에 거하면 너를 향하여는 선하심이 있으

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잘려 나가리라.

하나님은 선하심과 엄위하심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균형을 갖춰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며 엄격하신 분입니다. 죄인들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셨습니다. 이렇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로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거룩하심 등이 전제가 되어야 영원히 멸망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긍휼, 사랑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사랑만 베푸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크게 와 닿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와 증인이나 통일교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은 믿지만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무서운 하나님은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냥 들어보면 굉장히 멋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음모가 숨겨져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진리도, 거짓도, 죄도, 선도, 악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됩니다. 그런 하나님은 믿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죄와 악을 미워하시고 선을 사랑하십니다. 죄도 기뻐한다니 하나님의 속성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포장으로 모든 것을 다 덮어 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이외의 것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입증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성경은 진리의 사랑이라고 데살로니가후서에서 말씀하십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살후2:10) 진리이신 분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거부하는 자는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을 거부하는 자까지도 나중에는 다 구원해주신다? 이를 보편적 구원론이라고 합니다.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교회 부패의 원조인 오리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구원해주시고 하늘나라로 다 불러들이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마귀와 함께 영원히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은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셨다” 즉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거부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커녕 요한복음 3장 36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진노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선택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은 선택심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너도 잘려 나가리라(22절)**”에서 잘려 나간다는 것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뜻이 아님을 앞서 설명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롬11:23) **그들도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 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여지리니 하나님은 능히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느니라.**

교회는 휴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거부하던 이스라엘에게 다시 기회가 왔습니다. 7년 동안의 환난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매를 맞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드디어 영접합니다(슥12:10-14). 잘려 나갔던 유대인들이 다시 접붙여집니다.

(롬11:24) 네가 본래 야생 올리브나무에서 잘려 본성에 역행하며 좋은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졌을진대 하물며 본래의 가지인 이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자신의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지겠느냐?

원래 붙어 있던 가지가 잘려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가지가 접붙여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원래 붙어 있던 가지를 다시 접붙였을 때 얼마나 잘 붙겠느냐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본성에 역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보통 올리브나무가 오래 되어서 상태가 나쁘면 잘라내고 좋은 올리브나무를 접붙이면 다시 잘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24절은 반대입니다. 좋은 올리브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좋은 뿌리는 그대로 있고 나쁜 올리브나무가 접붙임을 받았는데 오히려 뿌리의 힘을 받아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과는 반대이죠. ‘본성에 역행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물리 세계와 영적 세계는 반대입니다.

(롬11:25)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 스스로 지혜로운 자인 줄 알겠지만 이 신비를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 대해 어떤 타이밍을 정해 두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때가 찬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 시킬 때도 시간을 정해 놓았습니다. 400년 간의 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나가게 하셨습니다. 가나안에 있는 도덕적으로 심히 사악한 민족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심판하십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한 민족의 죄가 가득 차면 다른 민족을 일으키셔서 치시기 때문입니다. 바빌론이 쓰임 받아서 이스라엘이 얻어맞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통해 아시리아가 얻어맞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섭리적으로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충분히 복 받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일부가 아직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함에 대해 일부 칼빈주의자들은 이방인의 구원받을 수라고 해서 숫자를 세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와 관련된 숫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를 이미 정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면 그리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관련된 숫자가 없는데 칼빈주의를 옹호하기 위해 성경을 고치는 것은 사악한 행위입니다(눅21:24). 여기서 이방인의 때는 환난 때의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여기에서도 숫자는 없습니다. 성경에 두 구절 모두 “fullness” 즉 충만한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나오지만 숫자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롬11:26)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기록된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이스라엘 민족이 적그리스도라는 이방인 통치자의 압제로부터 구출 받습니다.

(롬11:27)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에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 나라, 함과 같으니라.

유대인중 어떤 개인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의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제거되고 우리와 같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시대가 끝난 뒤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야 비로소 그들의 죄가 제거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새롭게 하는 때...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21절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까지는...” 이 말씀들의 때가 로마서 11장 27절의 때입니다.

(롬11:28)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해 원수 된 자들이지만 선택에 대하여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는 자들이니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축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질투를 일으키게 하고 이방인들도 교만하여 기회를 상실하게 되면 그때 이스라엘에게 다시 기회를 주겠다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복음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는 원수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롬11:29)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후손이 있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8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많은 잘못을 했다고 해서 주셨던 선물을 도로 뺏어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롬11:30)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통해 긍휼을 얻었나니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믿지 않는 동안 이방인들은 믿었습니다.

(롬11:31) 이와 같이 이 사람들 또한 이제 믿지 아니한 것은 너희가 얻은 긍휼을 통하여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방인들이 긍휼을 얻는 것을 보고 시기심이 나서 유대인들도 긍휼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롬11:32)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아니하는 데 가두어 두신 것은 친히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구원하십니다.

(롬11:33)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며! 그분의 판단들

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놀라운 계획을 그분은 영원 전부터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는 단 한 마디의 말씀으로 엄청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은 그분으로부터 옵니다. 인간이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도 하나님의 솜씨에 미치지 못합니다. 욥기 38장부터 4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조차도 두렵습니다.

(롬11:34-36)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되었느냐?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려서 다시 보답을 받겠느냐?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12장부터는 하나님과 나와 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나와 국가와의 관계,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과의 관계 등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관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씀합니다. 앞부분 11장까지 교리가 확실하게 서 있어야 12장부터 의미가 있습니다. 11장까지의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12장부터 내 안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역사할 때만 이루어질 삶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 삶의 전제조건은 앞선 열 한장에서 배웠습니다. 헌신이 전제된 후에 주님께 드려서 우리의 몸을 사용해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롬12:1-2)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 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변화된 새로운 관계를 나타냅니다. 12, 13장은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수립했으니 새로운 삶을 살자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1-2절, 그리고 3-20절까지는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이 중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이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3장으로 가면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시민으로서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지가 나와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세상과 구분된다는 것을 오해하여 시민이나 국민으로서의 삶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모범적인 시민과 국민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14-15: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15장 8절부터는 예수님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 그리고 마지막 인사말이 나옵니다. 일단 12장 1-2절이 초석이 됩니다. 1-2절을 실천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으면 사람들과의 수평 관계 역시 정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소위 인권 운동가와 NGO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훌륭한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

입니다. 실제로 훌륭한 분들이 있지만 좋지 못한 열매를 맺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 역시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아름답게 이웃 사랑이 표현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선행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어 버립니다.

로마서 12장

(롬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 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 있는 희생 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그러므로”는 11장까지 배웠으므로 이를 통해 이제는 헌신함으로 섬기는 말입니다. 4가지의 ‘그러므로’를 잘 배우면 로마서 전체를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나오는 ‘그러므로’는 첫째 ‘정죄’의 ‘그러므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죄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칭의’의 ‘그러므로’입니다(롬5:1). 은혜로 거저 의롭게 되었습니다. 정죄에서 칭의로 옮겨지는 것은 요즘 말로 치면 인생역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대상에서 사랑의 대상이 되었고, 우리는 의롭다 함을 입었습니다. 셋째, ‘확신’의 ‘그러므로’입니다(롬8:1).

바울은 자신을 향해 비참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함을 입어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했으나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비참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죄를 짓는 데에는 능통하지만 선을 행하는 데에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은 죄의 몸을 다루고 있고, 로마서 7장은 사망의 몸을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죄 문제를 해결했고, 로마서 7장에서는 내가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와 믿음으로 행할 때에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신 것을 나는 믿음으로 바깥으로 드러내면 됩니다. 세상적으로 살려는 사람들은 그런 고민을 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데 안 되는 것은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헌신의 ‘그러므로’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약하기 때문에 칭의를 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헌신의 ‘그러므로’를 거쳐 내 몸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립니다. 이것이 “헌신의 그러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제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마귀도 영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행동을 하려면 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마귀에게 쓰이면 마귀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이 쓰이면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나의 의지적 결단이 신앙생활을 좌우합니다. 주님께 내 몸을 드리면 주님께 쓰임 받습니다.

(롬12:2)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주님께 몸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고방식,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전에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 어떤 분들은 결혼은 언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궁금해합니다. 이런것에 대한 결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기도하고 편한 대로 하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10여 가지가 있습니다(‘하나님의 뜻’이라는 소책자 참조). 그 원칙하에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원칙을 보고 우리가 거기에 인격적인 사고방식과 판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면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손과 발, 모든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성경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고전2:16) 어렵지 않습니다. 나의 개인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생각하면 그게 바로 성경적 마인드입니다.

(롬12:3)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대로 맑은 정

신으로 생각하라.

1절에서 “하나님의 공훈에 힘입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말한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중요한 말씀은 자기 평가입니다. 대부분의 신앙생활에서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는 것 이하로 자신을 비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선물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종류가 달라서 그렇지 아무 것도 받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순간 믿음만 선물로 주시고 그외 아무것도 주지 않고 섬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자신이 가진 은사가 더 귀하다 자랑하며 다투면 안됩니다. 각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만큼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 재력 모든 것들을 냉철하게 잘 판단하여 합당하게 섬겨야 합니다.

(롬12:4)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나니

교회 안에서 각자 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들, 특히 형제회에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자는 것은 곤란한 말입니다. 목사와 교사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전담해야 합니다. 단순히 신앙생활 경력이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이 아니라 간증 식의 집회가 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간증 집회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이면 공식적으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 말씀으로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여서 자신이 느낀 바를 나누는 것은 적극적으로 지지할 일이지만 그것이 공식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목사와 교사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롬12:5)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다 한 몸이라는 인식을 하는 것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한 몸이라는 지체 의식을 갖지 아니하면 자기가 다니는 지역 교회뿐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한 몸인 우주적인 교회를 모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아프리카인이든 미국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학력이든 어떤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가톨릭 안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되었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은 한 몸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다만 교제를 할 때에는 물리적인 범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주로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역교회에 대해 특별한 책무와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롬12:6) 그런즉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대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고,

어떤 사람은 대언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대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것입니다.

(롬12:7) 혹은 사역이면 우리가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섬기며,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고,

사람들은 장관과 목사를 섬기는 일을 하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칭합니다. 장관은 국가와 국민을 섬기며, 목사는 하나님과 성도를 섬깁니다. 그래서 사역자(minister)라고 부릅니다.

(롬12:8)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섬기며,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권면은 형제를 격려하여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은사가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격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하지 않고는 다스릴 수 없습니다. 역대 통치자들도 부지런했고, 교회 안에서도 부지런함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롬12:9) 사랑에 꾸밈이 없게 하라.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꾸밈이 없다는 것은 가장을 해서 위선적인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악한 것을 싫어하고 선한 것을 붙드는 것이 실천해야 할 덕목들입니다.

(롬12:10)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여기에 나와있는 ‘형제의 사랑’이란 킹제임스 성경이 사용하는 독특한 단어, charity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일반적인 love로 표현했는데 왜 킹제임스 성경은 charity를 썼을까요? 보편적으로 사랑은 love로 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끼리의 형제 사랑이라는 좁은 의미를 나타낼 때는 charity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헬라어 카리타스입니다. 현대 영어에서 charity는 ‘구제’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 사랑은 주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하신 아들을 주신 것처럼, 반드시 무엇인가를 주는 것이 charity입니다.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라는 구절에서의 ‘친절’은 수준이 굉장히 높은 덕목입니다. 가식적으로 친절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도 진정으로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성숙된 사람입니다.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라는 책에서 영적 성숙의 단계가 믿음에서 시작해서 덕을, 지식을, 절제를…그리고 charity로 마무리됩니다. 이 charity 앞에 형제의 친절이 나옵니다. “서로 먼저 존중하여” 이렇게 한다면 다툼이 생기지 않겠죠.

(롬12:11) 일을 게을리 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감정이 뜨거우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영이 뜨거워야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을 뜨겁게 하여 주님을 섬겨야지 인간적인 감정에 고조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아주 냉정해져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영은 뜨거워야 합니다.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이 뜨겁게 역사하여 주님을 영으로 섬긴다는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민수기 10장에는 잘못된 이상한 불로 하나님께 잘못 경배한 예가 나와 있습니다. 참조하세요).

(롬12:12)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어려움 가운데 인내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공산주의의 출발은 사도행전 2장 45절과 로마서 12장 13절의 구절에 따라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능력에 따라 나눠 줍니다. 생산성이 높은 사람에게 월급을 많이 주는 원리입니다. 언뜻 보면 공산주의가 참으로 멋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이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상입니다. 그 반면, 교회 안에서는 형제 사랑으로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을 도와 주어야 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는 것은 분명 아름다운 일이고 장려할 만한 일이나, 강제로 부자들로부터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롬12:14-15)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올라.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 중 하신 말씀입니다. 남이 잘 되면 박수를 쳐 주지 못하고 배가 아픕니다. 잘된 사람을 축하해 주고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해야만 합니다.

(롬12:16) 서로를 향해 같은 생각을 가지며 높은 것들에 생각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여기까지가 대인 관계인 수평 관계입니다.

(롬12:17)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원수는 무슨 음모를 꾸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원수만 아니라 우리와 관계가 나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직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찾아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행6:3)

(롬12:18)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가 이 구절의 핵심인데, 사람들은 “가능하다면”만 봅니다. 가능하지 않다면 싸워도 되는 것인 줄 착각합니다. 웬만하면 다 화평하게 지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16장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롬16:17)

(롬12:19)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인으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표현은 참 쓰기 힘든 표현 같습니다. 누가 나를 괴롭히면 하나님께 맡기고 편히 쉬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쉬면 됩니다.

(롬12:20) 그러므로 네 원수가 주리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네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이렇게까지 했어도 회개하지 않으면 점점 힘들어집니다.

(롬12:21)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선입니다. 어둠을 이기는 것도 빛입니다.

로마서 13장

(롬13:1)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여러분보다 높은 권력을 가진 자들, 혹은 아버지나 형일지라도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순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선거를 했는데 자신이 지지한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그에게 존경을 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롬13:2)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파라오 같이 악한 왕도, 네로 같은 폭군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세워 두신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선적으로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해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니 산파에게 아들을 죽이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졌으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므로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하게 대우해주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금지하는 것에 굴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에 대해서는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

(롬13:3)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그런즉 네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바로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자는 주로 도둑이나 강도 등 나쁜 짓을 하는 자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 모범적인 시민에게는 상을 줍니다.

(롬13:4)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네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네가 악한 것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지 아니하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보복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사역자라는 단어가 여기에도 쓰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교통경찰도 하나님의 사역자요 일꾼이며 공무원들도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들이 없다면 지금처럼 안정된 신앙생활을 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국가를 안정되게 만드는 데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사용하십니다.

(롬13:5) 그러므로 너희는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반드시 복종해야 하느니라.

죄를 지어 받는 벌과 하나님의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어긴 양심에 근거해서 법을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데 빨간불이면 당연히 파란불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법을 무시하고 건너가면 내 양심이 잘못했다고 지적합니다. 옳지 않은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이는 집에 가서 자백하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자주 하면 양심에 화인을 맞아 죄에 무덤덤해지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죄를 짓고 자백하고 용서받는 것은 항상 해야 하는 일이지만 이것으로 죄를 정당화하는 것은 양심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의외로 양심이 불량한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롬13:6-7) 이런 까닭에 너희가 공세도 바치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을 것을 주되 공세 받을 자에게 공세를, 관세 받을 자에게 관세를, 두려워할 자에게 두려움을, 존경할 자에게 존경을 주라.

이때 존경할 자에 속한 사람 중에 네로 황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롬13:8-9)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어떤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과 대언서를 다 합친 것과 같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롬13:10)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우선시 합니다.

(롬13:11)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구원은 받았는데 왜 다시 구원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 몸의 구속까지 포함한 영, 혼, 몸 전체의 구속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몸은 아직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합니다.

(롬13:12-13)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행동을 할까 싶지만 육신적인 경우 이런 행동을 하고도 남습니다. 얼마나 많은 스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를 쉽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구약에 보니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마귀에게 당할지 모릅니다. 서 있다 하면 넘어질 줄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다가 유혹에 넘어져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되었는지 기독교계 내에서 많이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방탕에 방탕을 거듭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펼쳐 보라는 소리를 듣고 집에 가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 때 로마서 13장 12-13절을 보게 되어 이를 읽고 회개하고 거듭났다는 간증을 하여 이 12-13절이 유명해졌습니다.

어거스틴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동시에 상당히 많은 문제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교리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을 섞어서 가르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재림하셔서 통치하시기 전까지는 종교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한데 뭉치면 반드시 부패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스님들이 정치에 관여해서 고려가 부패하였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일치되는 제정 일치 사회는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서는 무조건 부패합니다. 따라서 그 전까지는 반드시 제정 분리 사회를 유지해야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이 두 가지 모두가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며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로, 독일은 국교로 루터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루터교인으로 호적에 등록이 됩니다. 그 옛날 침례교도들이 처음 미국에 도착하여 가장 먼저 만든 법이 ‘국가는 종교에 관한 그 어떠한 법도 만들 수 없다’는 내용의 미국헌법 제1조입니다. 종교

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서히 간섭을 시도해오다가 결정적으로 가톨릭을 믿는 대통령이었던 케네디가 학교에 성경을 가지고 오지 못하도록 하면서 국가의 종교에 대한 간섭이 실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가 종교에 개입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국가와 종교를 하나로 만들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도성을 만들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실천한 사람이 칼빈입니다. 칼빈은 제네바라는 도시를 제정 일치 사회로 만들었습니다. 제네바 시민은 거둬놓든 아니든 관계없이 그 교회의 소속이 됩니다. 설교시간에 졸면 벌을 주고 설교 중 아이가 울면 매를 때릴 정도로 지나친 제재가 가해집니다.

교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여 알게 되면 정말 비뚤어진 방향으로 신앙생활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교리를 보면,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은 분명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교리가 무슨 짓이든 해도 된다는 면죄부는 될 수 없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구원해 주신 것이지, 자기 멋대로 살라고 주신 구원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의 치명적인 약점은 구원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진리를 말하면서 그러나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왜곡시키며 양심을 마비시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롬13:14)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우리가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면 육신은 우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라고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육신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좀비같이 자꾸 살아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밅니다. 그럴 때 내가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육신은 결코 나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육신이 손을 내밀 때 내가 잡아 주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께 내 몸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14장에서는 믿는 그리스도인들끼리 의견이 다를 때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롬14:1-3)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은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고 다른 사람은 약하여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아니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아니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느니라.

서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향해 믿음이 약하다며 업신여겨서는 안됩니다. 반대로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향해 판단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먹거나 먹지 않거나 각자의 믿음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형제라면 너희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의견이 다른 것으로 갈라지거나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롬14:4) 다른 사람의 종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의 서거나 넘어짐이 그의 주인에게 달려 있을즉 참으로 그가 세워지리니 하나님은 능히 그를 서게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종을 내가 판단할 권리는 없습니다. 넘어진 형제가 있으면 조롱하거나 질책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롬14:5-6)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완전히 확신할지니라. 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날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때문이라.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리느니라.

우리나라 기독교계의 극보수파는 주일에 식당에서 돈을 내고 음식을 사 먹으면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거룩하게 주일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에 가는 것도 안 됩니다. 특히 일제 강점기 때 신사 참배를 목숨 걸고 거부하여 순교자를 배출한 고려 신학교가 대표적입니다. 물론 훌륭한 일을 했고 본받을 만했고 이로 인해 교단에서 최고로 순결한 교단이라고 높임을 받습니다. 이들은 “날”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하루만 거룩하게 지내면 되는 것입니까? 나머지 6일은 어떻게 지내도 상관없습니까?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주의 날입니다. 이를 왜 구분하느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의 형제들이 모이는 날은 좀 특별한 날이니 내가 갖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입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니 새 돈처럼 뽀뽀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돈을 다려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비웃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살면 됩니다.

(롬14:7-8)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어떤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또 어떤 사람은 저런 방식으로 주님을 위함

니다. 왜 똑같은 방식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롬14:9-10)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런데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형제가 한 일을 두고 성경에 비춰 보며 이것은 옳바르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은 옳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 형제가 하는 행동은 성경적으로 볼 때 옳바르지 않다고 성경에 근거해서 권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더 이상 논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권면은 할 수 있으나 판단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롬14:11-12) 기록된바, 내가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계 보고를 하리라.

옆에 있는 사람의 회계보고를 내가 대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 자신의 회계보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주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남의 일도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갈6:2) 관심을 가지고 권면하며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

언에도 친구의 사랑은 때로는 책망이 되더라도 유익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싫은 소리 들을 각오를 하고 할 말을 합니다. 첫째, 지혜롭게 해야 하고, 둘째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듣는 당시에는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나중에는 금방 괜찮아집니다. 그런데 정죄하는 마음으로 했다든지 깔보는 마음으로 하면 상처가 되어 잘 못하면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롬14:13-15)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할 지니라. 내가 알고 또 주 예수님을 통해 확신하거니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하나도 없으되 어떤 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부정하니라. 그러나 만일 네 음식물로 인해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제 네가 사랑으로 걸지 아니하니네 네 음식물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말라.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고린도전서에 보면 어떤 사람이 고기를 먹는데 그 고기는 바로 신전에서 우상숭배를 하고 난 고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개의치 않고 감사함으로 먹는데 어떤 사람은 아직 믿음이 약하여 먹지 않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먹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의심을 하며 따라 먹는다면 죄가 됩니다. 성경에서는 의심하면서 먹으면 죄가 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강한 자의 자유로 믿음이 약한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 고기를 먹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자기 희생입니다.

(롬14:16-17)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왕국은 외형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기쁨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림으로 삶 속에서 열매를 거둔다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입증되는 것입니다.

(롬14:18) 이것들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며 사람들에게 인정받느니라.

여기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 있는 영은 불순종하는 영입니다. 그 영은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를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행실이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넘치는 모습을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은 별로 썩 내키지는 않지만 인정은 합니다.

(롬14:19)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를 세워 주는 데 필요한 일들을 따를지니라.

그러니까 14장 1절에서 먼저 다른 형제를 받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둘째, 다른 형제와의 관계에서 나의 행동과 말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

주는 것이야 합니다. 나의 행동과 말들로 형제의 믿음을 무너뜨리거나 실족하게 하면 안 됩니다.

(롬14:20-23) 음식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망하게 하지 말라. 모든 것이 참으로 순수하되 실족하게 하며 먹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즙도 마시지 아니하며 네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거나 악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선하니라. 네게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위해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허용하는 그것으로 인해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복하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나니 이는 그가 믿음을 따라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음식과 관련하여 형제를 실족시키지 말라고 반복해서 권면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이니깐요.

로마서 15장

(롬15:1-6)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 주어야 할지니라. 기록된바,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을 갖게 하사 너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셋째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놀랍게도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법칙은 자연스럽게 위에서 아래로 물이 흐르듯이 믿음이 강한 이가 약한 이를 돕고 경제적으로 나은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3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사셨는데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일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홀로 두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요8:29).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보이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아담의 속성을 지닌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서 충만히 역사할 때만 가능합니다.

이 세상에 보면 구원은 받지 않았는데도 항상 남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의로운 일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더러운 누더기 같다고 하십니다(사64:6). 왜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셨을까요? 그 의로운 행위의 뿌리가 ‘자아’ 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서 역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의 의를 드러내어 열심히 일해봐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에 구약 성경의 기록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신약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신약 성경만 잘 읽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약 성경의 기록 목적 중 하나가 신약 성도들에게 배움을 주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윗을 보고 많은 고통 가운데 있어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음을 배우고, 솔로몬을 보고 위로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위로와 인내,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요셉과 같이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

리라는 소망도 가지게 됩니다. 또한 구약 성경은 이를 통해 훈계하시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고전 10:11) 구약 성경을 읽으면 위로와 평안만 얻는 것이 아니라 경고도 받습니다.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로 경고를 받나니 그것들을 지킬 때에 큰 보상이 있나이다.”(시19:11) 구약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이처럼 도움이 되는 신앙생활의 좋은 교과서입니다.

(롬15:5-6)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을 갖게 하사 너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여기까지가 형제들과 나 사이의 의견이 다를 때 취해야 할 올바른 자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이어지는 7-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롬15:7-8)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인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이제 내가 말하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확증하려 하심이요,

사복음서는 할례자들인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사역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내용을 교회시대의 성도에게 잘못 적용하면 많

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은 이 땅에 남아서 환난을 겪을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인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오직 유대인들을 향해서만 사역을 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수로 페니키아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하며 자신은 이방인이지만 은혜를 받고자 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간간이 이방인들도 축복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신 다음에 염소와 양으로 분리하실 때, 양으로 분리된 이방 민족들은 또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롬15:9-13) 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 이것은 기록된바, 이런 까닭에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주를 시인하며 주의 이름을 향해 노래하리이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시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희 이방인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하시며 또 다시, 너희 모든 이방인들아, 주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분을 찬미할지어다, 하시고 또 다시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이방인들을 통치하기 위해 일어날 자가 있으리니 이방인들이 그를 신뢰하리라, 하느니라.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는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사 성령님의 권능을 통해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초림 때 하신 사역의 초점은 유대인입니다. 가끔씩 이방인

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면서 주로 교회 시대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미래에 교회가 휴거되고 나서 유대인들이 환난을 겪게 되면 회개를 통해 예수님을 다시 영접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 때에 이 땅에서 유대인들을 도와주어 양으로 분리된 민족들은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 순서가 초림부터 재림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제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롬15:14-19) 내 형제들아, 나 스스로 또한 너희에 대하여 확신하거니와 너희 역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하여 능히 서로를 훈계할 수 있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기억하도록 내가 어떤 부분에서 더욱 담대히 너희에게 썼나니 이것은 내가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제공함으로써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이 성령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어 주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게는 하나님께 속한 그 일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랑할 것이 있나니 이는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말과 행위로, 능력 있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이루신 그 일들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다니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히 선포하였노라.

바울은 이 로마서의 기록자입니다. 예수님의 후계자는 바로 바울이죠.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본으로 삼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전11:1)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긍휼을 얻었느니라.”(딤후1:16)

“이방인들을 바치는”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여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스페인, 영국을 비롯해 지중해가 걸쳐있는 전체 영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 한 사람이 인류 역사에 미친 영향력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공식적인 대리인이었으니 그랬겠지만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롬15:20) 참으로 이같이 내가 복음을 선포하고자 애써 왔으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기초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교회에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해 어느 한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바로 옆에 다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 세워야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윤리적인 원칙도 지켰습니다.

(롬15:21) 오직 이것은 기록된바, 그에 대하여 전해 듣지 못한 자들이 보며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이

미 들은 사람에게 또 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롬15:22) 이러한 까닭에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는 것이 많이 막혔으나

바울은 로마로 가고자 했으나 막혀서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롬15:23) 이제는 이 지방에 더 이상 일할 곳이 없고 또 이 여러 해 동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큰 소원이 내게 있어서

거의 모든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으므로 더 이상 일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로마로 보내달라 청합니다.

(롬15:24) 언제든지 내가 스페인으로 여행하게 되면 너희에게 가고자 하노라. 만일 내가 먼저 너희와 사귄으로 다소 채워질 수 있다면 나의 여행 중에 너희를 보기 바라고 또 너희가 나를 거기로 보내 줄 것을 바라노라.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로마부터 가겠다는 것입니다. 편지의 수신인들을 향해 자신의 선교 여행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롬15:25) 그러나 지금은 내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현재 바울에게 주어진 일은 성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롬15:26-27) 이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

한 성도들을 위해 얼마를 기부함으로 기뻐하였기 때문이라. 참으로 그 일로 인해 그들이 기뻐하였느니라. 또한 그들은 저들에게 빛진 자들이니 만일 이 방인들이 저들의 영적인 것들에 참여한 자가 되었거든 육신의 것들로 저들을 섬기는 것도 그들의 의무이니라.

예루살렘 성도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예루살렘 성도들에 비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이들은 예루살렘 성도들로부터 영적인 도움을 받았으니 물질적인 것으로 돕고 싶다는 마음을 가집니다. 이를 두고 바울은 참으로 정당하고 옳은 일이라며 고린도 전서에서도 언급합니다.

(롬15:28)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행하고 이 열매를 봉인하여 그들에게 준 뒤에 너희에게 들러서 스페인으로 가리라.

바울은 이 일을 직접 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돈을 전달하는 일종의 심부름 같은 잔일은 다른 사람을 시키고 바울은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적인 일과 물질적인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을 영적인 방식으로 하면 영적인 일이 되며 영적인 일임에도 육신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육신적인 일이 됩니다. 설교도 육신적인 것이 될 수 있으며 밥을 함께 먹는 것도 영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스페인으로 가리라”라고 했으므로 스페인으로 갔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곳에 복음 증거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롬15:29-30) 내가 너희에게 갈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복을 충만히 가지고 갈 줄로 확신하노라. 형제들아, 이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령의 사랑으로 인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기도 가운데 나와 함께 분투하며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로마서 15장 30절은 여러 가지 좋은 책들을 쓰신 James Knox 형제님이 다른 지체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나 이메일 끝에 꼭 붙이는 구절입니다.

(롬15:31)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구출 받게 하며 또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아들이게 하고

내가 섬기러 갈테니 형제들이 그 섬김을 받아들이게 하고 혹시라도 나에게 해를 끼치려는 자들이 있다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롬15:32-33)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가서 너희와 함께 새 힘을 얻게 하라. 이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까지가 그리스도인의 실천 덕목입니다. 그런데 이는 성령께서 나를 충만하게 채우실 때만 가능합니다.

16장은 전부 개인의 안부를 묻는 내용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인사를 하는 것일까요? 사실상 로마서는 15장

33절로 끝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안부 인사를 전하는 것일까요? 로마서를 통해 1장 1절부터 11장까지 교리를 배우고 12장부터 15장까지 실천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한 지체 한 지체에 대해 세심한 관심과 배려와 사랑이 샘솟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실제로 이를 베풀어야 성숙한 삶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며 그의 머릿속에 떠 오르는 사람들을 하나 하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어떤 사람인지 평가하며 이름을 부르는 데, 사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양들을 아시고 그 이름으로 부르신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16장에 이런 안부인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좀처럼 쓰지 않았을 내용입니다. ‘모두에게 안부하라, 잘 있으라’ 정도로 끝을 맺지 누가 이름을 하나 하나 부르며 안부를 묻겠습니까? 바울처럼 인사하는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닮아 가고 있음은 로마서 16장을 읽어보면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웠지만 12장에서 16장까지의 삶을 살아 내는 것은 하루 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겪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잉태하여 거듭나기까지도 해산하는 수고를 했지만 다시 한 번 그 수고를 겪겠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출판 킹제임스

도서 목록

도서출판 킹제임스 도서 목록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1	고통과 함께 하는 삶	Samuel C. Gipp	104	3500
2	성령의 열매	James W. Knox	368	12000
3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	L.E. 맥스웰	240	8000
4	성장을 위한 첫 걸음	Linton M. Smith	480	15000
5	일곱 교회	James W. Knox	44	1000
6	확실한 기초	James W. Knox	280	8000
7	성령 침례	James W. Knox	28	1000
8	성경적 종말론	James W. Knox	220	8000
9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언	James W. Knox	40	1000
10	신유와 적그리스도	James W. Knox	40	1000
11	성경 연구 방법	James W. Knox	224	8000
12	교회의 휴거	Linton M. Smith	48	1000
13	창세기 3장 성경 공부 개요	James W. Knox	64	1000
14	히브리서 11장 성경 공부 개요	James W. Knox	64	1000
15	우리는 왜 킹제임스성경을 믿는가	James W. Knox	28	1000
16	큰 흰 왕좌 심판	James W. Knox	28	1000
17	기독교의 본질	James W. Knox	96	1000
18	설교의 준비와 전달	James W. Knox	88	4000
19	청지기	James W. Knox	40	1000
20	하늘나라와 지옥	James W. Knox	224	8000
21	하나님의 뜻	James W. Knox	40	1000
22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James W. Knox	28	1000
23	킹제임스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아는가	James L. Melton	28	1000
24	성경과 술	James W. Knox	28	1000
25	쉬운 복음 쉬운 전도	James W. Knox	144	5000
26	그리스도인의 옷차림	James W. Knox	64	1000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27	거룩한 여인	James W. Knox	60	1000
28	다시 태어났습니까?	H.E.M.	32	1000
29	교회에 관한 교리	James W. Knox	448	15000
30	창세기 1:1-3강해(간극이론)	Jeffery Tibbetts	96	4000
31	하나님께서서는 무엇을 받기 원하시는가	이우진	40	1000
32	교회와 대환난	James W. Knox	108	4000
33	그리스도의 몸과 지역교회	James W. Knox	36	1000
34	세대주의 재고찰	James W. Knox	324	12000
35	구원의 영원한 보장	James W. Knox	128	5000
36	이교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James W. Knox	56	1000
37	하나님의 말씀	James W. Knox	50	1000
38	가장 큰 명령	James W. Knox	42	1000
39	올라가는 기도 내려오는 응답	James W. Knox	180	7000
40	예수님의 죽음부터 부활까지의 활동들	James W. Knox	40	1000
41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	Keith Piper	32	1000
42	신약 생활 원리	Norman Harrison	96	4000
43	합당한 헌신	James W. Knox	32	1000
44	The Essence of Christianity	James W. Knox	28	1000
45	예수님 나의 예수님	이우진	48	1000
46	영원을 준비하는 삶	이우진	28	1000
47	성경의 기초들	Brent Logan	100	4000
48	하나님인가 맘몬인가?	James W. Knox	28	1000
49	성경이 말씀하시는 보상	Keith Piper	28	1000
50	셋째 출생	James W. Knox	32	1000
51	성경에 기록된 과학적 사실들	Keith Piper	32	1000
52	결혼과 가정	James W. Knox	288	10000
53	구원의 조건	George Parson	110	4000

	제 목	저 자	면 수	가 격
54	예수님과 성경	James W. Knox	140	5000
55	두 본성	George Zeller	60	1000
56	짐승의 표는 무엇인가	Terry Watkins	60	1000
57	거리 설교의 유익	James W. Knox	52	1000
58	레위기 개요	James W. Knox	48	1000
59	히브리서 연구	M. R. De Haan	336	12000
60	천년왕국	Keith Piper	36	1000
61	창세기 주석	James W. Knox	536	18000
62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Samuel C. Gipp	168	6000
63	두 홍수(간극이론)	James W. Knox	32	1000
64	예수 및 여호와인가 아니면 '야훼'와 '야호' 커넥션인가?	Gail A. Riplinger	48	1000
65	하나님의 모든계획	김 영 균	272	8000
66	Dino 박사의 창세기 간극이론의 비판에 대한 전면 반박	Gaines Johnson	56	1000
67	간극이나 아니냐에 대한 창세기 1:1~2의 연구	David F. Reagan	48	1000
68	영원히 살려면	John Phillips	112	4000
69	그리스도인이여,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Timothy P. Rose	208	8000
70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김 영 균	64	-
71	성경과 지질학	Gaines R. Johnson	304	10000
72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James W. Knox	256	8000
73	간극은 있다.	Perry Demopoulos	416	15000
74	욥기 연구	Dr. Ken Blue	372	13000

도서출판 킹제임스 문서사역 후원회 안내

진리침례교회는 구원의 복음과 진리의 지식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 1999년에 부설출판사로 도서출판 킹제임스를 세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단행본 22종과 소책자 40종 등 62종의 도서를 총 13만 3천부 이상 제작하여 보급했습니다. 이미 기독교 서점에 많은 책들이 있는데도 우리가 문서사역을 하는 이유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킹제임스성경에 기반하고 킹제임스성경을 비평하지 않는 건전한 책을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내용의 책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성경을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지은 책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에 전혀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출간된 책들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도서출판 킹제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전혀 오류가 없다는 전제 아래 지은 책들을 보급하려고 합니다.

둘째, 건전한 책을 저렴한 가격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용 소책자의 경우 시중에서 구매하려면 평균적으로 2000원~5000원 가량합니다. 우리가 제작하는 소책자의 평균 단가는 200원(소책자)~2000원(단행본) 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소책자의 경우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상으로 보급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무상으로 보급할 것입니다. 단행본의 경우도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작은 교회들에는 필요한 만큼 무료로 지원했으며, 성경 공부를 원하지만 도서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개인들에게도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한 달에 만원을 후원하시면 50명에게 무료

로 소책자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출간한 도서의 절반 이상을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우리는 사업(business)이 아닌 사역(ministry)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혼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는 아무런 수확을 보지 못할지라도 하늘에 올라가면 주님께 드릴 풍성한 수확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일에 동의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문서사역 후원회 회원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롬 10:17)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딤후 2:9)

2016년 5월
진리침례교회 담임목사
도서출판 킹제임스 대표
김 영 균

문서사역 후원 방법

- ① 국민은행 812-21-0796-159 김영균(도서출판 킹제임스)
- ① 위 계좌로 매월 25일 자동이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거래하시는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영업점에 방문하여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www.ilovekjb.com)를 참고하시고 홈페이지에 있는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담당자에게 보내주시면 발행하는 신간 도서를 한 권씩 신청서에 있는 주소로 보내드립니다.

- * 前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대학원 강사
- * 前 단국대학교 서어서문학과 교수
- * 現 진리침례교회 담임 목사
- * 現 킹제임스성경신학원 원장
- * 現 도서출판 킹제임스 대표

역 서

- * 척 스미스 <창세기>, <출애굽기> / 도서출판 포도원
- * L. E. 맥스웰 <우리는 십자가에 못박힌 채 태어났다> / 도서출판 킹제임스
- * 제임스 W. 닉스 <성령의 열매>, <성경적 종말론>, <창세기 주석>
/ 도서출판 킹제임스
- * 엠. 알 디한 “히브리서 연구” / 도서출판 킹제임스
- * 사무엘. 킵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 도서출판 킹제임스
- * 키스 파이퍼 <천년왕국>,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
<성경이 말씀하시는 보상> / 도서출판 킹제임스
- * D. L. 무디 <심음과 거둬의 법칙> / 라온누리

